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Revelation

JESUS CHRIST THE CONQUEROR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20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요한 계시록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묵시적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책이다. 따라서 시중에는 요한 계시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권의 요한 계시록에 관한 책을 세상에 내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시록에 관한 책들에도 불구하고 묵회와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책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몇 권의 책들은 지나치게 신학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묵회 상황에 맞지 않고, 그 나머지 책들은 진부한 주석집이거나 강해집들이다.

계시록은 성서의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고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제로 기록되었으며, 성서의 다른 책들의 저자들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아래서 기록되었다. 따라서 계시록은 복음서나 율기서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메시지로 선포될 수 있으며,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을, 박해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양적인 설교가 가능한 책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책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 말씀이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설교가 가능한지를 시도해 보려 하였다.

필자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리스 로마시대의 문화, 역사 및 고고학 유물에 관심을 갖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정한 크기와 최상의 상태로 편집하였고, 해설을 붙였다. 유물들에는 당시에 통용됐던 주화, 프레스코 벽화, 조각, 건축, 도기화, 사진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이것들을 한 편의 설교에 해당되는 모든 장(章)에 세 개씩 넣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필자는 모든 장(chapter) 끝 매 편의 설교를 삼등분으로 나눠 작성하였고, 각 등분마다 소제목을 붙였으며, 소제목마다 분량을 일정하게 작성하였다.

필자가 시도한 이런 형식의 글쓰기는 일찍이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필자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글을 쓰는 것보다 필요한 유물자료를 최상의 것으로 찾고 편집하고 연구하여 해설을 붙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필자의 이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 곧 신약성서 그리스도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재창조하여 활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코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란 제목의 회람편지에서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들어 있다.” 고 말하였듯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죽임을 당함과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비의 영약이 들어 있다. 이 신비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마라나타!

2020년 4월 3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차례

머리말	3
승리자 그리스도01: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1)(계 1:1-3) / 13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1)	14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2)	15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3)	16
승리자 그리스도02: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2)(계 1:4-8) / 17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4)	17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5)	19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6)	20
승리자 그리스도03: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3)(계 1:9-20) / 21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7)	21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8)	23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9)	24
승리자 그리스도04: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4)(계 1:1-3) / 25	
계시록의 저자와 기록연대, 기록목적과 주제	25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1)	27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2)	28
승리자 그리스도05: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5)(계 1:4-8) / 29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3)	29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4)	30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5)	31
승리자 그리스도06: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6)(계 1:1) / 33	
묵시록의 성격	33
예언과 묵시와 종말의 관계	34
계시와 묵시와의 관계	35

승리자 그리스도07: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7)(계 1:2-3) / 37

계시와 예언과 묵시의 관계	37
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한 요한	38
해석가로서의 요한	39

승리자 그리스도08: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8)(계 1:3) / 41

황제 메시아시대	41
황제 숭배	42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43

승리자 그리스도09: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9)(계 1:3) / 45

짐승(1)	45
짐승(2)	46
박해기간(삼년 반)	47

승리자 그리스도10: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10)(계 1:3) / 49

성서의 저자들(1)	49
성서의 저자들(2)	50
성서의 저자들(3)	51

승리자 그리스도11: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11)(계 1:3) / 53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1)	53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2)	54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3)	55

승리자 그리스도12: 인자 같은 이(1)(계 1:4-8) / 57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57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58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59

승리자 그리스도13: 인자 같은 이(2)(계 1:9-20) / 61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61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62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63

승리자 그리스도14: 인자 같은 이(3)(계 1:12-16) / 65

“인자 같은 이”(Like a Son of Man)	65
‘수난자 인자’	66
‘영광의 인자’	67
승리자 그리스도15: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1)(계 1:17-20) / 69	
승리자, J 장군(1)	69
승리자, J 장군(2)	70
승리자, J 장군(3)	71
승리자 그리스도16: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2)(계 2:1-7) / 73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1)	73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2)	74
에베소 교회	75
승리자 그리스도17: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3)(계 2:8-17) / 77	
서머나 교회	77
버가모 교회	78
니콜라당(1)	79
승리자 그리스도18: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4)(계 2:18-29) / 81	
니콜라당(2)	81
두아디라 교회(1)	82
두아디라 교회(2)	83
승리자 그리스도19: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5)(계 2:20-23) / 85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85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야훼’ 신앙(1)	86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야훼’ 신앙(2)	87
승리자 그리스도20: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6)(계 2:26-27) / 89	
삼년육개월과 증인의 표상으로서의 엘리야(1)	89
삼년육개월과 증인의 표상으로서의 엘리야(2)	90
삼년육개월과 증인의 표상으로서의 엘리야(3)	91
승리자 그리스도21: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7)(계 3:1-13) / 93	
사데교회	93

빌라델비아 교회	94
“귀 있는 자는”(1)	95
승리자 그리스도22: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8)(계 3:14-18) / 97	
“귀 있는 자는”(2)	97
라오디게아 교회(1)	98
라오디게아 교회(2)	99
승리자 그리스도23: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9)(계 3:19-22) / 101	
라오디게아 교회(3)	101
라오디게아 교회(4)	102
“이기는 자는”	103
승리자 그리스도24: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1)(계 4:1-11) / 105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1)	105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2)	106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3)	107
승리자 그리스도25: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2)(계 4:1-11) / 109	
생물 또는 케루빔(1)	109
생물 또는 케루빔(2)	110
생물 또는 케루빔(Cherubim)(3)	111
승리자 그리스도26: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3)(계 4:1-11) / 115	
천상의 예배(1)	115
천상의 예배(2)	116
천상의 예배(3)	117
승리자 그리스도27: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3)(계 5:1-14) / 119	
천상예배의 내용	119
일곱 인 두루마리(1)	120
일곱 인 두루마리(2)	121
승리자 그리스도28: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4)(계 5:1-14) / 123	
일곱 인 두루마리(3)	123
일곱 인 두루마리(4)	124

일곱 인 두루마리(5)	125
승리자 그리스도29: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5)(계 6:1-17) / 127	
계시록의 분리와 반복	127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1)	128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2)	129
승리자 그리스도30: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6)(계 6:1-17) / 131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3)	131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4)	132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5)	133
승리자 그리스도31: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1)(계 7:1-17) / 135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1)	135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2)	136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3)	137
승리자 그리스도32: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2)(계 7:1-17) / 139	
환란과 재앙의 차이(1)	139
환란과 재앙의 차이(2)	140
환란과 재앙의 차이(3)	141
승리자 그리스도33: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3)(계 8:1-13) / 143	
저주받은 지옥백성(1)	143
저주받은 지옥백성(2)	144
저주받은 지옥백성(3)	145
승리자 그리스도34: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4)(계 9:1-21) / 147	
일곱 나팔재앙(1)	147
일곱 나팔재앙(2)	148
일곱 나팔재앙(3)	149
승리자 그리스도35: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5)(계 9:1-21) / 151	
일곱 나팔재앙(4)	151
일곱 나팔재앙(5)	152
일곱 나팔재앙(6)	153

승리자 그리스도36: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1)(계 10:1-6) / 155

힘센 천사(1)	155
힘센 천사(2)	156
힘센 천사(3)	157

승리자 그리스도37: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2)(계 10:7-11:2) / 159

힘센 천사(4)	159
힘센 천사(5)	160
두 증인(1)	161

승리자 그리스도38: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3)(계 11:3-4) / 163

두 증인(2)	163
두 증인(3)	164
두 증인(4)	165

승리자 그리스도39: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4)(계 11:5-19) / 167

두 증인(5)	167
두 증인(6)	168
두 증인(7)	169

승리자 그리스도40: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5)(계 12:1-4) / 171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1)	171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2)	172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3)	173

승리자 그리스도41: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6)(계 12:5-17) / 175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4)	175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5)	176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6)	177

승리자 그리스도42: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7)(계 13:1-5) / 179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1)	179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2)	180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3)	181

승리자 그리스도43: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8)(계 13:6-15) / 183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4)	183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1)	184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2)	185
 승리자 그리스도44: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9)(계 13:16-18) / 187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3)	187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4)	188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5)	189
 승리자 그리스도45: 강화된 두 갈래 길(1)(계 14:1-11) / 191	
강화된 두 갈래 길(1)	191
강화된 두 갈래 길(2)	192
강화된 두 갈래 길(3)	193
 승리자 그리스도46: 강화된 두 갈래 길(2)(계 14:12-20) / 195	
강화된 두 갈래 길(4)	195
강화된 두 갈래 길(5)	196
강화된 두 갈래 길(6)	197
 승리자 그리스도47: 강화된 두 갈래 길(3)(계 15:1-8) / 199	
일곱 대접재앙(1)	199
일곱 대접재앙(2)	200
일곱 대접재앙(3)	201
 승리자 그리스도48: 강화된 두 갈래 길(4)(계 16:1-21) / 203	
일곱 대접재앙(4)	203
일곱 대접재앙(5)	204
일곱 대접재앙(6)	205
 승리자 그리스도49: 강화된 두 갈래 길(5)(계 16:12-16) / 207	
일곱 대접재앙(7)	207
일곱 대접재앙(8)	208
일곱 대접재앙(9)	209
 승리자 그리스도50: 새아침이 밝아오다(1)(계 17:1-18) / 211	
큰 음녀의 받을 심판(1)	211

큰 음녀의 받을 심판(2)	212
큰 음녀의 받을 심판(3)	213

승리자 그리스도51: 새아침이 밝아오다(2)(계 18:1-24) / 215

큰 음녀의 받을 심판(4)	215
큰 음녀의 받을 심판(5)	216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1)	217

승리자 그리스도52: 새아침이 밝아오다(3)(계 19:1-21) / 219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2)	219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3)	220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4)	221

승리자 그리스도53: 최후의 승리(1)(계 20:1-6) / 223

천년왕국(1)	223
천년왕국(2)	224
천년왕국(3)	225

승리자 그리스도54: 최후의 승리(2)(계 20:7-15) / 227

최후의 승리(1)	227
최후의 승리(2)	228
최후의 승리(3)	229

승리자 그리스도55: 최후의 승리(3)(계 21:1-8) /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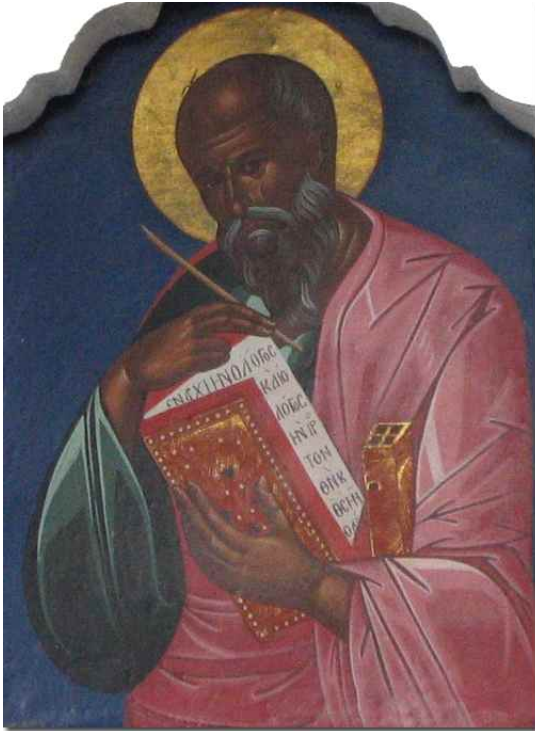
새 하늘과 새 땅(1)	231
새 하늘과 새 땅(2)	232
새 하늘과 새 땅(3)	233

승리자 그리스도56: 최후의 승리(4)(계 21:9-22:21) / 235

거룩한 성 예루살렘(1)	235
거룩한 성 예루살렘(2)	236
거룩한 성 예루살렘(3)	237

승리자 그리스도이: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1)(계 1:1-3)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1)



사도 요한(박모세의 벽화)

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동일하게 ‘고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제로 기록되었고, 성경의 다른 책들의 저자들과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아래서 기록되었다. 따라서 계시록은 복음서나 율기서와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메시지로 선포될 수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용기 있는 믿음과 희망을, 박해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목양적인 설교가 가능한 책이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이다. 1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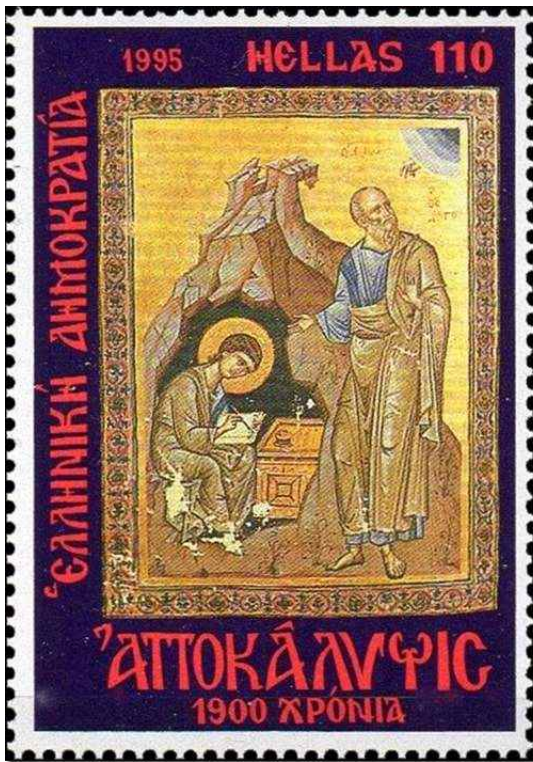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예언의 말씀” 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읽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며,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록이 연구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계시록을 조심스럽게 읽고 깊이 있게 연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념해야할 점들이 있다.

첫째로 유념할 점은 계시록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형상들과 이상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용과 많은

머리와 뿔을 가진 짐승들이 등장하고 있고, 말(馬) 같기도 하고, 금관(金冠)을 쓴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털은 여자 같고, 이빨은 사자 같으며, 갑옷으로 무장하였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날개들이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 황충이며,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내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는 말과 같은 기괴하고 해괴한 형상들이 많이 등장한다. 또 2억의 군인들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과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며, 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기이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2)



계시록 그리스 우표(1995년)
헬라스, 헬레니케 공화국, 1900년 전 아포카립티시스(묵시).
바르셀로나의 토클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과 이것을 받아
적고 있는 프로코로(Procorus, 행 6:5)를 묘사하였다.

사람들은 이런 형상들을 장차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계시록이 말하는 이상하고 기괴한 형상들을 가진 짐승들을 만들 것이며, 또 그것들을 지상에 풀어놓으실 것으로 믿는다. 계시록의 사건들도 기술된 그대로 정확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계시록에 기술된 모든 형상과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이다.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헬라어로 ‘아포카립티시스’ (Ἀποκάλυψις)라고 말

함으로써 계시록이 많은 상징들로 기록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아포카립티시스는 고대문학의 한 장르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를 우리말로 ‘묵시’라고 말한다. 묵시적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과 동터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 즉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다주실 구원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묵시록은 무대에 오른 드라마처럼 묵시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일련의 드라마의 형태로 제시된다. 그리고 각각의 드라마는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독자들에게 권면한다. 예를 들면, 백색은 전형적으로 선(善)을 대표하며, 적색은 악(惡)을 대표한다. 숫자 7은 어떤 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온전하게 채워진 것을 상징하며, 6은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함을 즉 부족과 타락을 상징한다.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는 제국과 제왕들을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서는 여러 짐승의 몸을 한 몸에 가진 이상한 짐승도 소개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스가랴도 그들 책의 일부분을 묵시적 형태로 쓰고 있고, 계시록에 언급된 상징들과 형상들이 이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한이 계시록의 성격을 ‘아포카립시스’라고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미래에 발생될 일에 관한 문자적인 예언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계시록을 만세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즉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권면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의 해괴한 형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 위한 상징들로 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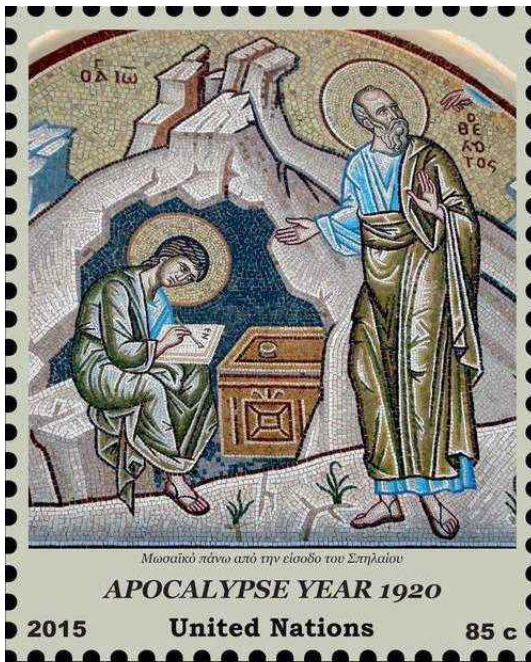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3)

우리가 계시록의 형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계시록 1장 12-16절에 기술된 예수님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받아 들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계시록 1장 12-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 묘사가 다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양날 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형상은 예수님께서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자이심을 또 그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눈과 용광로에 단련된 주석처럼 빛나는 발을 가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형상은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국제연합 우표(2015)

1920년 전 아포카립티스(묵시). 2015년 국제연합.
 바티칸의 토굴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과 이것을 받아
 적고 있는 프로코로(Procorus, 행 6:5)를 묘사하였다.

가는 그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의 확신과 희망 있는 장래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자적인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용납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릴 자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문자적인 해석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도 잘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이상한 형상의 어린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많은 형상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를 살아

승리자 그리스도02: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2)(계 1:4-8)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4)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하치카르(Khachkars, 십자가석들)

둘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다.

요한은 계시록의 환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하였다고 계시록 1장 1절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책의 말씀은 진실 되다. 둘째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된 다른 모든 성경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계시록의 형상들과 상징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란 점이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책의 독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에 주목하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7절에서 반복되고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실천적 교훈을 찾는 것이다. 계시록을 관념론적으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재림에 즈음해서 발생될 사건 즉 칠년대환난의 때에 발생될 사건으로만 이해하려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계신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바람직하게 읽는 방법이

다.

넷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일차적으로 미래에 관한 예언서로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세상 끝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영토와 성전예배의 문자적인 회복과 관련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칠년대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은 천년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교회와 계시록과의 관련성이 희박해지고 만다. 오히려 계시록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교회에 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5)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문양 노라뱅크 수도원

계시록은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차적으로 보내어진 서신이다.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과 입장에서 읽혀져야 한다.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은 이 책의 메시지가 일세기 말경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내진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에 언급된 형상들과 사건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정황과 관련

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 천년 후에 발생할 사건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박해 상황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장래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에 관한 예언을 읽는 것에 흥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정황을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의 하나 계시록이 유대인들의 축복을 예언한 책이라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읽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계시록의 초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있음을 계시록의 각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장 5-6절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해방된 자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내어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장과 5장의 환상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7장에 나오는 대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큰 무리도 어린양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었다. 11장의 두 증인도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한다. 12장의 붉은 용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적고 있다. 14장의 144,000명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17장의 음녀 바빌론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 갈 것이다. 20장에서 보좌에 앉아 천년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실천적 교훈을 찾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6)



터키 땅인 눈 덮인 아라랏산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코르비라프(Khor Virap)에 소재한 사도교회 수도원의 벽 십자가 문양들

다섯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시록이 일차적으로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든지 기독교와 같은 다른 교리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

명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1: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22:13).

계시록은 하나님을 각종 보석과 무지개로 묘사하는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영화롭고 찬란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은 악한 자들에게 각종 재앙들을 선포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은 기독교론을 설명하는 많은 성구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성구들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다.

계시록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호칭들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서도 하신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징은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사건들을 말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

승리자 그리스도03: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3)(계 1:9-20)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7)



모든 수고를 끝낸 헤라클레스가 영광과 준주로 관을 쓰는 그림
(Sebastiano conca, 1680-1764, 이탈리아인 화가)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뵈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236장)”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말미암아 영광과 준주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9-10).”
*그림에서 헤라클레스가 머리에 쓴 네메아의 사자 가죽,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는 크레타의 황소, 다리 주변에 그려진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헤스페리데스의 사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머리가 세 개인
하데스의 수물장 케르베로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운명적으로 부과됐던
고난들을 묘사한 것이다.

여섯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이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시록은 천국에서의 예배와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요한이 1장 4-8절에서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송이 발견되고 있다.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이 제시하는 모델들을 따라서 참 예배의 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계시록에 설명된 환상들은 적어도 한두 개씩의 예배의 모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계시록의 각 장에서 상징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배에 관한 훌륭한 교훈을 찾아내어 실천할 수 있다.

일곱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계시록의 메시지를 요약해 주고 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밋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고난’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 등에 관해서 상징적인 형태로 극화(劇化)하고 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왕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장차 현세의 고통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희망을 전하고 있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8)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괴물 라돈(龍)을 무찌르고 정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와 비교), 왼손에 올림포스 동맹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스토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해야 한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주된 목적이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2-3장에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차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계시록을 사용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권면해야 한다.

여덟째로 유념할 것은 계시록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등잔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은 그가 본 두 가지 비밀 또는 상징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1장을

종결하고 있다. 일곱 금 등잔대는 이 서신을 받게 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使者)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상징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은 대략 13개 정도이다. 나머지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남겨 놓았다. 이들 설명이 되지 않은 형상이나 상징들은 계시록의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계 13:18)는 말씀은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비밀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장려하는 말씀이다.

계시록을 읽고 연구할 때 유념할 점(9)



헤라클레스가 육신의 집을 벗고 신들의 대전전에 올라 자신을 그토록 리혹했던 여신 헤라의 딸이자 신들에게 복을 따르는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하는 인간 승리의 극적인 장면이다.
(Jens Adolph Jerichau, 1816-1883)

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상징들, 형상들, 색깔들, 또는 숫자는 구약 예언자들의 묵시적 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구약의 출애굽 사건,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바벨론 유배와 귀환과 같은 사건들과 그밖에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등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 계시록과 구약성경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일부분을 이해하기도 전에 책 전체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비밀이 있다면 비밀 그대로 덮어두어야 한다.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0장 4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부분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계획을 일부분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사도 요한처럼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계 7:14)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도 서서히 깨달아질 날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다.

승리자 그리스도04: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4)(계 1:1-3)

계시록의 저자와 기록연대, 기록목적과 주제



예언자 예레미야(미켈란젤로, 1511년)

계시록은 황제숭배를 가장 심하게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96년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일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다른 요한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계시록의 저자는 첫째, 창조신앙의 소유자였으며; 둘째, 구약성경의 해석자였으며; 셋째, 환상을 보는 목시문학자였으며; 넷째, 역사의식이 뚜렷한 신학자였으며; 다섯째,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였다는 점을 확실히 밝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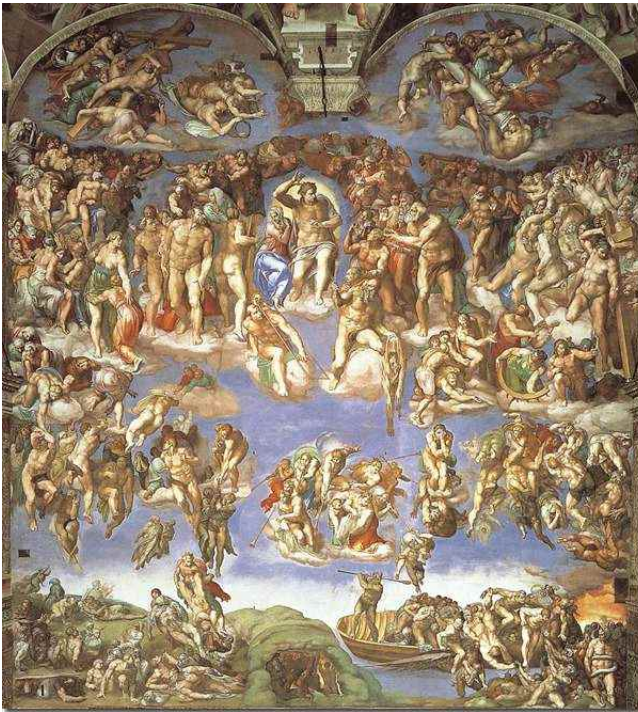
계시록은 이와 같은 자질의 소유자인 목회자가 쓴 설교 곧 권면이자 예언이다. 이 설교는 보통의 원고 설교나 저자가 쓴 희곡이 아니라, 저자 자신이 본 환상을 그대로 전한 일종의 동영상 설교(Audio-video Sermon)이다. 계시록은 앞으로 될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설교일 뿐 아니라, 저자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시기적절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목양 설교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은 회람용으로 쓰였고, 예수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였다. 계시록의 본문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며(7:17; 21:4),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8:3,4)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며(15:2), 피의 보상을 받고(19:2),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보장받는다(21장)고 말한다.

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둘째는 거짓선지자의 이단과 관련해

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했었는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666)의 칼의 위협과 거짓선지자의 이단 사설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1)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의 제단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1536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541년에 완성한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층부의 그리스도를 좌우에서擁위한 인물들은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에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 하층부는 지옥의 모습으로서 빗사공 카론이 혼령들을 실어다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에게 보내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이마에 발이 난 저승사자들이 지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을 붙잡아 끌러내리는 모습이다.

천상의 모습과 지상의 모습을 한목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이 본 4개의

계시록은 7이란 숫자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개의 환상은 총 일곱 장의 압축된 그림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 일곱 장의 그림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그린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 벽화와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가 그린 ‘최후의 심판’ 판화와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이 조각한 ‘지옥의 문’에서처럼, 다섯 번째인 중간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장의 그림들에 요한이 본 환상의 천상의 모습들과 지상의 모습들을 담을 수 있고, 각각의 그림에 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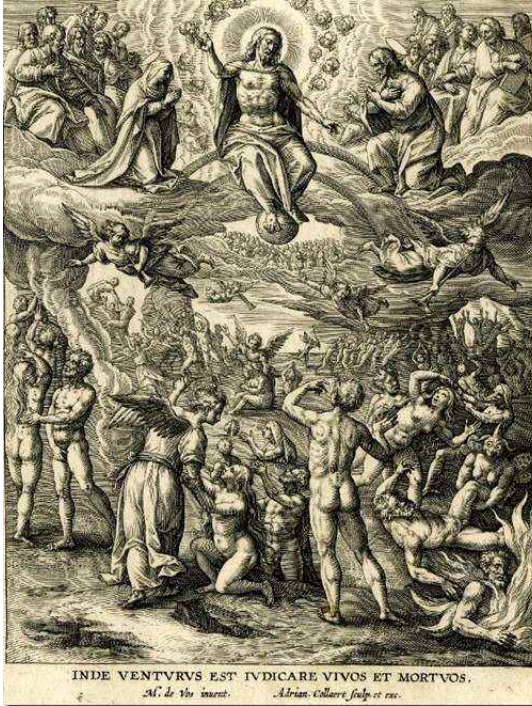
환상들을 압축한 이들 일곱 개의 그림들은 신자들의 고난과 구원 그리고 박해자와 불신자들의 불행한 최후를 경고한다.

첫 번째 그림은 박해의 광풍을 금방이라도 잔잔케 하실 인자의 모습을 상충부에, 거센 풍랑을 만나 몹시 괴로워하는 일곱 교회를 하충부에 담는다. 두 번째 그림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잠깐 동안 장악된 인류의 역사를 바로세울 하늘 보좌방의 화려한 모습을 상충부에, 일곱 인 재앙에 나타나는 지진, 기근, 전쟁, 순교, 천재지변과 같은 역사의 악순환을 하충부에 담는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은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장면을 각각 상충부에,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각각 하충부에 담는다. 이들의 모습은 방주에 안전하게 피신한 노아의 여덟 식구와 엄청난 물난리 속에서 멸망당하는 불신자들의 장면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 바닷가에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홍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바로의 군사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며, 소알로 피신하여 안도하는 롯과 그의 두 딸과 유향과 연기와 불에 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우성치며 처참히 죽어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2)

네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보다 그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저주의 장면을 하충부에 담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림은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고난당하는 장면을 독자의 좌측에 담고, 박해자들과 그들의 나라가 천벌을 받는 장면을 독자의 우측에 담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림은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르는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을 상충부에, 지상에서의 백보좌심판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하충부에 담는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림은 통합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장면을 담는다(엡 1:10-11).

요한이 전한 환상 곧 동영상(audio-video) 메시지를 일곱 개의 클립(clip)으로 끊고, 그 일곱 개의 클립에 담긴 모든 영상을 일곱 개의 그림에 담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관람자가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최후의 심판’이나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또는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을 감상하는 것으로써 수십 쪽 또는 수백 쪽의 책 속에 담긴 내용을 한목에 보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이다. 환상이



아트리에인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판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Flanders)의 데자이너 겸 판화조각사였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동일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좌우에 웅위한 인물들은 사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은 저승사자들에게 붙잡혀 지옥 불에 던져지는 모습이다. 하단 난외에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인경의 한 소절이 적혀있다.

란 긴 동영상을 일곱 장의 정제된 그림으로 압축하면 전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 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한 불신자들을 완전히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상과 지상이 반드시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상은 구원을 그리고 지상은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두 길은 다시 만나질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이다.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은 구원의 길로,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우상숭배에 머리를 조아린 자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승리자 그리스도05: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5)(계 1:4-8)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3)



계시록 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별과 겹을 가지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였다.

2-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온다. 물론 이 교회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돌풍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들 교회들도 박해로 인해서 전복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장에서는 이들 교회의 머리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의 배후에 화려한 인자의 모습으로 버티고 계신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배를 요동치게 하던 바람과 풍랑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잔잔하여짐과 같이(막 4:35-41) 능력의 주께서 일곱 교회의 목자들을 상징하는 일곱 별을 손에 쥐고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등잔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몰아닥친 풍랑은 곧 잔잔하여 질 것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상에, 교회는

지상의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6장에서는 소위 인 재앙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인 재앙은 사실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승리, 전쟁의 파괴, 기근, 죽음, 신앙으로 인한 순교, 천재지변, 평화에 관한 표현으로써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그 반면에 4-5장에서는 인류의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백악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요, 윤회의 역사도 아니요, 오직 이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천상에, 인류는 지상의 존재임이 부각되고 있다.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4)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제단 7월에 선 금향로를 가진 천사와 천사들의 네가지 나팔을 묘사하였다.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회화적(繪畵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만 내리고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던 것과 같다. 또 출애굽기 14-15장과 계시록 15장 2-4절에 나타난 장면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구원의 기쁨과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고, 이집트 군사들은 불과 유황으로 이글거리는 것 같은 홍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 가는 모습과 같다. 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면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신 것과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면서 롯과 두 딸

8-9장은 나팔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들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의 재앙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사탄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이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성도의 휴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휴거의 의미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설명된다. 7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의

을 구원하신 것과도 같다(눅 17:26-29).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마치 억류된 자국민을 구해내기 위해 포격을 가하고 특공대를 파견하여 구출해내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다. 또한 지상의 재앙과 천상의 큰 무리는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계시록의 구조적인 틀(5)



계시록 1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 재앙의
환상을 묘사하였다.

15-16장의 대접 재앙도 8-9장의 나팔 재앙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점은 대접 재앙이 나팔 재앙보다도 그 강도에 있어서 3배가된다는 점이다. 나팔 재앙의 강도가 33퍼센트 일 때, 대접 재앙의 강도는 100퍼센트가 된다는 것이다. 14장 역시 7장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구원받은 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들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할 뿐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문자적 성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도의 구원이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13장은 성도의 고난을 삼년 반으로 묘사한 중간계시를 보여 주고 있고, 그 반대로 17-19장에서는 성도에게 박해를 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심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들은 중간 계시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구세주이심을 입증하는 구원의 행위인 것이다.

20-22장에서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19장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짧은 성도의 수고가 끝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의 삶이 시작됨을 알리게 된다. 이 영광의 삶은 부활의 몸, 구속된 몸, 혹은 변형된 몸으

로 시작된다. 성도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지상 혹은 낙원에서 선취적으로 이 삶을 맛보며 누려 왔으나, 부분적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천상과 지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신천신지(新天新地)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엡 1:10-11). 21-22장의 말씀은 이런 인류가 가진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은 일정한 틀, 곧 분리와 반복으로 구성된 일곱 개의 그림으로 압축시킬 수 있는 동영상 설교이며, 마음 뭉클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담긴 장편 드라마 설교이다.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현실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인내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승리자 그리스도06: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6)(계 1:1)

목시록의 성격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는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성격을 특징짓는 선언이다. 먼저 요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임을 선언한다. 둘째로 그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셋째로 그 계시를 천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다. 넷째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한 메신저가 천사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다섯째로 그 계시를 기록한 인물이 요한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요한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여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였고, 천사로부터 전달받아 기록한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토라(Torah) 또는 계명들(Mitzvot)임을 선언한 것에 비교된다.

그러나 여기서 ‘계시’란 말은 ‘목시’란 뜻을 더 강하게 내포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에서 ‘계시’란 말은 헬라어 단어 ‘아포카립스’ (Ἀποκάλυψις)로써 ἀπο(~로부터 멀리)와 καλύπτω(덮는다. 감춘다)의 합성어이며, ‘베일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비밀이었던 것이 밝혀진다,’ ‘숨겨진 사건이 폭로된다’는 뜻이다. 또 이 단어 ‘아포카립스’ (Ἀποκάλυψις)는 문자적 의미의 ‘계시’란 뜻보다는 ‘목시’란 뜻으로 쓰이며, 문학 장르의 하나인 ‘목시문학’에 주로 쓰인다. 따라서 문학적 성격을 요한계시록은 목시문학으로 분류된다. 요한계시록이 목시문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시적 성격이나 예언적 성격이 없지 않다. 그래서 ‘계시록’ 혹은 ‘예언서’ 혹은 ‘목시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목시와 예언과 계시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필요를 느낀다. 목시록은 스토리로 엮어진 긴 글이면서 ‘희망’과 ‘인내’와 최후승리와 최후심판을 다룬다는데 있다. 따라서 목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과 동터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 즉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다주실 구원과 축복들에 대해서 말한다. 유대교적 배경에서 보면, ‘올람 하바’ (Olam Ha-Ba)에 대한 ‘하티크바’ (Ha-Tikvah)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에서 찾을 수 있

다. 묵시록은 영화나 비디오가 없던 먼 옛날에 극장무대에 올린 드라마와 같아서 다가올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드라마는, 마치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예를 들면, 백색은 선(善)을, 적색은 악(惡)을 대표한다. 숫자 7은 어떤 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온전하게 채워진 것을 상징하며, 6은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함을 즉 부족과 타락을 상징한다. 다니엘서는 제국과 제왕들을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서는 여러 짐승의 몸을 한 몸에 가진 이상한 짐승도 소개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스가랴도 그들 책의 일부분을 묵시적 형태로 쓰고 있고, 계시록에 언급된 상징들과 형상들이 이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유대교 묵시록들은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스라엘나라의 회복이란 희망에 연결되어 있다.

예언과 묵시와 종말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예언서로 알고 있는데, 예언(Prophecy)은 묵시(Apocalypse)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첫 번째로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Torah)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고, 묵시록 저자들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성찰한 해석자들이었다.

두 번째로 예언은 단편적인 글인데 반해서 묵시록은 사상체계에 있어서 비교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로 예언은 그 목표가 민족적인데 반해 묵시록은 개인적이다. 신학자 몰트만은 예언을 민족경륜으로 묵시록을 시대경륜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예언은 언제나 현재적인 상황에서 각 시대의 요청에 따랐고, 묵시록은 역사성을 무시한 채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네 번째로 예언과 묵시록의 형성 시기는 각각 다르다. 예언은 주로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 전후 주전 8세기와 바벨론유배전후시대인 주전 7-5세기로 볼 수 있으나, 묵시록은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말까지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예언은 저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대개의 묵시록은 가명으로 되어 있다. 가명을 쓴 이유는 문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었거나, 박해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언과 묵시 사이에는 공통점도 많다. 첫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민중에게 전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예언에서는 민중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묵시에서는 세상에서 좌절한 민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두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박해나 배교의 위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같다. 세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점차적으로 전 세계, 전 역사의 운명을 논한다는

점에서 같다. 회개와 회복을 논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나 예언에서는 주로 회개와 사회개조를 부르짖고, 묵시에서는 우주의 개조와 천상의 비밀을 공개한다.

네 번째로 예언과 묵시는 목적과 시대환경과 방향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예언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묵시록 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로 예언자나 묵시록 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신의 영감, 곧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한 자들이다.

묵시(默示)와 종말(終末)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있다. 종말은 ‘끝’이라는 말에서 왔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그러나 묵시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적인 현상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말은 시간의 문제이고, 묵시는 종말의 시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이다.

신약성서에서의 종말론은 유대교의 미래종말론이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시한부종말론과 크게 다르다. 신약성서종말론의 특징은 현재종말론이다. 현재종말론이란 종말이 성령의 오심과 능력으로 ‘이미’ 지상의 교회 안에서 출범했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다른 말로 ‘시작된 종말’이라고 부른다. 유대교에는 이 시작된 종말론이 없다. 신약성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종말을 여전히 희망한다는 점에서 묵시문학사상에 한발을 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묵시문학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시와 묵시와의 관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속에서 이미 영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환란과 핍박을 막연히 견디거나 종말의 축복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며 바랄 수 있다고 하였다.

‘계시’(啓示)는 초월자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의미한다. 현현(顯現)이란 변신(變身, Theophany)과 거의 같은 뜻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변신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계시의 모습은 변신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참 모습이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육적으로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모습을 말한다. 그리스신화를 빌리면 계시가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난봉꾼으로서 여신들뿐 아니라, 인간의 딸들까지 넘보곤 했다. 번개였던 제우스가 자신의 본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날 경우, 인간은 새까맣게 타죽고 만다. 그래서 백조나 황소나 건장한 미남 청년으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 알크메네와 세멜레

와 같은 인간 여성들을 꼬드겨서 임신을 시키곤 했는데, 그들의 아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세멜레는 유모로 변신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난 헤라에게 속아서 제우스에게 스틱스강에 맹세케 하고 본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청한다. 죽음의 세계인 음부 한가운데를 흐르는 증오의 강인 스틱스강에 대고 맹세하면, 제우스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서 제우스는 세멜레 앞에 번개로 나타나게 되고, 세멜레는 디오니소스를 임신한 채로 새까맣게 타죽고 만다. 제우스는 5개월밖에 안된 디오니소스를 세멜레한테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허벅지 속에 숨겨 남은 5개월을 채워 출산시켰다고 한다.

그리스신화에서 보듯이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형태의 변신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 계시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이다. 성서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 두 번째 계시의 형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속성들을 드러내셨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발견된다. 세 번째 계시의 형태는 인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조차 통달하시는 성령님은(고전 2:10)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일깨워준다.

네 번째 계시의 형태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계시의 한 형태이다. 다섯 번째 계시의 형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들이다. 만물을 존재케 하신 창조사건, 출애굽사건과 십자가사건과 같은 구원사건이 계시적 사건들이다. 이밖에도 모세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 불붙는 떨기나무, 모세에게 보인 하나님의 등(출 33:23), 예수님의 부활사건, 능력 행하심이 다 계시적 사건들이다. 이런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역사경륜과 계획을 환상과 말씀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승리자 그리스도07: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7)(계 1:2-3)

계시와 예언과 묵시의 관계

계시와 예언과 묵시가 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구원의 뜻과 역사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각각의 장르가 독특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뜻이 변신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예언자들의 입과 묵시록 저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구원활동 그 자체를 계시로 볼 수 있다. 한편, 예언은 예언자들의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회개운동은 현재적이고, 예언은 미래적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묵시는 문학적인 글에 가까운 것으로써 예언보다는 희망을 담은 권면(설교)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면서, 예언의 글이기도 하지만, 묵시적 성격이 강한 글이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 기록된 내용이 ‘발생할 일들’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는 점에서는 포상과 징계,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담은 권면의 성격을 띤 글이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는 점에서는 미래적이기보다는 현재적이고, 미래의 사람에게 전하는 글이기보다는 현재의 사람에게 전하는 글이다. 따라서 계시록은 시간과 시대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기보다는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시간에서 볼 때 언제나 현재가 되는 글이다. “그 때가 가깝다.” 는 것도 언제나 현재적인 경고가 된다. 시간에 관계없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그 때가 가깝다.” 는 긴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은 계시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하였다고 1장 1절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확신을 가

질 수 있다. 첫째,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책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된 다른 모든 성서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들은 계시록의 내용들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첫째로 그것은 다른 성서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이 계시록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얻어진 해석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다른 성경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며, 성서의 다른 책들과 동일한 메시지를 찾는데 충실해야 한다.

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한 요한

계시록 1장 3절은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 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둘째는 그의 증언이 자기가 본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 ‘요한’ 이 정확히 누군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도 요한이라는 주장,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주장, 장로 요한이란 주장, 선지자 요한이란 주장, 마가 요한이란 주장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예녹, 에스라, 바룩과 같은 가명(위경)을 쓰는 다른 묵시들과는 달리, 계시록은 네 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요한’ 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1:1, 4, 9; 22:8). ‘사도’ 라는 호칭 없이 그냥 ‘요한’ 이라고 밝힌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에게해 연안 소아시아도(道)의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 이란 이름의 유대인이란 점이고, 그가 전한 증언이 ‘자기가 본 것’ 에 기초했다는 점이다. ‘자기가 본 것’ 이란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그것이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견해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본대로 증언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본 것,’ ‘본 바,’

‘본’ (seen) 또는 ‘보았는데’와 같은 단어들이 많다. 그리고 22장 18-19절을 보면, “이 책의 예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본 것 그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을 섞지 않는 순수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구약성경에서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로에,’ ‘호제’ 또는 ‘나비’라고 하는데, ‘로에’와 ‘호제’는 ‘보는 자’(seer)란 뜻으로써 선지자나 선견자를 의미했다(삼상 9:6; 삼하 24). 그러나 선지자나 선견자는 자기 자신의 선견 또는 자기가 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보여주신 것(렘 24:1; 겔 37:1; 암 7:1; 숙 3:1)을 전하였다. 그리고 예언자시대가 진행되어갈수록 예언자는 ‘로에’(ro’eh)나 ‘호제’(chozeh)보다는 ‘나비’(Nabi)라고 불렸다. ‘나비’는 전하는 자 또는 대언자란 뜻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거나 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들려주신 것을 전하였다. 예언을 받는 형식이 환상에서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귀로 듣는 것으로 바뀌었다.

해석가로서의 요한

첫째, 요한은 삶의 해석자였다. 그는 사건사고들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재수나 운수로 해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발생되는 일들을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에 의한 사건들로 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둘째, 요한은 역사해석자였다.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읽어냈다. 요한에게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의 의미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내고, 신앙의 귀로 듣고, 신앙의 입술로 고백하는 영적 예민함이 있었다.

셋째, 요한은 성서해석자였다. 요한은 구약성서에 실린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 냄으로써 박해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당대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우주를 향한 경륜과 계획을 밝혀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향한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하고 끈질기며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였다.

성서 저자들은 전승의 해석자들, 조상 때부터 전해진 가르침의 해석자들이었다. 구약성서가 완성되기 이전의 예언자들은 시내산 언약과 같은 계약 전승들을 표준갯대로 삼았고, 급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을 부르시는 야훼의 뜻을 밝히고 응답을 촉구할 목적으로 계약전승들을 해석하였다. 바울도 사도전승, 특히 안디옥 교회 전통들을 해석해 냄으로써 이전 시대에 밝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 곧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밝혀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선별하고 충실하게 해석한 전도자들이었다. 이단의 침투와 기독교박해로 인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배교의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제도와 질서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주옥같은 말씀들과 권세 있는 발자취는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의로 교육할 최상의 자료였다.

넷째, 요한은 비전을 품은 지도자였다. 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이 영영 응답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고(사 6:13; 11:1,10), 에스겔은 골짜기에 쌓인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겔 37:1-10).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이 결코 ‘교회’란 이름의 작은 배를 침몰시킬 수 없는 사실을 보았다(막 4:35-41).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처럼(출 15장)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 예수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보았다(계 15:2,3). 요한은 박해세력들이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출 15장),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창 19장), 범람하는 홍수 속에(창 6-8장), 심판의 재앙 속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구약성서의 사건들 속에서 보았다.

승리자 그리스도08: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8)(계 1:3)

황제 메시아시대



위의 데나리온의 인물은 삼두정치 때의 카이사르 신의 아들(CAESAR DIVI F) 옥타비아누스이고, 율리우스의 동상이 서 있는 4주식 건물은 신성 율리우스(DIVVS IVLIVS)의 신전이며, 별은 율리우스의 신성을 현시한 혜성(368C)이다. 아래의 인물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CAESAR AVGVSTVS)가 된 옥타비아누스이고, 별은 율리우스의 신성(DIVVS IVLIVS)을 현시한 혜성이다(188C).

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이후 황제 숭배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이후 전파된 그리스도교 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디오니소스(바쿠스)제전이 제공한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 발산과 쾌락이 채워주지 못했던, 또 카비루스 숭배와 황제 숭배가 채워주지 못했던, 심지어 유대교조차 채워주지 못했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었으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중의 한 분을 택해야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황제숭배는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시작되었다. 주전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되고 나서 로마의 밤하늘에 한 혜성이 나타났는데, 로마인들은 이 현상을 시저의 영혼이 사후세계로 옮겨간 현시라고 믿었다. 2년 후인 주전 42년 제2차 삼두정권(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하였고, 신전을 건축하여 그를

그리스로마시대에 카비루스(Cabirus) 숭배신앙이 있었는데, 카비루스는 권리박탈자들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살해된 자로서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기적을 행하였고, 은밀히 환생하여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장차 재림하여 하층민들에게 정의와 평화, 독립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카비루스 숭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황제 숭배가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카비루스가 카이사르의 몸으로 환생했

기렸다. 혜성이 부조된 율리우스 신전(Temple of Divus Julius)은 시저 숭배의 상징물로써 테나리온에도 장식되었다.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이 후로는 황제들의 생전에 그들을 위한 신전들이 건립되었고, 결과적으로 황제숭배는 민중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잣대로 돌변하였다. 이 사악한 뒷에 우상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걸려들었다.

반면에 그리스로마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다신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그들이 굳이 유일신만을 고집하며 순교를 불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황제가 인간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할 명분이나 실익을 찾지 못하였다.

황제 숭배



아우렐리아누스(주후 270-276년 재위)

전면에 황제의 얼굴을 둘러싸 DEO ET DOMINO NATO
AVRELIANO AVG(타고난 신과 주, 아우렐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고, 뒷면에 월계관을 수여받는 모습을 새겼다.

그런 그들이 “신은 한 분뿐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보면 단박에 짐작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로마제국 전역에 세워진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 및 제단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황제가 신 곧 신성,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이라는 주장을 거부

하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황제(아우구스투스)를 섬겨야하는 로마군대에 입대를 거부하다가 참수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당대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다신교를 믿지 않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하였고 이는 결국 박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그리스도교에 박해가 있었던 시기 곧 황제숭배가 강요되던 시기에 기록된 책이 틀림없다. 네로(54-68) 때에 로마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으나 황제숭배와는 무관하게 로마시 대화재로 촉발된 것이었다.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수용되는 계시록 기록연대는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난 96년이다.

첫째, 2세기 말에 이레내우스는 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말기에 기록된 것

으로 전했고, 4세기 초반에 유세비우스는 요한이 밧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에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전하였다.

둘째,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숭배가 강요되었다. 도미티아누스 때 처음으로 황제를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으로 호칭하였다.

셋째,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가 있었다. 이 박해도 네로의 박해처럼 로마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동시대에 에베소에 카이사르 신전이 세워졌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69-121)는 <황제의 열전>에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의 친척 플라비우스 클레멘스(Flavius Clemens)를 ‘무신론’(ἀθεότης)이라는 죄명으로 처형하였고, 그의 부인 도미틸라(Domitilla)를 유배 보냈다고 적었다. 그리스도교인의 무덤에서 도미틸라라는 비문이 발견된바가 있다.

넷째, 신화에 의하면, 네로가 죽기 직전 동방 파르테이아(Partheia)에 숨었다가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고 한다. 학자들은 계시록 17장 11절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과 13장 3절에 나오는 상처를 입었다 나온 짐승에 대한 언급이 이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받아 드린다면,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교 박해자 네로가 윤회 혹은 재생(Nero Redivivus)한 셈이 된다.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카루스(Marcus Aurelius carus, AD 282-283)
전면에 무적의 태양신(왼쪽)을 마주보고 선 카루스(오른쪽)를 새겼고,
DEO ET DOMINO CARO INVIC AVG(신과 주, 카루스 무적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썼으며, 뒷면 오른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왼손에 홀을 들고 서있는 여신 행복을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FELICITAS REI PVBLICAE ·X·I·I·I·(행복, 공화국 원로원, 은 함량
10퍼센트)라고 적었다.

당대에 발행된 주화들의
문구들을 보면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어떻
게 홍보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은 국가와 시민
의 보호자(PR VINDEX),
대중의 희망(SPES
PVBLICA), 영원한 왕
(PRINC PERP), 왕중의
왕(SHAHANSHAH), 공정
한 통치자(AEQUITAS
AVG), 행복(FELICITAS)
과 자유(LIBERTAS)와 풍

요와 행운(TYCH)과 운명(FORTVNAE)과 평화(PAX, PACI)와 승리(NIKE)
를 가져다주는 자, 국가와 백성의 수호신(THEOS, DEUS), 신(神)과 주
(主)(DEO ET DOMINO) 또는 주와 신(DOMINUS ET DEUS), 만왕의 왕
(BASILEUS BASILEON), 만주의 주(KYRIOS KYRION), 평화의 왕

(BASILEUS EIRENES), 신의 아들(DIVI FILIUS), 신의 현현(THEOU EPIPHANOUS), 신성(DIVO, DIVI, DIVVS)으로 홍보하였고, 황제들을 위한 별도의 신전들을 세워 죽은 황제에게는 물론이고 심지어 살아 있는 황제에게까지 분향하도록 강제하였다. 게다가 황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안디옥코스 4세처럼 제우스 신상이나 칼리굴라처럼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한 자들이 있었다. 또 티투스처럼 예루살렘성전을 멸망시킨 자도 있었다.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그들이 생각한 신은 야훼 하나님과 같은 유일신은 아니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로마황제들은 자신들을 제우스(유피테르), 아폴론, 태양신, 아몬 등의 현현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란 뜻으로써 흔히 신들과 황제들에게 적용됐던 말이었다. 이런 준엄한 시기에 감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사상에 목숨 걸며 빼앗긴 나라의 주권과 명예를 되찾아줄 모세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였다. 또 요한과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였으며, 이 신성의 권리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돌리고 황제숭배를 거부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죽음을 무릅쓴 일이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거나 참칭된 우상들이라며 숭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었고 또 그 같은 신념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다.

승리자 그리스도09: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9)(계 1:3)

짐승(1)



이집트의 태양신 라(Ra)

라(Ra)는 매의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다. 밤에는 지하세계(오시리스)에서 머물다가 아침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바로(파라오)는 라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여겨졌으며, 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코브라는 흰 독수리와 함께 고대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다. 상단의 눈은 호루스의 눈으로 불리는 코브라(Udjat)의 눈으로써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다. 오른쪽 눈은 라(태양)를 상징하고, 왼쪽 눈은 달(토트)을 상징한다.

(Amon/Ammon/산양) 등의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666)와 거짓선지자를 짐승이라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단 9::27)이나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막 13:14)이 의미하는바가 바로 짐승으로 신성이 참칭되고 숭배가 강요된 황제를 지칭한 것이다.

고대 근동의 스팅크스, 창조신 마르두크, 태양신 샤마쉬, 수호신 라마수의 얼굴들은, 당대의 황제들의 얼굴들을 묘사한 것이다. 황제는 자기 나라의

로마시대에 황제 카이사르는 신성(神性, Divus)이자, 주(主, Dominus)요, 평화(pax)를 가져오는 자였기 때문에 권세와 명예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萬主)의 주(主)이신 그리스도(Christus)의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일시적인 맞수였다. 따라서 요한이 언급한 적그리스도는 로마황제였다. 로마황제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대적하는 모든 왕들의 대표요 상징이었다. 고대의 황제들은 대개가 신성을 주장하였는데,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인 이집트의 바로(Pharaoh),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다리오(Darius), 고레스(Cyrus), 알렉산더, 안디옥코스4세 등이 그랬었고, 이들의 신성은 매(호루스), 코브라(여신 우제트), 독수리(우제트의 자매신 네크베트), 라마수(Lamassu) 또는 스팅크스, 아몬

수호신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바로는 이집트 최고신의 현신이었을 뿐 아니라 수호신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Ra)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라가 매의 머리에 코브라에 감긴 태양을 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밤에는 오시리스로서 지하세계에 머물다가 아침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최고신으로 여겨졌다. 바로는 라의 아들이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환생이라고 여겨졌으며, 매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코브라는 흰 독수리와 함께 고대 이집트 왕권의 상징이었다. 특히 코브라(여신 우제트)의 눈은 호루스의 눈으로 불리며, 신격화된 바로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이었다. 오른쪽 눈은 라(태양)를 상징하고, 왼쪽 눈은 달(토티)을 상징하였다.



투탕카문(Tutankhamun)의 황금마스크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 머리가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이다.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짐승(2)

투탕카문(Tutankhamun)의 황금마스크를 보면, 수염과 정수리 부분에 코브라 뱀(여신 우제트)과 흰 독수리(우제트의 자매 네크베트) 머리가 이집트 왕권의 수호신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체를 세운 코브라는 우라에우스(uraeus)라 불리며 우제트의 상징이다. 이 황금마스크는 상체를 세운 코브라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보건데 야훼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뱀이 거짓 신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뱀들을 삼켰다는 것은 바로의 신권이 거짓이고, 그의 왕권이 허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

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홍해상황에서 설명한다면, 이집트의 바로이고, '그의 이름의 수'는 666으로써 바로이다. 출애굽기 14장 5-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는 자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라고 하였고, 그들이 예비한 군대가 '선발된 병거 육백 대'라고 하였다. 황제를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는 바로의 경우 매로 상징되는 호루스의 현신으로 묘사되었고, 코브라와 흰머리 독수리가 바로왕권의 수호신이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 산양으로 상징되는 아몬의 현신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의 수호신들은 성서 속의 케루빔처럼 날개를 가진 생물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수호신 스팅크스, 아시리아 및 페르시아의 수호신 라마수,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두크, 아시리아의 수호신 니스로크, 로마의 수호신 그리핀 등이 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수호신 라마수, 마르두크, 스팅크스는 현신인 황제들의 두상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박해기간(삼년 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630-562BC). 고대 궁전의 스팅크스, 황조신 마르두크, 태양신 샤마쉬, 수호신 라마수의 얼굴들은, 당대 황제들의 얼굴들을 묘사한 것이다. 황제들은 현신이자 나라의 수호신이였다. 같은 맥락에서 바로도 이집트 최고신의 현신이었을 뿐 아니라 수호신이였다.

일찍이 왕이나 황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탄압해왔다. 이 경우 성서는 환난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뜻으로 3년 6개월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이 3년 6개월에 그쳤고, 설루키드왕조의 안디옥코스4세의 극심한 탄압도 3년 6개월에 그쳤다. 예수님도 공생애기간의 환난을 3년 6개월에 마쳤고, 네로의 기독교 박해도 3년 6개월 남짓 이어졌다. 로마제국에서 박해가 시작된 때와 그 기간은 네로(Nero 64-68년),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95-96년), 트라야누스(Trajanus 112-117년), 하드리아누스(Hadrianus 117-138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77-180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177-180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Septimus Severus 202-211년), 막시미누스(Maximinus 235-238년)로 이어졌으나 전 로마제국에 걸쳐 자행된 대대적인 박해는 아니었다.

또 로마제국 차원의 황제 중심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202년에 '무적의 태양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발포하면서부터였다. 250년부터 309년까지 반세기동안 대 환난이 세 차례나 있었다. 데키우스(Decius 250-251년) 때 1년 6개월 정도,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7-259년) 때 3년 남짓,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303-305년) 아우구스투스황제(정제) 때 3년 남짓,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카이사르황제(부제)였던 갈레리우스(Galerius)가 305년에 퇴임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뒤를 이어 아우구스투스황제가 된 때로부터 309년까지 박해를 이어갔는데 그것이 기독교가 로마제국으로부터 겪었던 마지막 대 환난이었다.

그러나 그것들도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250년 1월초에 박해를 시작한 데키우스는 이듬해 6월에 공동 황제였던 아들과 함께 흑해연안 도브루자의 늪지대에서 고트족에게 살해되어 시체도 찾지 못하였고, 257년에 박해를 시작한 발레리아누스는 259년 터키 남동부 에데사에서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되었으며 사후에 시신은 박제되어 신전에 전시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도 303년부터 강력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였으나 305년에 아우구스투스황제의 직에서 퇴임하고 말았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칙령으로 그리스도교는 합법종교가 되었고, 그로부터 80여년 후에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남게 되었다.

승리자 그리스도10: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10)(계 1:3)

성서의 저자들(1)



라마수(Lamassu) 석상(넬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
(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물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회람용으로 쓰였으며,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였다. 계시록의 본문은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며(7:17; 21:4),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8:3,4)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며(15:2), 피의 보상을 받으며(19:2),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보장받는다(21장)고 적고 있다.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이해하려면 신약성서의 기록목적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신약성서는 주로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교를 막고 박해자들에게 신앙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 내부의 이단들의 도전으로부터 정통교리를

수호하고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록되었으며,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도를 교육하고 치리하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복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등의 내용이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유다서 등이 영지주의와 같은 내부의 이단이 침투된 상황에서 기록되었으며, 서신들이 교회 성장에 따른 신앙교육의 필요성에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신약성서의 기록은 기독교의 뿌리내림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서의 저자들(2)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신이자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바빌론의 수호신이다. 손에 물통과 스펀지를 쥐고 이 마르두크는 바빌론왕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Nebuchadnezzar)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에서’ 재연될 수 있고 미래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으로 보았다.

성서 저자들은 인간의 역사가 결코 인간의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신앙이 그들 역사관의 출발점이었다.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전면에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다.

둘째, 그들은 철저한 전통의 해석자들이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시내산 계약과 같은 기본 계약 전승들을 전거(典據)로 삼았고, 변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승들을 해석하였다.

바울도 사도전승 특히 안디옥 교회의 전승을 전거(典據)로 삼았으며, 그것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삶의 해석자들이었다(히 13:8). 그들의 삶은 고백적이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마찰되고 발생되고 파생되는 모든 사고 사건들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보지 않고, 재수나 운수로 해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주변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으로 보고 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며 활동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적 신앙 고백이 글로서 전달되었다.

그들의 신앙 고백적 해석은 바른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역서관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죽은 과거로 보지 않고 ‘지금 여기

을 그의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였다.

성서의 저자들(3)



다리오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피링크스(480 BC, 루브르)
사자 몸체에 새색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핑크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오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교회가 케뤼그마와 디다케를 통해서 보존하였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구전 전승을 충실하게 해석한 신학자들이었다. 내부의 이단과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로 인한 교회의 정체성과 배교의 위협에 처한 교회에게 또한 성장에 따른 제도와 질서 확립이 필요했던 교회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은 교인들의 신앙교육에 최상의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계시록의 저자도 구약성서의 전통에 전거(典據)해서 고난 받고 고통당하는 당대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구약성서를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보다 큰 뜻과 섭리 속에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였다.

셋째, 그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매우 훌륭한 목회자들이었다. 예를 들면, 이사야는 잘리어 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으며(사 6:13; 11:1,10), 에스겔은 골짜기에 썩은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겔 37:1-10).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는 제자들이 탄 배가 심한 광풍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했던 역사적 사실을 자기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의 핵심내용으로 삼았으며(막 4:35-41), 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며(출 15:1-21), 전차와 무기로 무장한 박해 세력은 홍해의 노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유황과 불과 연기 속에서(창 19장),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창 6-8장) 아비규환 속에 죽어간 역사적 사실을 자기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의 핵심내용으로 삼았다.

승리자 그리스도II: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II)(계 1:3)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II)



이집트의 신 아몬(산양) 뿔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몬-제우스. 알렉산더는 아몬 또는 아몬-제우스로 불렸다. 다니엘서 7-8장에 나오는 뿔과 계시록 13장, 17장의 뿔이 신성을 참칭하는 제왕들을 상징한다.

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적그리스도의 물리적인 박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님의 승리,’ 또는 ‘성도들의 승리’를 주제로 볼 수 있고, 거짓선지자의 이단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구

원,’ ‘그리스도님의 구원,’ 또는 ‘성도들의 구원’을 계시록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칼의 박해와 내부적으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했었는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666)의 칼의 위협과 거짓선지자의 이단 사설에 맞서야 했다.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 황제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제국의 박해와 관련된 계시록의 주제이다. 사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11:7-10), 싸움의 결국은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11:11,15). 계시록은 성도를 승리자 또는 정복자로 묘사한다(1:18; 2:8; 5:9이하; 6:2; 11:15; 12:9이하; 14:1,14; 15:2이하; 17:14; 19:16; 20:4; 22:3). 그리스도께서 사망, 용, 음부,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신다. 성도들의 대장군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는 필연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동안 왕 노릇하며,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7:14; 22:14; 11:11; 14:1; 15:2; 20:4; 22:5). 박해받던 성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주어지고, 박해하던 짐승들과 사탄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18:2; 19:20; 20:10).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2)

산양 뿔이 달린 아몬-제우스
(테라코타, 1세기경)



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창조주로 믿는 신앙전통에 입각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신앙전통은 구약성서에 그 뿌리를 둔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탄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 결말이 예견된 싸움이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보면, 사탄과 그 무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예쁜 물고기들을 괴롭히는 어항 속의 못된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계시록의 저자는 이 신앙전통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계시록에는 이방신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하나님 이외의 어떠한 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인을 미혹 또는 헐박하여 이방신에게 절하게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이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가르침이다(계 16:13).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이다(계 19:20; 20:10). 둘째로 이세벨이다(계 2:20).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방인 왕후였으며, 팔레스타인의 농신(農神) 바알의 여사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셋째로 유대인들이다(계 2:9). 계시록의 저자는 유대인의 집회를 ‘사탄의 회’라 악평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힘과 율법주의 강요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이다. 넷째로 바알의 선지자 발람이다(계 2:14).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여년 만에 모압평지에 도달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 발람이란 자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올무를 놓아 바알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다섯째로 니콜라당이다(계 2:15). 니콜라당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리스도인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이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시록을 읽는 자의 복(3)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주화(c. 215-164 BC)
 전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얼굴상을 새겼고, 뒷면에 보좌에 앉은
 제우스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Nike)를 왼손에 삼지창을 쥔 모습을
 새겼으며, 헬라어로 오른쪽에 ΘΕΟΥ ΕΠΙΦΑΝΟΥΣ
 ΝΙΚΗΦΟΡΟΥ(신의 현현, 승리를 지닌자, 왼쪽에
 ΒΑΣΙΛΕΩΣ ΑΝΤΙΟΧΟΥ(왕 안티오코스)라고 새겼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님은 지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성도들을 능히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할 위대한 대장군이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자가 될 것이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 인도될 것이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이단자들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더러운 죽임을 당하였고, 더러운 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이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승자들이 되었다. 우리들도 챔피언 반지를 받아 끼고, 챔피언 트로피에 입을 맞출 그날까지 우리의 신실함과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네 개의 환상 또는 일곱 개의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 여기서 “지키는 자”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끈,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자이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이다. 그에게 주어질 권세와 명예와 영광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된 것이다.

승리자 그리스도2: 인자 같은 이(1)(계 1:4-8)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계시록은 일차적으로 터키의 에게해에 인접한 소아시아도의 일곱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내진 회람서신이다. 이들 일곱 도시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이다. 이들 일곱 도시들은 인근에 다른 많은 도시들

에 인접해 있었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는 인근에 골로새와 오늘날까지도 온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히에라폴리스가 위치하고 있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낭독된 후에 그 필사본들이 인근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에도 보내졌다. 이렇게 볼 때 계시록은 최초의 일곱 교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에도 필사본들이 보내졌고, 또 다른 필사본들이 더 멀리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계시록이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에 보내져서 읽히게 되었다.

계시록은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거나 당하는 심지어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다고 계시록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맥락에서 2천 년 전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형이자 모델이다.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인 숫자가 ‘7’ 또는 ‘일곱’이다. 2-3장에 언급된 일곱 가지 축복들을 비롯해서 일곱 교회(1:4,11), 일곱 영(1:4), 일곱 금 등잔대(1:12), 일곱 별(1:16), 일곱 인(5:1), 일곱 뿔과 일곱 눈(5:6), 일곱 나팔(8:2), 일곱 우뢰(10:3), 일곱 표적(12:1,3; 13:13-14; 15:1; 16:14; 19:20), 일곱 왕관(12:3), 일곱 재앙(15:6), 일곱 금 대접(15:7), 일곱 언덕(17:9), 일곱 왕

(17:10) 등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왜 하필 일곱인가? 일곱은 완전수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상징이자 완전성의 상징인 ‘3’과 지상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가 합해진 숫자가 칠이다. 따라서 ‘7’은 ‘완전’ 또는 ‘모든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과 구원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777’로 묘사하는데, 이는 삼성(三聖) 곧 세 번의 거룩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곱 교회들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거룩과 완전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복 있는 공동체들이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비잔틴시대의 주화(요한 1세, AD 969-976)
전면에 복음서를 펴고 계신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Ι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IHSVS XPISTVS BASILEVS BASILE)이라고 새겼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1장 4-8절은 무려 1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4절)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영원성이 강조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과거의 인물에 불과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4절)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계시록 3장 1절은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가진 일곱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전지’를 상징한다. ‘전지’란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고 있다.

셋째, 예수님은 믿을만한 증인이시다(5절).

넷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써 죽은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5절).

다섯째, 예수님은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다(5절).

여섯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일곱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여덟째,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5절)이시다.

아홉째,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다.

열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6절)이시다.

열한째,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 받으실 분이시다(6절).

열두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 가신 그대로 구름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7절). 그 때에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는 말씀을 재림이 문자적으로 당대에 이뤄질 것을 암시한 말씀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성도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는 구절은 재림 때에 악인들이 부활 후에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열셋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8절).

열넷째,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8절).

열다섯째,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연기와 유향의 불 속에서 천벌을 받게 하실 분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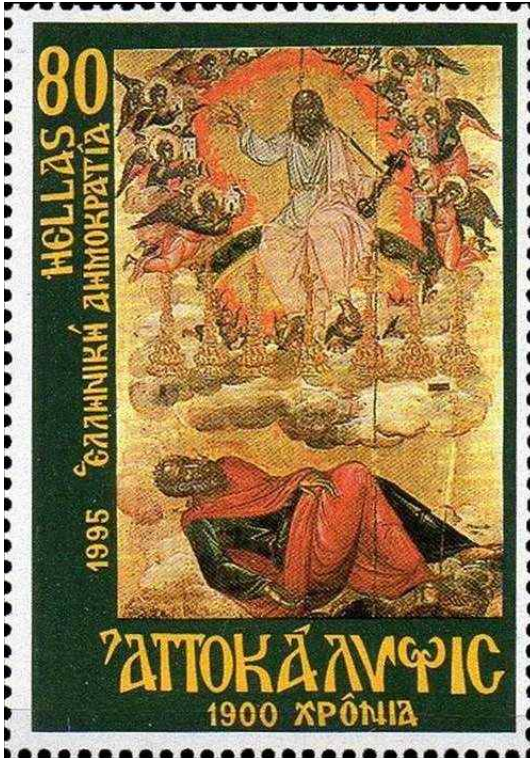
이 같은 설명 곧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대장군 예수 그리스도님은 능히 지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성도들을 능히 그들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강조한 것이다.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물

리적인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님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 거짓선지자의 이단의 도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님의 구원,’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칼의 박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거짓선지자의 도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탄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 결말이 예견된 싸움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의 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이길 운명이다. 이 필연을 믿었기에 선배 신앙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이단자들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더러운 죽임을 당하였고, 더러운 옥에 갇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이지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후의 승자들이 되었다. 우리도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쓰는 그날까지 신실함과 믿음의 끈을 놓지 말자. 7절은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말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승리자 그리스도3: 인자 같은 이(2)(계 1:9-2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 그리스도(1995)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일곱 금 등잔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는 당대에 그리스도교 박해가 있었고, 요한도 그로인해 밧모섬에 유배당했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4,8절의 ‘장차 다시 오실 분’ 이 밧모섬에 갇힌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밧모섬은 중죄인들이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던 곳이었는데, 요한은 이미 백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주로 기도동굴에서 소일했다고 전한다. 주후 92년 경부터 소아시아에 박해가 있었는데, 요한은 주후 95년부터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망할 때까지 대략 1년 6개월 정도 밧모섬에 머물렀고, 석방되어 에베소에 돌아와

서 같은 해인 주후 96년 105세 때 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소천 하셨다고 전한다. 요한이 본 계시를 받아 쓴 인물은 ‘브로고로’ (Procorus, 행 6:5)로 알려져 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는 백세가 넘는 노구의 요한이 유배된 밧모섬 기도동굴에서 주일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정황을 말한 것이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의 내용은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요한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일곱 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였다.(12-13절). 우리말 성경에서 “일곱 금 촛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 (Menorah)라 일컫는 일곱 금 등잔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 올리브기름을 담은 등잔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혔기 때문에 일곱 개의 금 등잔을 올려놓은 ‘메노라’ 곧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을 상징하였고,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는 일곱 교회들을 상징하였다.

“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20절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이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를 묘사하였다.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는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첫째는 일곱 줄기 금 등잔대가 완전한 빛의 상징이란 점이다. 원래 이 일곱 줄기 금 등잔대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상징물이다. 일곱 줄기 금 등잔대가 일곱 개라면, 총 49개의 금 등잔이 빛을 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는 50를 말하는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는 숫자이다. 유대교의 ‘하누

카’ (Hanukkah) 등잔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최초의 빛, 영원한 빛, 계시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 추가로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일곱 줄기 금 등잔대 일곱 개가 교회들의 상징이란 점이다. 등잔대의 특징은 빛에 있고,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다. 이런 고귀한 사명(mission)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셋째는 이들 등잔대들의 빛이 강한 폭풍을 맞아 꺼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요한이 본 것은 능력의 구세주였다. 그가 환상을 통해서 본 ‘인자 같은 이’는 ‘장차 오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자, 폭풍과 분노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자,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자였다. 그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백설 같고, 눈은 불꽃같고, 발은 화덕에 달궈진 놋쇠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는 날카로운 로마 검이 있고,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고,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교회들 사이에 서서, 세차게 흔들리며 꺼질 것 같은 교회들의 불꽃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긴장한 모습으로 금방이라도 무슨 행동을 취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다(13절). 둘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모습은 엘리야나 세례요한과 같은 예언자의 모습이다(14-15절). 셋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개의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닐며,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은 왕의 모습이다(16절). 이들 모습들은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가 완벽한 그리스도이시란 점을 밝혀준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데나리온(주후 81-84년)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DOMINVS ET DEVS)으로 부르게 하였고, 죽은 자신의 아들까지 신격화하였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얼굴로 둘러싸인 IMP CAES DOMITIANVS AVG PM(황제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이라고 썼고, 뒷면에 자신의 죽은 아들로 하늘(“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계시록 1:16 참고)과 땅(지구에 불과 앞을)을 다스리는 자로 새겼다. 그리고 그 둘레에 DIVVS CAESAR IMP DOMITIAN IF(신성 카이사르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라고 새겼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완벽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또는 최후에 값진 승리를 안겨줄 승리자이시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자요,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이시다(17-18절).

요한은 이 분이 박해와 탄압이란 강풍을 만난 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의 배후에 서서 지키고 계신 것을 보았다. 우리도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배후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달리던 길을 멈춰 서서 숨을 고른 후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달픈 때일수록, 강풍이 몰아칠 때일수록 더욱 그분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오른 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등잔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17-20절).

승리자 그리스도14: 인자 같은 이(3)(계 1:12-16)

“인자 같은 이”(Like a Son of Man)

계시록은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장까지 일곱 교회들에 대한 환상, 4-16장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해를 입은 여인과 용, 일곱 대접에 관한 환상, 17장부터 21장 8절까지의 바벨론의 멸망과 천년 왕국에 관한 환상, 그리고 나머지 21장 8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하늘의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에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다. 이 특별한 용어가 쓰인 곳은 구약성서의 경우 시편과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이고, 신약성서의 경우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7:56) 그리고 계시록이다.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100회 이상 ‘인자’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시편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호칭하는 말로써(8:4; 80:17), 예녹1서에서는 초인간적 존재로 선택받은 자를 말할 때, 랍비 아키바(Akiba/132-135)는 다윗왕국의 메시아를 말할 때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동일한 표현을 써서 ‘인자 같은 이’ (like a son of man)란 말을 두 번(7:13, 10:16) 사용하고 있다.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의 ‘인자 같은 이’하고 연관이 있는 표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묵시록은 모두 종말론적 왕국의 통치자를 ‘인자’로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신약성서에서의 ‘인자’란 표현이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이란 것이고, 특히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인자’란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3자가 예수님을 일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랍비,’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오실 그이’ 또는 ‘선지자’와 같은 호칭들을 사용하였다.

성서에서의 인자호칭은 세 가지 범주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다(막 2:10, 27, 마 11:19, 8:20, 12:32, 16:13, 13:37, 눅 6:22, 19:10, 22:48).

둘째는 ‘오실 그이’ 곧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막 8:38, 14:26, 62, 마 24:44, 27:37, 10:23, 13:41, 16:28, 19:28, 24:30, 39, 25:31, 눅 12:8, 17:22, 30, 18:8, 21:36). 여기서 ‘오실 그이’는 유대인들의 희망, 하티크바(Ha-Tikvah)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다.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이’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모쉬아크(Moshiach)요, 그리스도인들에

게는 이미 한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 메시아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자’란 바로 이 재림주 메시아를 말한다.

셋째는 마가복음서에 쓰인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수난자 인자’이다(막 8:31, 9:9, 12, 31, 10:33, 45, 14:21, 41, 마 12:40). 수난자 인자는 마가 자료에만 나타나 있는 마가 특유의 메시아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인자’가 민중의 슬픔과 수고와 고통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안겨줄 메시아이기 때문에 ‘수난자 인자’란 개념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인자가 굴욕과 수난과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권능과 영광의 메시아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심판주 메시아 인자사상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재림주 메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없는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은 수난자 인자 메시아 개념인 셈이다.

‘수난자 인자’

‘수난자 인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영혼구원이다. 이 영혼구원은 현재 구원으로써 미래구원을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 이 땅의 삶 속에서 약속받고, 인침(직인)받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의 인자’ 사상만 있는데, 이것은 육체구원, 이스라엘 민족구원, 이스라엘 나라 회복 사상으로써 아직 이뤄진 일이 없는 미래구원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에서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인간은 크든 작든 영웅을 고대한다. 가정에서는 능력 있는 가장을 원하고, 교회는 능력 있는 목회자를, 회사는 능력 있는 사장을, 대학은 능력 있는 총장을 원한다.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살게 해줄 탁월한 지도자를 고대한다. 극도로 가난하거나, 억압과 고통 속에 있거나 할 때 더욱 간절하게 영웅을 고대한다. 그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든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이다. 문선명, 박태선, 조희성, 최제우, 강증산과 같은 이들을 비롯해서 최근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그들이다. 문제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말이 먹힌다는데 있다. 어쩌면 사람들의 절박감이 그만큼 큰지도 모른다. 또 다른 문제는 절박감이 큰 사람들일수록 진리를 거부한다는데 있다. 절박한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지난 이천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단한 삶과 발 코크바와 샤베타이 제비를 포함해서 30여명이 넘는 거짓 메시아들에 속아 살아온 세월이었다. 발 코크바는 주후 132-135년에 로마제국에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원이었고, 샤베타이 제비는 1665년 5월 31일에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선포한 가짜

였다. 발 코크바는 칼을 손에 쥔 혁명가였고, 샤베타이는 성경을 손 쥔 거짓 예언자였다.

발 코크바는 ‘별의 아들’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란 뜻으로 교회가 설립된 지 100여년만인 주후 132-13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유대전쟁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이 존경했던 랍비 아퀴바로부터 메시아로 추앙받았던 혁명가였다. 이 사람의 본명은 ‘코시바의 아들 시몬’ (Simon ben Kosiba)이었다.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그를 ‘별의 아들’ (Bar Kochba)이라 불렀지만, 그러나 그에게 실망한 사람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탈무드의 편집자 같은 사람들은 그를 ‘실망의 아들’ (Bar Kozeba) 혹은 ‘거짓말의 아들’ 이라고 불렀다.

혁명의 허구성이 들어난 사례들은 인류 역사에 얼마든지 많다. 대부분의 혁명들이 성공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민중에게 큰 아픔과 기나긴 시련을 안겨준 채로 끝장난 경우가 많다. ‘시몬 벤 코시바’가 처음에는 ‘별의 아들’이란 이름을 듣다가 ‘실망의 아들’로 추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유대인들은 ‘영광의 인자’를 고대했는데, 이는 혁명가 모쉬아크를 말한다. 역사에서 혁명가들이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태봉의 왕 궁예는 처음에는 백성을 구제하는 미륵처럼 행세하다가 나중에는 포악한 군주로 돌변했다.

‘영광의 인자’

근대혁명들의 경우,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청나라 사람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1850-1864), 20세기 초 레닌의 러시아혁명(1917), 20세기 후반 이디아민의 우간다 혁명, 후세인의 이라크혁명, 카스트로의 쿠바혁명, 홍위병 앞세운 마오쩌둥의 중국혁명, 폴 포트(크메르루즈) 캄보디아 혁명 등 민중에게 시련을 안기지 않았던 사례가 드물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의 경우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낳았던 드문 사례이다.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는 터키 서머나 출생의 유대인 거짓 메시아였다. 그는 성장기에 조울증으로 의심될만한 이상한 성향들을 보였고, 모세의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긴다든지, 유대인들이 금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린다든지 하는 식의 일련의 불경스런 행동들로 인해서 1656년에 회당과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했던 사람이다. 이스탄불에 가서는 토라가 폐지되었노라고 선포하였고, 카이로에 가서는 1648년 폴란드에서 자행된 유대인학살 때 피신하여 매춘부로 살고 있던 여인과 결혼하여 살기도 했다. 1662년에는 예루살렘 인근 가자(Gaza)에서 젊고 박식하고 축귀(逐鬼)에 능숙한 나단(Nathan)이란 랍비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샤베

타이는 자신의 조울증 현상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증거란 말을 듣게 되고, 드디어 1665년 5월 31일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이런 주장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추방으로 고립무원에서 고군분투하던 온 세계의 유대인들을 일시에 흥분시켰고, 일찍이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팸플릿과 같은 전도용지들이 영어, 화란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졌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는 그를 치켜세우는 대중행렬들이 있었으며, 오토만 제국에서는 예언자들이 거리를 오가면서 샤베타이가 옥좌에 앉은 것을 보았다는 환상을 퍼뜨렸다. 그러나 샤베타이는 1666년 1월 이스탄불에서 반역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이 쓴 편지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샤베타이 제비.”라고 서명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가 술탄으로부터 이슬람에 개종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했을 때에 샤베타이는 이슬람교를 선택했고, 그는 즉각 석방되었으며, 그에게는 황실연금이 지급되었고, 명백하게 충성스런 무슬림으로서 살다가 1676년 9월 17일 사망하였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것을 발견한 데 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교 탄압의 앞잡이였지만, 진정한 영웅성이 십자가에 있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고, 그가 전파한 복음으로 인해서 거대한 로마제국이, 그토록 그리스도교를 탄압했지만, 불과 300여년 만에 그리스도교에 의해 접수되고 말았다.

요한이 본 인자의 환상은 거대한 로마제국의 바벨탑을 붕괴시키고 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스도였다. 요한은 그분이 박해와 탄압이란 강풍을 만난 교회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자란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령의 눈을 떠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 배후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 대장군이신 것을 보아야 한다. 그분의 십자가의 깃발아래 모이는 군사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승리자 그리스도15: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1)(계 1:7-20)

승리자, J 장군(1)



비잔틴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그림: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망이 사라진 4쿼터에 접어들자 비로소 정의의 사자가 나타나 불의의 사자를 물리치고, 온갖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정의를 쫓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크게 보상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라마 형태로 전달한 일종의 설교이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은 미래의 희망을 전달한 예언서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사는 모든 신앙인들을 위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이다.

김수경의 저술 가운데, <반칙과의 전쟁>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수천 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 두 나라의 전쟁에 관해서 적고 있는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정의의 나라와 불의의 나라의 싸움인데 너무나 오래된 전쟁인지라, 양쪽의 군사들조차도 전쟁 중이라는 인식이 아주 희미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정의의 나라 군사들이 불의의 나라 군사들의 생활방식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병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이 전쟁은 이미 옛날에 정의의 나라의 패배로 끝나버린 싸움이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있었고, 또 정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

계시록은 공포영화나 스타트랙과 같은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불안 공포 분노 흥분 기쁨 등이 반복되고, 선과 악 또는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박진감이 넘치는 소설이나 희곡처럼 독특한 문학형식을 갖춘 예언문서이다. 1-3쿼터 싸움에서는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의 세력의 탄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악의 화신인 불의의 사자를 쓰러뜨릴 정의의 사자가 더디 나타나 패전의 기운이 감돌고, 이길 수 있는 모든 희

었다. 어이없게도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우둔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군인 중의 한 사람인 나이 많은 대령이 정의의 나라 군사들을 소집해 놓고 말했다.

어젯밤 비밀문서 보관소에서 이 오래된 전쟁 상황일지를 찾아냈다. 이 전쟁일지에 의하면, 전쟁은 이미 2천 년 전에 끝났다. 승리자는 바로 우리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 전쟁은 우리가 전설로 여겨왔던 그 낙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의로우신 왕께서는 수천 년 동안 무력하여 자꾸 적군에게 패배하고 굴복하는 우리 군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강력한 장수들과 참모들을 보내셨다.

승리자, J 장군(2)

우리 왕은 저쪽나라 왕과는 비교하기도 억울할 만큼 강력한 분이시다. 적군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깨비와 다름없다. 저쪽나라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반역하기 위해 거짓에 기초하여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의로운 왕이 처음 이쪽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에 대적하여 공의의 왕의 권세에 도전하고 나온 반역자가 있었다. 왕은 그를 벌하고 추방했다. 반역자는 양심을 품고, 왕의 백성을 이간하여 이쪽나라를 멸망시킬 계략을 꾸몄다. 그는 공의의 왕이 이쪽나라를 건국하면서 세운 모든 정의의 원칙들에 철저히 반대되는 불의한 반칙들로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두 나라 사이의 전투는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장기전이 되었고,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정의의 왕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불의의 왕의 꾀에 속아 넘어가 포로로 잡혀 온갖 고통과 억압 속에서 죽어 갔다. 이에 정의의 왕은 이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기로 작정하시고, J장군을 보내셨다. J장군은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내려와 3년 6개월 동안 정의와 희망을 버린 군사들을 모아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불의의 나라가 위기를 느꼈는지 무섭게 반격해왔다. 전투는 치열해졌다. 정의의 나라가 밀리면서 전세가 불리해졌다. 그러자 군사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J장군은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J장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하들은 그가 전사한 줄로 알았다. 군사들은 몹시 절망했다. 그런데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J장군이 살아서 돌아오셨다. 게다가 그의 손엔 반역자의 목이 들려져 있었다. 그는 발꿈치만 살짝 다쳤을 뿐이다. J장군은 반역자와 그의 군사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이겼던 것이다. 그 후 J장군은 지레 겁먹고 도망쳤던 부하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당부했다. “제군들은 들어라. 본인이 적국의 왕을 죽였으므로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났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이 살집을 마련

하기 위하여 잠시 후방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돌아와 승전가를 부르며 함께 개선할 때까지 전방을 잘 지키고 있길 바란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 적국의 군사들에게 엄한 벌을 주고, 너희들에게는 포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이름으로 군사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 한동안은 이쪽 병영에 대단한 개혁의 바람이 일었고, 정의가 되살아나고 희망이 솟구쳤다. 그런데 이미 2천 년 전부터 다시 온다던 J장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다시 돌아왔다는 헛소문만 풍성했다. 그런 가운데 군사들은 예전처럼 정의와 희망을 잃게 되었고, 그나마 희망을 품고 정의롭게 살려고 인간힘을 쓰는 소수의 병사들에게는 가혹한 억압이 가해졌고, 부정과 부패와 허세와 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정의로운 원칙을 포기하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과 싸우느라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란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J장군이 수만의 근위병을 거느리고 돌아오셨다. J장군은 엄격한 목소리로 순식간에 종이병정처럼 구겨져 엎드러진 저쪽 나라의 패잔군들을 포박하여 약속된 장소에 가두라고 명령하셨다.

승리자, J 장군(3)

그리고 나서 정의의 왕과 J장군에게 온전히 헌신하여 전선을 지킨 동지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은 온갖 압박과 설움과 고통을 용케도 견디어냈던 사람들이다. J장군은 그들에게 말했다. “동지들,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 동안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을 내가 보았고 또 알고 있다. 내가 다 갚아 주겠다. 너희는 끝까지 나를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싸웠으니, 마땅한 상을 내리겠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나서 승리자들은 J장군과 함께 개선하여 높은 보좌에 앉으신 정의의 왕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환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김수경의 <반칙과의 전쟁>의 이야기처럼, 요한 계시록도 온갖 고난과 박해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상을 내리시고, 박해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먼저 온갖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J장군의 늠름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아무나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

워너 셀만(Warner Sallman)의 1950년도 작품으로 크리벨과 베이츠(Kriebel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Christ Our Pilot, Warner Sallman, 1950). 워너 셀만이 1950년에 그린 작품으로서 크리벨과 베이츠(Kriebel & Bates)가 저작권을 갖고 보급하고 있는 성화이다. 필자는 1960년대 초중고 시절에 이 성화를 보며 자랐고, 예수님이 내 삶의 키잡이이심을 믿었다.

& Bates)가 저작권을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 (Christ Our Pilot)란 제목의 성화가 있다. 풍랑이 일고 먹구름이 낀 바다에서 배의 키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고, 젊은이의 배후에 계신 예수님께서 왼손을 청년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전방을 가리키는 그림이다. 그런데 젊은 항해사의 배후에 계신 예수님은 보통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실제 상황에서 젊은 항해사만 볼 수 있고 예수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은 화가인 셀만이 믿음의 눈으로 젊은 항해사 배후에 계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속의 젊은 항해사도 믿음의

눈으로 자기 뒤에 서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지 그의 표정에는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해 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이 그림의 청년처럼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다.

승리자 그리스도16: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2)(계 2:1-7)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1)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은 에게해 동편 곧 소아시아의 서해 지역에 소재했던 교회들이다. 이 지역에는 말발굽 형태로 일곱 교회가 대략 80KM 정도씩 떨어져 위치하고 있었다.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는 8시, 서머나 교회는 10시, 버가모

교회는 12시 방향에, 두아디라 교회는 1시, 사테 교회는 2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3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5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교회들을 배에 비유한다면, 로마제국이란 험한 바다에서 강력한 박해라는 폭풍을 만나 좌초위기에 몰려 있었다.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로 지었다.

마가복음 4장 35-41절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사가 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셨다. 그 사이에 폭풍은 몰아 닥쳤고 배는 위태로웠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고 두려워했다. 그 때에 제자들은 능력의 주님이 배에 계신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깨웠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상황이 위급함을 아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서신 후 명령하셨다. “잠잠 하라. 고요 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이 모습이 계시록 1장에 소개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다. 박해와 시련이라는 엄청난 폭풍과 전복될 위급한 상황에서 요한은 믿음의 눈을 뜨고 폭풍 배후에 버티고 서신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를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본 이 환상에 근거해서 요한은 아무리 거대한 박해와 시련의 물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몰아 닥쳐와도 이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신 한 든든하며, 그분께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한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여러 형태의 배 곧 가정이란 배, 교회라는 배, 회사라는 배, 국가라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고, 자주 폭풍을 만난다. 이 폭풍이 크건 작건 간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쩔 것인가? 몰아치는 폭풍과 파도만 바라보고 놀라 자빠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뜨고, 이 풍랑을 향해서 “잠잠 하라. 고요 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춘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탄 배에 함께 계시다는 점이다. 우리가 폭풍을 만난 바로 그곳에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점이다. 폭풍을 만난 우리의 가정에도, 폭풍을 만난 우리의 교회에도, 회사에도, 국가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2)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
1883년에 출판된 어린이 성경에 실린 삽화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인자는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써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이 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분은 힘 있고 전능한 심판주요, 재림주이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불꽃같은 눈과 단련된 발과 예리한 말씀의 검과 해처럼 빛나는 힘 있는 모습을 하신 구원의 주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손안에 넣으시고, 교회를 왕래 하시며, 교회를 지키는 구세주이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의 폭풍을 능히 잔잔케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주전 15세기)는 약속의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 히브리인들의 광야이야기이다.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사막)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했던 가나안땅을 끝내 차지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야훼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야훼의 자비를 입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예표였다.

오디세이아(주전 8세기)는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고향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 오디세우스의 항해이야기이다. 오디세우스는 숫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전쟁터에서 10년과 고향으로 향하던 바다에서 10년을 보낸다. 이 영웅이 20년 만에 고향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신 아테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멘토르'로 변신하여 오디세우스에게 나타나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격려하였다. 아테나 역시 그리스로마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예표였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시대에 신화를 만들고 신봉했던 그리스로마인들은 복음을 접한 후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아온 사람들이다.

아이네이스(주전 1세기)는 트로이패망 때 아이네아스가 신들의 계시를 따라 소수의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새로운 트로이건설을 위해서 미지의 땅을 찾아 험난한 길을 떠난 트로이인들의 항해이야기 또는 로마건국이야기이다. 그들은 조국 트로이가 멸망한 이후 7년이란 시간을 험난한 바다와 싸워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한 수호신들의 자비를 입어 새 땅에 정착하여 로마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스토아철학의 영향으로 자신의 몫으로 태인 숙명의 십자가를 받아드리는 동시에 그 숙명을 수호신들에 의지하여 잘 감당하려고 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풍요의 여신 아테미 신상들, 머리엔 성곽을 이고 있고, 가슴엔 24개의 젖가슴 혹은 24개의 항소 고향을 매달고 있다.

그런 그들을 격려한 글이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성서적으로 보면, 모세오경, 욥기, 다니엘서, 사복음서가 고난을 겪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격려와 응원과 권면의 글들이다. 요한계시록은 앞서 열거한 글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험난한 천로역정을 격려하

고 응원하는 권면의 글이다. 천성을 향한 항해는, 광야 길과 바닷길이 험하고 거친 길이었듯이,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마귀는, 마치 칼립소가 오디세우스에게 속삭였듯이, 마치 변 사또가 성춘향이에게 은밀히

제안했듯이, 안락한 삶을 유혹한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들이 신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천성에 입성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인내의 끈을 놓지 말자는 권면이다.

2-3장에서 일곱 교회들에 주신 말씀들은 공통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간략한 인자의 특징이 소개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각 교회는 행위에 따라서 칭찬과 권면과 책망을 받는다는 점이며, 셋째는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강한 충고를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넷째는 각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시록 2장 1-7절은 소아시아 최대 도시 에베소에 소재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사여탈권을 쥐 분으로서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사이에 혼인(사랑)서약으로 관계가 맺어진 데 있다. 만일 사랑이 식는다면, 이 혼인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선민사이에 맺은 혼인(사랑)서약은 남녀사이의 애정문제하고는 크게 다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이 있고 없고는 애정문제가 아니라, 생사문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태기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2:5)는 권면을 강한 어조로 주고 있고,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2:7)고 약속하셨다.

승리자 그리스도17: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3)(계 2:8-17)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행위의 수고가 있었고, 고난을 잘 참고 잘 견뎠으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여 용납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였다. 또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첫 사랑을 버린 일은 생사가 걸린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일이었다. 음식준비에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보다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동생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던 것에서 보듯이(눅 10:38-42), 행위의 수고와 인내도 소중하고 칭찬받을만하지만, 첫 사랑을 간직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모든 일에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본다 해도, 피차 사랑이 식어버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무로 사는 부부이지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도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한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책망이 없고, 칭찬과 격려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2:10)고 당부하셨다. 여기서 ‘충성’은 ‘신실’을 말하고, 신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행한 서약을 지키라’ 또는 ‘목숨 바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11)고 하셨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주님의 특징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2:8)으로 서머나 교회에 소개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최소 한 세기 전부터(64 BC) 거주하고 있었다. 도시마다 유대교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헬라인들의 인기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의 아류로 취급되는 신흥종교였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이유는, 첫째,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슈아’가 ‘오실 자’ 메시아였다는 주장 때문이었고;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교 회당에 출입했던 다수의 헬라인들을 그리스도교에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셋째,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토라와 규례를 폄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39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 맞았고, 투석형도 받았으며, 자주 옥에 갇히곤 했다.

버가모 교회



유명했던 고대 버가모의 치유신전(Asclepeion)으로 가는 길
고대 그리스에는 치유신전이 300곳이 넘게 있었다고 한다. 트라케
(Trakke), 고린도 인근의 에피다우로스(Epidaurus), 코스 섬, 아테네
및 버가모가 가장 유명하였다. 이들 치유신전에 하루만 머물러도 온갖
병이 낫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원근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다.
치유신전들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오늘날의 휴양
리조트와 같은 곳으로서 휴식, 명상, 운동, 목욕, 독서, 산책,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
고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주님의 입의 말씀으
로 시작된다. 버가모 교회
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콜
라당의 가르침을 좇는 이
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
셔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
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출
한 것이다.

버가모는 사탄이 살고
있고, 그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다.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
한 곳이라고도 했다. 강진 후에 더 강한 여진을 맞듯이, 그야말로 위기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었다. 이토록 위험하고 살벌한 곳에서조차 그리스도
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
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무를
놓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그들을 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

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감춰둔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흰 돌은 경주에서의 승리자와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 받은 자들에게 주던 돌로 알려져 있다. 고대의 법정에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 유무죄를 결정했다고 전한다. 흰 돌은 무죄를 의미하였고, 검정 돌은 유죄를 의미하였다. 또 노예가 해방될 때 그에게 흰 돌을 주었는데, 때때로 새로운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졌다고 한다. 또 흰 돌은 싸움에서 15번 이상 승리한 투사에게도 주어졌다. 이렇듯 흰 돌은 자유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흰 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된 것을 상징한다.

또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예봇 위에 패용하는 판결홍패 주머니에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를 넣고 다녔는데, 이를 ‘우림’과 ‘둠뫼’이라고 불렀다. ‘우림’(Urim)은 빛(lights)을 뜻하는 흰 돌이고, ‘둠뫼’(Thummim)은 완전함(Perfections)을 뜻하는 검은 돌이었다(출 28장). 대제사장은 판결할 때 홍패 주머니에서 돌을 한 개만 꺼냈다. 그 돌이 흰 돌이면 긍정(yes)이고, 검은 돌이면 부정(No)이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판결홍패를 가지고 물었을 때, ‘우림’ 곧 빛이 나오면 ‘둠뫼’ 곧 완전함을 의미했다. 이것은 ‘우림’이 ‘둠뫼’이요, 빛이 완전함이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돌을 받는 자는 구원의 완전함에 이른 자란 뜻이다.

니콜라당()



우림(Urim)과 둠뫼(Thummim)

우림(Urim)은 빛을 뜻하는 흰 돌이고, 둠뫼(Thummim)은 완전함을 뜻하는 검은 돌이었다(출 28장).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뉘는 물로 때, 패용한 판결홍패 주머니에서 꺼낸 한 개의 돌이 우림 곧 빛이면, 둠뫼 곧 완전함이었다. 이것은 우림이 둠뫼 곧 빛이 완전함이었다는 의미였다.

고 있다. 첫째는 교권주의를 의미한다는 설이다. 니콜라당에서 ‘니콜라오스’의 어원은 ‘니코’(niko)와 ‘라오스’(laos)의 합성어이다. ‘니코’(niko) 즉 ‘우세하다’는 뜻이고, ‘라오스’(laos)는 ‘백성’이란 뜻이다. ‘백성

니콜라당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두 번 사용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당의 행위를 배척하였으나 버가모 교회에는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니콜라당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되

에 우세하다.’ 즉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뜻이 니콜라당의 의미란 것이다. 그러므로 니콜라당은 교권주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니콜라당이 영지주의를 의미한다는 설이다. 주후 180년경에 프랑스 리옹의 이레내우스(Irenaeus, <Against Heresies> 1.26.3; 3.10.6)와 주후 20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Miscellanies> 3.4.25f)는 안디옥의 니콜라오스(Nicolas of Antioch)가 니콜라당으로 알려진 영지주의 이단의 창시자로 보았다. 이레내우스의 제자로서 로마의 감독이 된 히폴리투스(Hippolytus, <Refutation of All Heresies> 7.24)도 니콜라오스가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삶과 음식 모두에 무관심할 것을 습관적으로 가르쳤다.”고 하였다. 또 클레멘트는 니콜라오스가 금욕주의자가 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이 후에 그의 가르침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변질시켜 니콜라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은 육체와 율법을 악하게 보고, 악한 육신을 다스리기 위한 금욕주의 또는 육신을 함부로 다루는 방탕주의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행하던 해 받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할 뿐 아니라 음행을 부추겼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좇을 뿐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좇는 무리도 있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맞는 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다. 이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여 바알의 신전이 있는 브올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하였다. 싯딤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알고 지내면서 바알브올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염병을 퍼트려 2만 4천명이 죽는 엄한 벌을 내리셨다.

승리자 그리스도18: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4)(계 2:18-29)

니골라당(2)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정착할 무렵의 바알 신상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알렙(황소)과 라메드(지팡이)로
이뤄졌고, '엘'은 바알의 아버지 신 곧 'father-bull'이다. 시내산
에서 '야훼'와 인양관계를 맺은 히브리인 유목민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일치 또는
동등하게 '엘-야훼'로 숭배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페르시아의
쿠루스(cyrus, 고레스) 황제 때 수메르의 신 '벨'과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합쳐져 '벨-마르둑'으로 숭배된 것과 같고,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이집트의 신 '아몬(아몬)'과 헬라의 신 '제우스'가
합쳐져 '아몬(아몬)-제우스'로 숭배된 것과 동일하다.

염병이 번진 싯딤은 사
막문화권이 끝나고 농경
문화권이 시작되는 관문
과 같은 곳이다. 예로부터
항구도시에는 홍등가가
발달했다. 마찬가지로 광
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농
경문화권의 첫 관문인 이
곳 싯딤에서 바알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바알은 농
사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
가 잘되기 위해서는 비로
상징되는 하늘의 남신과
밭으로 상징되는 땅의 여
신 사이의 만남으로 이루
어진다고 보았고, 실제로

바알종교의식은 바알신전의 남녀 사제들과 예배자들 사이에서 만나 이루어
지는 성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예배행위는 광야에서 오랜 텐트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
혹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는 모습도 없
고, 모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었다.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여사제도 없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모두가 남성들뿐이었다.
이런 메마른 종교의식에 식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숭배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끝없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바알숭배였다. 아무튼 이스라엘사람들의 일부가 싯딤에서 성창
과의 행위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결과 성적으로 깨끗했던 그들 대부분이
성병에 감염되어 죽었거나 사막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발람의 유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계
시록은 말하고 있다.

바알종교의 특징은 향락문화에 있다. 돈과 성을 섬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바알종교이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고 있다. money와 sex는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니콜라당의 특징은 방탕문화에 있다.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몸을 함부로 내맡기는 현대문화는 현대판 니콜라당이다. money신(神), sex신(神)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향락문화를 섬기는 발람의 교훈을 좇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무법과 방탕문화를 좇는 니콜라당의 행위와 영지주의적 방탕주의를 버리라는 주님의 경고를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한다. 끝까지 건디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영생이란 보물이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강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의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

두아디라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주님은 그 눈이 이글거리는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놋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었다. 손에 철 몽둥이를 쥐고 질그릇들을 후려칠 것 같은 심판주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철 몽둥이가 아무리 무섭고 파

괴력이 강하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철 몽둥이를 걱정해야 할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이다. 계시록이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재앙과 저주로 설명되는 심판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구원과 위로로 설명되는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심판과 재앙은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칭찬하셨고, 또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했다고 칭찬하셨다. 비단 천에 꽃을 수놓은 것처럼 나무랄 것이 없는 교회였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그들 가운데는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들을 용인하고 있었다. 주님은 이세

벨을 향해서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20절)고 하였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21절)고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가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22-23절)고 하셨는데,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의 처참한 최후가 잘 기록되어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또 사탄의 깊은 흉계에 말려들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5-26절)고 하였고, 또 “그는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셋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27-29절)고 하셨다.

두아디라 교회(2)



두아디라의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

여기에 언급된 쇠막대기 곧 철 몽둥이는 통치자의 홀을 말한다. 이 홀은 정의와 심판과 천년왕국의 상징이다. 불신과 우상숭배와 배신에 대한 징계의 무서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흉계에 빠지지 아니한 남은 자들에게 나라들을 주어 다스

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천년왕국 때에 주실 통치권을 언급한 것이다. 셋별은 어둠의 잔당을 몰아내고 동터오는 아침을 불러오는 새벽별이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는 자들, 곧 주님께 셋별을 받은 자들은 동터오는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점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용인한 데 있었다. 이세벨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4대 임금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주전 930년경 솔로몬이 죽고, 41세라는 적지 아니한 나이에 통일 이스라엘의 국왕이 된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결혼동맹으로 맞이한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태어났다. 암몬 족속은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몰렉 혹은 밀곰이라는 가증한 우상을 섬겼는데, 나이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섬긴 종교였다.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4대 임금이 된 데서 남북분열의 비극이 초래되었다.

성서가 솔로몬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성군으로 묘사한 것은 역대기 역사가들의 국가이념의 핵심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의 나라의 비극은 이방여인과 결혼하여 이웃국가들과 결혼동맹을 맺어나 간데 있다. 결혼동맹으로 이방여인들이 궁에 입성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의 신과 제사장들과 몸종들을 동반한다.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사당과 처소를 마련해 줘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나 그가 지은 성전과 하나님은 그가 끌어들이는 우상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악행은 솔로몬 자신의 파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열을 야기하였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혈통의 순수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싫어하신 것은 혈통이 섞이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혼합신앙을 싫어하신 것이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외국인 신부들과 통혼함으로써 젊고 예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가증스런 종교의식에 불려 다녔기 때문이었다.

승리자 그리스도(9):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5)(계 2:20-23)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사데(Sardis) 유대교 회당 유적.
600년 이상 사용된 큰 규모의 회당으로서 바닥이 모자이크로 장식되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 50년쯤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강력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오므리(885-874 BC)이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제 사회에 알릴만큼 뛰어난 왕이었다. 군사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통치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년여 전 통일왕국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갔었다. 그러나 오므리가 아들 아합(874-853 BC)을 바알신 제사장 출신이자 레바논(시돈)의 왕 옛바알(Etbaal)의 딸 이세벨과 혼인시켜 결혼동맹을 맺게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로 인해서 북 이스라엘에 비극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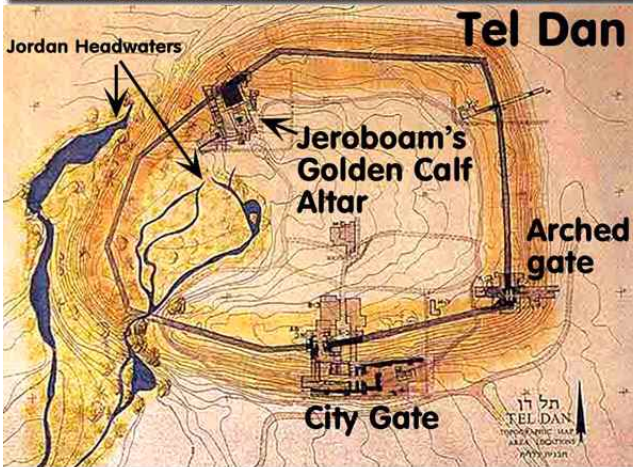
이세벨은 미색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특한 여인이었다. 솔로몬의 부인 암몬 사람 나아마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가증한 밀골이란 이방신을 들여와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산당을 짓게 하고 그 예배에 참석케 한 것처럼 이세벨은 아합의 권세를 이용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토록 하였다. 그 결과 엘리야와 광야 굴에 숨은 칠천 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삼년 육개월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백성들은 극심한 가뭄과 배고픔까지 참아내야 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은 아합이 솔로몬 못지않은 건축가였음을 말해준다. 그는 상아로 장식한 "상아궁"을 지었고, 많은 성읍들을 요새화시켰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 알린 국방외교면에서 뛰어난 왕들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페니키아, 북동쪽으로 시리아, 동쪽으로 암몬, 남쪽으로 유다, 모압,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아합은 페니키아와 유다와는 결혼동맹을 맺고 있었고, 모압과 에돔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고 있었다.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3세의 비문에 의하면, 아합은 주전

853년에 시리아를 포함한 인근 나라의 12명의 왕들과 연합하여 카르카르(Qarqar)에서 살만에셀 3세의 남서진을 막기 위해서 싸웠다. 그때 아합은 2천승의 병거와 1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참가했을 정도로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국방외교에 공을 들였던 아합은 솔로몬처럼 외교차원에서 결혼동맹을 맺었고, 아합과 결혼한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은 아합을 조종하여 야훼신앙을 몰아내고 바알신앙을 굳건히 세우려 했다. 이 일을 저지하려고 목숨 걸고 나선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야훼' 신앙(1)



여로보암은 사마리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단(초북단)과 벳엘(초남단) 두 곳에 금송아지 성소를 세웠다(왕상 12:28).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남왕국은 법궤와 성전이 되고, 북왕국은 금송아지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의 보좌인 법궤가 있듯이, 단과 벳엘 성소들에는 야훼가 서 계신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이다.

한 북왕국의 모든 왕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 또 신명기 역사가는 인물평가기준을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에 두지 않고 야훼신앙의 충실도에 두었기 때문에 오프리와 아합의 태산만한 업적을 동산만큼만 기술하였다.

가뜩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과 벳엘에 (남왕국 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성소를 만들고 법궤(야훼의 보좌 혹은 발 등상)를 대신하여 황금송아지를 세웠으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조 여로보암 때부터 멸망 때까지(930-722 BC) '엘-야훼' 곧 가나안의 신 엘과 야훼를 같다고 믿는 혼합신앙을 유지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운명(생사)이 "여호와와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던 신명기 역사가로서는 아합뿐 아니라 불법적인 성소들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거하지 아니

왕들이 국방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야훼신앙을 무너뜨리면 왕가가 진멸되는 응보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오므리와 아합이 야훼신앙에 충실했던 다윗을 추종하지 않고, 국방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력을 키웠지만, 주변국들과 결혼동맹을 맺어 예루살렘 영내에 이방신들을 끌어들이는 솔로몬의 전철을 밟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구약성경의 역사가들은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이방여자들과 이방신들을 예루살렘 영내에 끌어들이는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솔로몬은 과도하게 토목공사를 벌임으로써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고, 젊은 부인들이 초청한 이방신 축제에까지 참가하곤 하였다. 그 결과가 왕국분열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야훼신앙을 위태롭게 만들고 회개하지 아니한 오므리-아합 왕가는 엘리사와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로 진멸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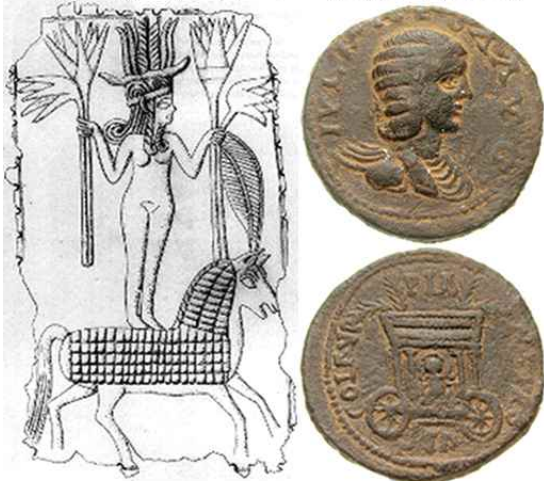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야훼' 신앙(2)

엘리사의 지지를 받았던 예후도 오므리처럼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쟁취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었다. 그는 제9대 왕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요람) 밑에서 시리아와 전쟁을 치를 당시 병거부대를 지휘한 장군이였다. 주전 841년경 시리아와의 전쟁 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치료 차 이스르엘 성으로 돌아갔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사돈의 문병을 위해서 이스르엘에 내려와 있었다.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의 아들로서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여호람과 결혼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틈을 타 엘리사는 예후를 왕으로 세웠고, 예후는 병거부대를 이끌고 이스르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요람)뿐 아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 죽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후는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자손 70명과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자손 42명도 죽였다. 이뿐 아니라, 예후는 열왕기하 10장 16-17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 단 한명의 바알숭배자도 남아 있지 않게 모조리 죽였다.

그러나 예후는 단과 벨엘의 황금송아지 성소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남왕국 사람인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예후는 황금송아지 성소들을 그대로 남겨둔 행위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야훼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쓴 공로가 아무리 컸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왕이었다.



시돈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의 스피링스 팔걸이의자와 그녀에게 신전을 봉헌했노라고 기록을 남긴 시돈(레바논)의 왕 에슈무나자르의 석관(루브르 박물관 소장)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과 시돈(레바논)의 주화에 실린 마차를 탄 아스타롯(이스라엘 박물관)

승리자 그리스도20: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6)(계 2:26-27)

삼년육개월과 중인의 표상으로서의 엘리야(1)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
(William Brassey Hole, 1846-1917)

계시록 2장 26-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은 엘리사의 지지를 받은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킨 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키는 말씀이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다. 외교와 군사에서 군주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심성이 아주 나쁜 왕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세벨은 아합을 조종하고 부추긴 인물이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도 아합은 정당한 값으로 사기를 원했고 강탈할 생각을 전혀 안했지만, 이세벨은 간계를 부려 사람들

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탈취했다. 이처럼 이세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여인이었다. 이 이세벨이 야훼신앙을 말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무력으로 강요하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따를 뿐이었다. 그 단적인 예로써 이세벨은 야훼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다. 이로써 아합과 이세벨은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 되었다. 이보다 훨씬 앞선 모세시대에는 바로와 박수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었고,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황제와 황제숭배 사제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자칭 천황과 그 수하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아합과 이세벨시대에 엘리야와 엘리

사가 나왔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였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고 통보하고 있다. 아열대 사막기후에다 수리시설이 없던 2,850여 년 전에 3년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었다.

삼년육개월과 증인의 표상으로서의 엘리야(2)



트라키아인의 호심경과 투구(주전 4세기)
(카잔루크 박물관, 불가리아 Kazanlak)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던 어느 날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갈멜산에 모여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대로 참 하나님을 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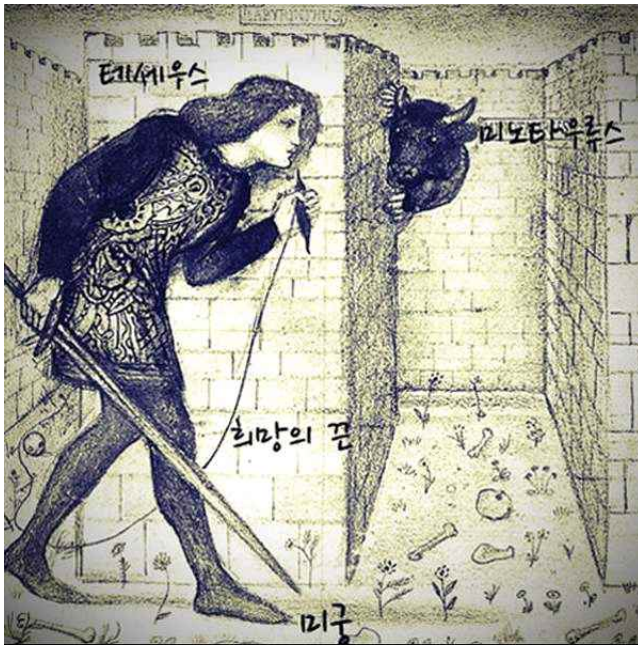
대결을 펼쳤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결장인 갈멜산에 모였다. 엘리야는 물려든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으라.” (왕상 18:21)고 통보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유구무언 대답이 없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결방법은 각각의 팀 앞에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불이 붙게 하는 것이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정오 때부터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며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다. 그러나 끝내 응답이 없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야훼의 단을 수축하였다. 열두지파의 수효대로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고 송아지를 각 떠서 나무위에 올린 다음 도랑에

물을 길어다 채우게 하였다.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오후 3시경에 단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와 하나님으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말려버렸다. 엘리야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승리였다. 바알과 아세라는 흑암에 처한 인간들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울 수가 없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을 단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다.

삼년육개월과 증인의 표상으로서의 엘리야(3)



대결직후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붙잡아 기손 강가로 데려가서 모두 처형시켰다. 이뿐 아니라, 아합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충고로 전투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으며,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와 그가 앞세운 장군 예후의 쿠데타 때에 이세벨은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그 피가 담과 말에 튀겨 죽었으며, 그 시체는 깃뺏히고 말았다. 왕과 왕

후에 이어서 자녀들까지 가문이 멸문당하고 정권이 바뀌는 비극을 맞았다. 이것이 박해세력의 최후였다. 박해가 시작된 지 삼년 반 만에 얻은 야훼신앙의 승리였다.

이러한 명백한 과거의 승리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주님께서 2장 20절에서 이세벨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11장에서 엘리야를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칭찬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용인되고 있는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할 것을 단호히 경고하셨습니다. 바알종교문화의 특징은 향락이다. 돈과 성을 섬기는 현대문화가 현대판 바알종교이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한다. 그래서 money와 sex는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이 현대판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충고한다.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은 자들은 머지않은 날에 동터오는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속에 끼여 승리의 합성을 외치며 승리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대열에 끼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자.

승리자 그리스도21: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7)(계 3:1-13)

사데교회



사데(Sardis)의 아데미(Artemis) 신전과 비잔틴교회 유적
헬라시대와 건축된 신전으로서 그리스도가 국교가 된 이후에 교회로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기둥 앞쪽 석조건축물이 교회 복속 유적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처방이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 의식하지 못한 사이 어느덧 병이 깊어진 상태가 사데 교회의 현주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데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일컬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받을 보상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만큼 충성스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나 친구처럼 아끼신다는 뜻이다. 성결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큼 주님과 가까운 관계란 뜻이다. 주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기가 입은 야훼신앙의 옷, 자기가 입은 그리스도 예수신앙의 옷, 자기가 입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이다.

주님이 가지신 일곱 영과 일곱 별은 성령님과 천령 천사들을 말한다. 주님은 이들이 전한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고 명령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서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은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굳게 지키라,” “회개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는 말씀은 사데 교회 성도들의 건강상태와 형편에 대한 진단이고,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굳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께 받은 책망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비록 힘이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들은 작지만 순수한 신앙 공동체였던 것 같다. 주님은 그들에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켜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며, 보호하겠다고 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



6세기경에 건축된 ‘사도 요한 기념교회’ 터(빌라델비아).
아치를 받치던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기둥이 유물로 남아 있다.

주님은 유대교 회당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폄훼 하셨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대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우상과 교만에 빠져서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 두겠다.”고 하셨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되었다. 다윗은 왕국 곧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다가올 세상, 장차올 세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는 왕국의 열쇠를 말한다. ‘성전’과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 등이 장차올 세상 곧 유대인들이 꿈에도 희망하는 ‘올림하바,’ 다윗 왕국의 회복 곧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된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왕국의 회복을 고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왕국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 나라가 그리스도교라는 것, 그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인’(Christian)이란 이름이 바로 그들 위에 써둔 ‘새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Christian Church’라 부른다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다.

계시록 2-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명령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마가복음 8장 14-21절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사람은 많은데, 빵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하다가 “바리새와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잘못 알아듣고, 오해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 있는 자는”(1)



사데(Sardis)의 테르메(thermae, 2세기 말, 3세기 초)
테르메(thermae)는 고대 로마의 공공목욕탕이자 사교장이었다.
이탈리아 치코목적의 마사지, 공복도 목욕탕 부대시설에서 이뤄졌다.

예수님의 이 탄식이 바로 사데 교회에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 마가복음 7장 32-35절에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에바다’란 아람어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꽂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장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다.”이다. ‘열리고,’ ‘풀리고,’ ‘말이 분명했다’이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문제점은 귀가 닫혀있었다는데 있다. 굳게 닫힌 그의 어두운 귀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닫히게 되고 분열왕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르호보암은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감하여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백성의 청(촛불시위?)을 거절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다윗왕가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된다는 원로들의 충언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더욱 거칠게 밀어붙여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는 젊은 사람들의 간언을 따랐다. 그 결과가 유다와 베냐민 두 부족만 남고 나머지 10개 부족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면서 갈라섰다. 다윗왕가에서 갈라선 10개 부족은 느밋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다. 르호보암은 귀가 닫혀 있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루머와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루머와 신음소리는 민심이요, 민심은 천심이며, 천심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가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 놓은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하여 가나안 땅에 그토록 소원했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대 구원사건이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던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앞에 선 것과 반대로 바로는 귀를 닫았다. 그 결과가 이집트 전역에 미친 열 가지 재앙이었다.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비극적 재앙을 열 가지나 당했고, 사람과 짐승에 관계없이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승리자 그리스도22: 풍랑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8)(계 3:14-18)

“귀 있는 자는”(2)



고대 라오디게아의 광장(시장, Agora)

엘리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아합과 이세벨은 가문이 멸문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유다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망하게 하

였다. 예레미야는 국제정치 판도를 꿰뚫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앗수리아와 이집트의 쇠퇴를 읽고 있었다. 여호야김 때인 주전 609-598년에는 유다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징조들이 많았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앗수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전멸시켰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앗수리아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임명한 왕이었지만, 바벨론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썼다. 이 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윗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여호와와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가 바벨론의 공격 직전에 사망했다. 결국 유다왕국은 다음 해인 597년에 바벨론 군에 능욕을 당했고, 왕위에 오른 지 3달밖에 되지 못한 18살의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주전 605년에 이어 두 번째 유배였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아(주전 609년 므깃도에서 전사)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잡혀간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임명했다. 시드기야 역시 친 이집트파와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하나나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돌아오고, 성전 보물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부정했고, 유다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7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들지 말고 복종하도록 권했다. 예레미야가 민족주의자들에게 흑심한 편박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닫힌 눈과 막힌 귀로 보고 들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 매국노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토굴과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 편에 서서 주전 589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다.

라오디게아 교회(1)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소경을 만든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제3차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과 유배가 완결되고 유다왕국은 철저히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끝내 살아남았다.

복음서와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여러 차례 나온다. 듣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며 재앙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란 점을 암시한 말씀들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다(롬 10:17). 귀를 열어 듣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는 것은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이 귀를 열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개인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못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라오디게아는 터키 소아시아도 브루기아 지방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해발 300미터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20여리 떨어진 계곡 건너편 더 높은 지역에는 유명한 온천 도시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가 위치하고 있었다.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오는

동안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 또 라오디게아는 50여리 떨어진 산지 골로 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 물 역시 외부기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 미지근하게 되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모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온천물이 주는 치료효과를 누렸을 뿐 아니라, 궂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니온’이라 불리는 안약의 산지로도 이름이 나 있었다. 또 목화와 목축으로 옷감이 생산되던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사치품도 많았다고 한다. 비잔틴 시대에는 주교가 상주했던 도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누렸을 번영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은 이곳 성도들의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셨다. 미지근한 믿음은 열정이 식은 믿음을 뜻한다. 주님은 열정이 식은 믿음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부유하고 싶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헌신이 없는 믿음, 구경꾼의 믿음, 아웃사이더의 믿음생활을 책망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교제를 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싶다. 식탁교제와 연관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본문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 교회(2)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발굴 복원된 모자이크(데니즐리, 터키)
유각 속에 세 개의 하트는 '삼위일체'를 상징한 것일 수 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식탁교제를 언약체결과 연결 지어 생각했다.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언약관계에 있거나 그 공동체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 주님의 가족이거나 친구이어야 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공동체의 회원들이자 가족이고 친구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히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번영을 누렸던 라오디게아 인들이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별거벗었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통달하였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이라고 하신 것과 같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갖지 못한 자들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이 현실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아이러니는 그들이 그런 실상을 모른다는 데 있다. 그들은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다. 물질적인 풍요가 곧 바로 영적인 풍요로 이어진다고 착각했다.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경건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이 곧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님은 성공이 곧 축복이라고 믿는 성공지상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 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오해했으며, 잘못 믿고 있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권면대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께 순도 높은 금을 사서 소유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긴 흰 옷을 사서 입고, 눈이 밝아지고 싶다면, 주님이 열어 주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

승리자 그리스도23: 풍량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9)(계 3:19-22)

라오디게아 교회(3)



라오디게아의 시리아 거리(Syria Street)
라오디게아와 콜로새를 연결하는 도로였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거둔 소출이 많아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비축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생

각을 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한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고, 깨어있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면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계시록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수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인가, 누가 눈이 밝아진 사람인가라는 것이다. 불에 정련한 금을 주님께 산 사람, 흰 옷을 사서 입은 사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 ‘사다’는 말인데, 이 ‘사다’는 말은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말과 연결된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별거벗은 비참함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에 정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본문은 이것들을 우리 주님께 사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 하는 수고가 바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값이라고 말한다. 단순하고 값싼 믿음 그 이상의 ‘고가의 믿음,’ ‘열정을 품은 믿음,’ ‘헌신의 믿음,’ ‘수고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부가 가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주님, 참되신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4)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식탁교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천국혼인잔치의 참여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구원 받은 자가 누릴 특권이다. 이 두 가지 구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불에 정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야 한다. 여기서 ‘사다’는 의미는 주님께 우리의 ‘고가의 믿음,’ ‘열정을 품은 믿음,’ ‘헌신의 믿음,’ ‘수고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 받는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가운데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비유가 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유명무실한 죽은 믿음이고 값싼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은 세 가지이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린 아담과 이브처럼,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빨아 희게 한 옷을 입어 죄로 인해 드러난 수치를 가리는 것이며, 주님의 손의 터치를 받아 닫힌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값싼 믿음이 판을 치고,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눈먼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은 참혹한 세상이다. 이 점을 고발한 소설이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이다. 오늘날 사회는 다수의 눈먼 자들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아래 있고, 또 그것에 빌붙어 살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천국혼인잔치와 같은 흥이 되살아나고, 진정한 의미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 뜬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아니한 한사람, ‘안과의사의 아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인간애가 살아나고, 연대의식이 살아나고, 나눔의 정신이 살아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살아나고, 그런 이들의 희생과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오물구덩이 속에서 헤매던 인간들이 별거벗고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이 흰 옷으로 갈아입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 20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예녹1서 62장 14절도 “그리고 인자와 함께 그들이 먹고 자고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천국혼인잔치를 말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바로 이 천국혼인잔치를 이 지상의 교회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한 차례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서 임재하시는 주님과와의 친교식사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자들에게 주어질 메시아 만찬(Messianic banquet)은 죽어서 참여할 미래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어린양의 혼인잔치인 것이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 복된 자들이다.

“이기는 자는”



에베소에 남아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

1세기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큰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과 몽둥이로 맞고, 옥에 갇히고, 맹수에 찢기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로마황제를 섬겼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이 바람과 바다가 무섭다고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든 것과 같았다. 배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 어렵다고 배를 버린 사람은 결코 살지를 못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배는 결코 좌초되지 않았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포상까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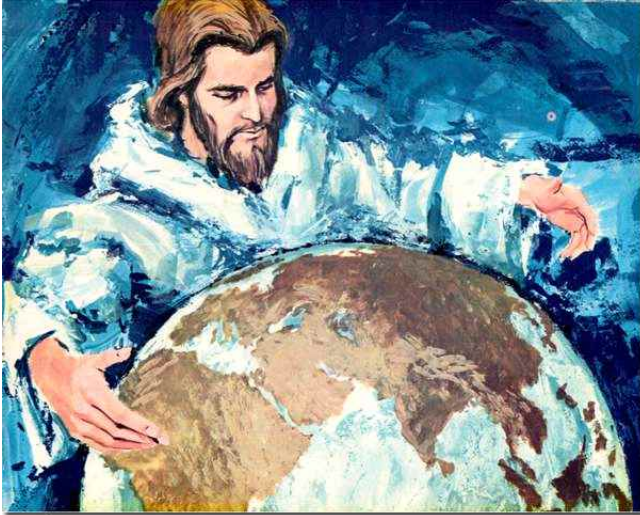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행위를 가지라” (2:5). “죽도록 충성하라” (2:10). “회개하라” (2:16).

“굳게 잡으라” (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3:11). “네가 열심을 내라” (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쥐서 먹게 하리라” (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2:17). “새 벽별을 주리라” (2:28).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21).

로마서 8장 17-18절도 마찬가지이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자.

승리자 그리스도24: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I)(계 4:1-11)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I)



지구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Standard Publishing, OH, 1980년대) 고 줄을 조여 음을 맞춘 다음 연주를 시작하였다. 노인의 연주는 아름다운 천사의 음악처럼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하고는 다시 연주를 시작하였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고, 결국 이 바이올린은 3천불에 낙찰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시에서 노인의 손은 분명 큰손이다. 이 노인과 같은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건설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조종하는 손이다.

시편 99장 1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 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고 노래하고 있고, 시편 103장 19절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고 노래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독자에게 하고 싶어 한 말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말한다. 이것이 압축된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이다. 특히 계시록 4-6장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한 내용이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영시가 있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다. 3불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을 닦았다. 그리

하나님이 두 팔로 지구를 감싸 안고 있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과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두 팔로 감싸 안으시고 온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 그림이 바로 보좌방의 환상을 설명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결말지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였고, 전도서 9장 1절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 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이 최선책인 것이다.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2)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7계 4-5장)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지 않으며, 성소 바닥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다. 대신에 삼라만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중앙에 벽옥과 홍옥 같은 야훼께서 보좌(법궤)에좌정하시고, 그 둘레에 벽옥 같은 무지개 아우라가 펼쳐있으며, 여섯 날개와 수많은 눈을 가진 네 생물(케루빔)이 밤낮으로 삼성창을 부른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을 밝힌 메노라가 있고, 보좌 둘레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신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가 금관을 벗어 바치며 엎드려 야훼께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양 예수님은 일곱 별과 일곱 눈을 가지고 야훼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좌정하여 계신다.

역사 배후의 큰 손, 하나님, 이것이 계시록 4-6장의 주제이다. 계시록 1-3장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좁은 범주의 틀 속에서 다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4-6장은 하나님과 우주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다루어졌으며,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보다 넓은 안목의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 세계관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는 보다 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극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암시가 담겨 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 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을 뿐이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수고가 주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 나타나 있다. 이 환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

신학자 윌리엄 헨드릭센은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 방과 그 주변 전경의 위치 그리고 온 우주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격 표적지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다. 중심의 가장 작은 원에서부터 바깥쪽 가장 큰 원에 이르기까지 일곱 개의 원을 그려서 4장에 나오는 인물과 가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가장 작은 중심 원 중앙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앉은 모습이 푸른 보석 재스퍼(jasper)와 붉은 보석 루비(ruby) 같고, 그 보좌 둘레에는 에메랄드(emerald) 같은 무지개가 있다. 윌리엄 헨드릭센의 설명에 의하면, 이 장면은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을 둘러싼 중심 원에 재스퍼가, 두 번째 원에 루비가, 세 번째 원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놓여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재스퍼와 루비와 에메랄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세 겹으로 보호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3)



하늘 지성소 보좌방의 경호 생물 케루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케루빔들은 경호 임무뿐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삼성창을 부르며 야훼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계 4:6-9).

계시록 4장 6-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번째 원에는 스랍(seraph)으로 알려진 네 생물이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황소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 이 네 생물은 각각 세 쌍의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고 외치고 있다. 이 장면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생물 또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

지만,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三聖唱)이라 하여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교 예배의식에 첨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보좌가 놓여 있는 정사각형의 단상의 모습이다. 이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계단을 올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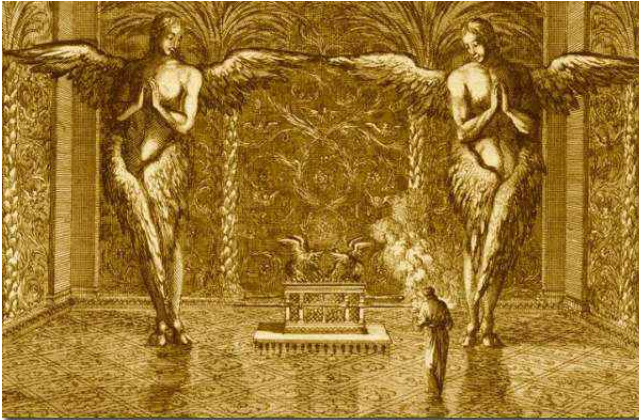
계시록 4장 4절과 10-11절을 보면, 단상 아래에 다섯 번째 원이 있고, 그 원에는 보좌 스물 네 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장로 스물 네 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월계관을 쓰고 앉아 있다. 이들 스물 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하여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 드리고, 자기들의 월계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고 외치고 있다.

계시록 5장 11-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원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들은 큰소리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원에는 우주와 모든 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도 큰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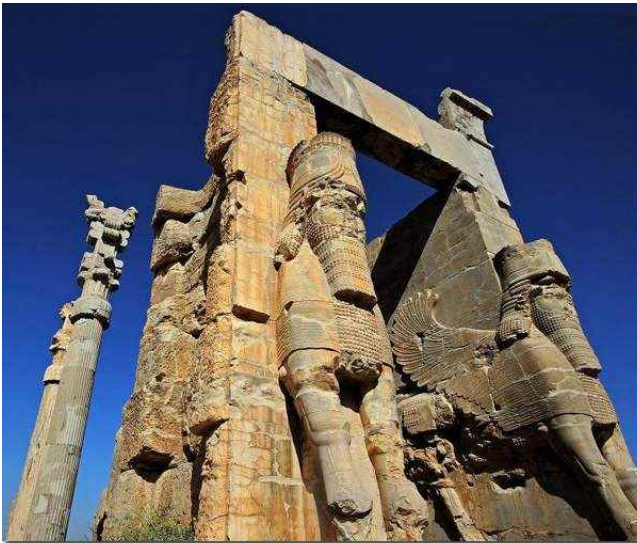
승리자 그리스도25: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2)(계 4:1-11)

생물 또는 케루빔()



솔로몬 성전 지성소 상상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20x20x20규빗)는 성막 지성소(10x10x10규빗) 크기의 네배였다. 케루빔의 날개가 여섯 개씩이었으면 더 좋았을 상상도이다. 지성소의 네 케루빔은 야훼의 전차이다(대상 28:18).

소 양장과 휘장에 케루빔들(Cherubim)을 수놓아 새겼고(출 36:8,35), 케루빔들이 성막의 지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20x20x20규빗)를 지켰다(출 37:6-9, 왕상 6:23-28).



페르시아 궁전의 '만국의 문'을 수호하는 라마수
'만국의 문'은 23개 지역의 사절단이 페르시아 황제를 알현하고 공물을 바치기 위해 통과했던 문으로서 페르세폴리스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첫째, 케루빔(Cherubim)은 지성소를 경호(警護)하는 생물이다.

1) 창세기 3장 24절은 케루빔들이 에덴동산 동쪽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들로 나온다.

2) 보좌를 경호하는 두 케루빔(법궤, 출 37:6-9) 또는 지성소를 경호하는 네 생물(하늘 지성소, 계 시록 4장)로 표현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성막 지성소 양장과 휘장에 케루빔들(Cherubim)을 수놓아 새겼고(출 36:8,35), 케루빔들이 성막의 지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20x20x20규빗)를 지켰다(출 37:6-9, 왕상 6:23-28).

3)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발판이었으며 속죄소였다. 법궤와 관련해서 성경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4),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삼하 6:2, 대상 13:6),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시 80:1),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시 99:1),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



라마수(Lamassu) 석상(넵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새까맣게 칠한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12리터에 황소의 뱀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사 37:16), “여호와와 언약케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대상 28:2), “증거케 위 속죄소”(출 25:22, 출 30:6, 레 16:2) 등으로 표현하였다.

4) 고대근동세계에 케루빔과 유사한 경호 생물 곧 라마수(Lamassu)와 마르두크(바빌론의 수호신), 스팅크스가 있었고, 헬라 세계에는 그리핀(Griffins)이 있었다.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약 4천 년 전 등장한 아시리아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대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아시리아관 입구 양쪽면의 라마수(Lamassu)는 4.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상이다. 정면은 우뚝 선 모습이지만 측면은 걷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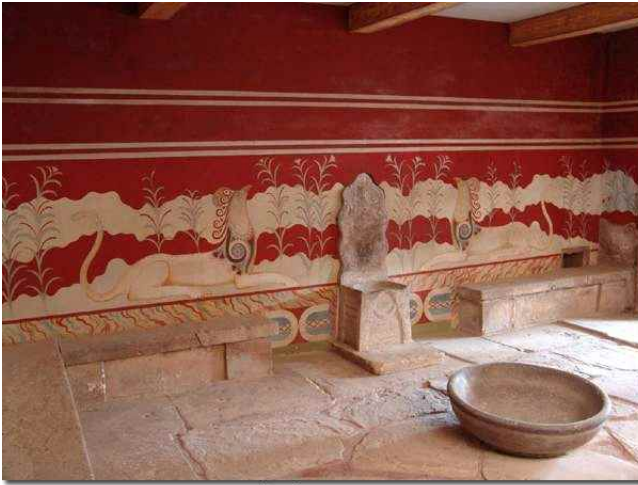
생물 또는 케루빔(2)

아시리아인들은 수염달린 사람의 얼굴에 사자나 황소의 몸통에 새까맣게 칠한 날개를 한 석상인 라마수를 만들면서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다리는 다섯 개다. 그렇지만 정면에선 두 개, 측면에서는



날개 달린 바퀴에 앉은 야훼
에돔-유대인들이 주조한 쿼터 쉐겔 (주전 333, 영국박물관)로써 뒷면에 날개 달린 바퀴에 앉은 야훼께서 왼손에 새를 바치고 계신 모습과 하단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 얼굴을 새겼다.

네 개만 보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라마수를 정면에서 보면 두 다리로 굳엄하게 서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엉악없이 네 다리로 걷는 모습이다. 라마수는 성이나 궁궐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수호신이었다. 신격(神格)을 상징하



크노소스 궁전 북동쪽 입구에 소재한 보좌방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포레스코하나 석조물에 그리핀들이
모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
(c. 1450 BC)로 알려져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핑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궐)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있다. 페르시아 궁전의 만국의 문은 23개 지역의 사절단이 페르시아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통과했던 문으로써 페르세폴리스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사
람의 얼굴을 한 수호신 라마수, 마르두크, 스팅크스는 현신인 황제들의 두
상이다. 황제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보통 머리
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과 수레바퀴(에스겔 1, 10장)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궐)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는 황소의 뿔 세 쌍이 새
겨진 관을 쓰고, 턱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라마수는
대부분 한 쌍을 이루어
왕궁이나 성벽의 입구에
서서 사악한 기운이 안으
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한
다. 우리나라의 천하대장
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
장군(地下女將軍)에 비교
될 수 있다.

라마수는 페르시아에
공물을 바쳐야했던 속주
의 사절들이 통과하던
‘만국의 문’ 앞에도 서

고대헬라의 미케네문명
시기의 그리핀(Griffins)은
케루빔처럼 보좌 좌우를
지켰으며, 보통 독수리 머
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핀
들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
을 한 수호신 스팅크스,

생물 또는 케루빔(Cherubim)(3)

둘째, 케루빔은 하나님의 전차를 끄는 생물이다. 케루빔과 관련해서 성경
은 “수레 곧 금 그룹들”(대상 28:18),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 날



케루빔과 천사들(시칠리아 체팔루카 성당, 1200년경)

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시 18:10), “그를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삼하 22:11),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겔

10:15-20) 등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하나님 의전(예배, 경배, 찬양 등)을 담당하는 생물이다(계 4:6-9, 사 6:1-4).

케루빔들은 여섯 날개의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며, 그 둘로는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삼성창을 부른다.

넷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생물이다.

1) 계시록 4장 6-9절의 네 생물은 앞뒤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 날개 세 쌍, 삼성창 및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 각각



에스겔이 본 네 생물(by Sweet Media)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반 구리 같이 빛나며...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날개는 늘어 퍼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더라”(겔 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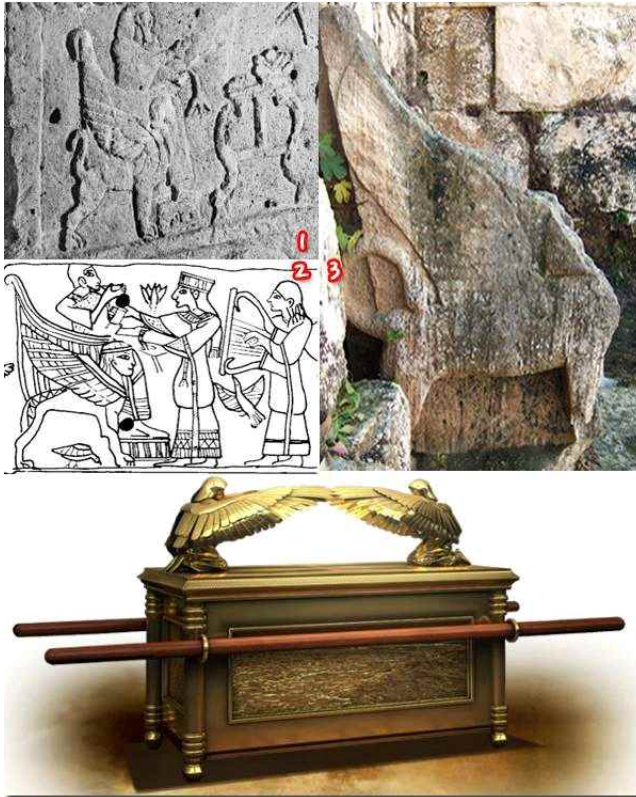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이사야 6장과 비교).

2) 에스겔 1장의 네 생물은 사람 얼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네 바퀴, 두 날개로 몸을 가림. 각각 네 얼굴과 날개 두 쌍, 곧은 다리,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 넷의 정면 얼굴은 사람, 오른쪽 얼굴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날개 둘은

몸을 가렸고, 둘은 펴서 서로 연결하였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번개모양 같이 왕래, 생물들 곁에 바퀴가 하나씩 총 네 개,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승리자 그리스도26: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3)(계 4:1-11)

천상의 예배(1)



경호 생물 스팅크를 부조한 의자들과 하나님의 보좌(법제)
1번은 페니키아 비블로스의 왕 아히롬(Ahirom)의 석판(c. 1000BC),
2번은 이스라엘 므깃도에서 출토된 상아유각, 3번은 시돈의 예스몬 신전
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룩의 석좌 및 법제 덩어리에 세운
케루빔. 케루빔 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요, 발판이며, 속죄소였다.
그러므로 계시록 4-5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천상의 성전에서 이뤄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계시록 1-6장까지를
넓은 그림으로 보면, 1-3장이 천상의 그리스도와 고난당하는 지상 교회들의
모습이고, 4-6장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갈등하는 세상사의 모습이
다. 그러나 4-5장만을 따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신 천상의 참

계시록 1장의 인자가 천상의 환상이었다면, 2-3장의 일곱 교회는 지상의 환상이었다. 그리고 다시 4-5장의 보좌방은 천상의 환상이다. 계시록에서는 천상의 환상과 지상의 환상이 교대로 반복된다. 4-5장이 천상의 환상이기 때문에 6장에서는 다시 지상의 환상으로 바뀐다.

계시록 1장의 인자의 환상이 멸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만왕의 왕과 신실한 예언자 그리스도였다면, 2-3장의 지상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들이다. 히브리서의 언급대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기

그러므로 계시록 4-5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천상의 성전에서 이뤄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계시록 1-6장까지를 넓은 그림으로 보면, 1-3장이 천상의 그리스도와 고난당하는 지상 교회들의 모습이고, 4-6장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갈등하는 세상사의 모습이다. 그러나 4-5장만을 따로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신 천상의 참

성전과 그곳에서 펼쳐지는 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계시록 4장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지상 성막의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의 양식은 뜰과 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 출입구 쪽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 입구사이에 물두멍이 있었다. 성막 출입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서면 왼쪽에 일곱 줄기 금 등잔대가 있었고, 다시 성막회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서면, 서쪽 벽면에 법궤가 있었다. 이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 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황금으로 만든 케루빌 둘을 법궤의 뚜껑 양끝에 세워 시은소를 감싸게 하였는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동일한 케루빌들이다.

천상의 예배(2)



크노소스 궁전 보좌배양의 그리핀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c. 1450 BC)로 알려져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피нк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궤)를 수호하는 케루빌에 비교된다.

계시록 4장 1절의 ‘하늘에 열린 문’은 성막 문을 연상케 하고, 2-3절의 ‘하늘에 보좌’는 성막 지성소의 법궤 위 시은소를 연상케 하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재스퍼(jasper)와 루비(ruby)와 같았고, 에메랄드(emerald)와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했는데, 이는 성소와 법궤와 케루빌 천사들의 황금빛 광휘를 연상케 한다. 또 4절의 흰 옷을 입고 머리

에 금관을 쓰고, 보좌를 둘러싸고 앉은 24장로들은 유대교 회당예배 때에 단 앞에 앉는 장로들을 연상케 하며, 또 5절의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줄기 등대’는 성소의 금 등잔대를, 그리고 6절의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는 성막 뜰에 있는 물두멍을, 그리고 6-9절의 ‘네 생물’은 법궤 위의 케루빌 천사들을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도 네 생물과 24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보좌(법궤)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4-5장의 장면은 지상 성막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연상케 하며 참 성전인 하늘 성소에서 드러지는 예배의 원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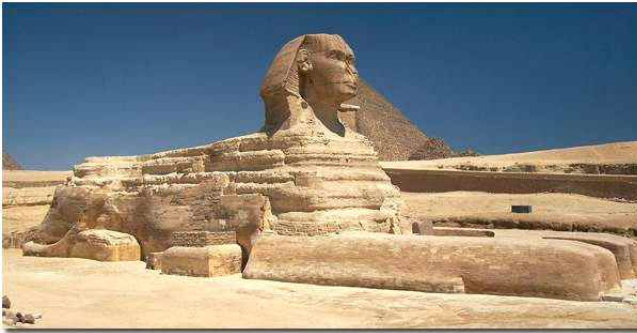
계시록 4장 3-5절의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전능하심의 상징이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는 것은 그 보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이기 때문이다.

5절의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전지’ 곧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네 생물들의 세 쌍의 날개들 안팎에 눈이 가득한 것도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6절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는 성막 뜰에 있었던 물두명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두명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단에서 화제(火祭)를 하나님 앞에 사르기 전에 수족을 씻기 위한 물통이었다.

6-9절의 ‘네 생물’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네 생물들과 매우 흡사하다. 그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 모습을 가진 살아있는 네 생물들이다. 그들은 각각 날개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은 세 쌍의 날개를, 에스겔 1장은 두 쌍의 날개를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서의 경우 날기 위한 날개가 두 개 더 있었을 것으로 보아 실제로 날개는 세 쌍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날개들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천상의 예배(3)



피라미드 입구를 지키는 거대 스피нк스
이집트 기자(Giza) 지역에 고왕국 제4왕조(주전 2613-2494)
파라오들이었던 쿠푸(Khufu), 카프레(Khafre), 멘카우레(Menkaure)의 무덤으로 알려진 세 개의 피라미드 입구에 세워져 있다.

렵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들 네 생물들이 사람의 네 가지 덕성 즉 사자얼굴은 숭고함과 충성, 송아지얼굴은 힘, 사람얼굴은 지능, 그리고 독수리얼굴은 속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덕성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경건한 덕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계시록 4장의 네 생물들은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자얼굴은 야생동물, 송아지얼굴은 가축, 사람얼굴은 인류, 그리고 독수리얼굴은 조류를

어떤 사람들은 이들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 즉 사자얼굴은 마태복음, 송아지얼굴은 마가복음, 사람얼굴은 누가복음, 그리고 독수리얼굴은 요한복음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경이 형성되지 아니한 1세기 말 상황에서 이들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를 상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날개에 붙은 수많은 눈들은 지상의 생물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상징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네 생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아니고,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네 생물들의 임무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것이다. 네 생물이 부르는 찬양을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이라 부른다. 가톨릭교회와 성공회에서는 제2부 성찬예배에서 이 상투스를 부르는데 교회력에 맞춘 감사송에 이어진다. 상투스가 끝나면 사제의 긴 성찬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 번 거룩을 찬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서 6장 3절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와 계시록 4장 8절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이다. 이 상투스를 숫자로 표시한다면, 777이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7), 거룩(7), 거룩(7)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거룩하다’의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다.

24장로들은 구약시대의 12부족과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대표한 것일 수 있다. 참고로 1세기경 유대교 회당들의 장로(회당장)나 초기 교회들의 장로(목회자)는 각 회당이나 교회마다 세 명이 기본이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찬양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월계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있다. 그들의 이 행위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믿음과 복종의 행위를 상징한다.

승리자 그리스도27: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3)(계 5:1-14)

천상예배의 내용



계시록 4-5장(Luther의 신앙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채색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보좌재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묘사하였다.

인물에 관련해서 볼 때, 계시록 4장은 천상의 보좌방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초점이 클로즈업되어졌고,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양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배와 관련해서 볼 때,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고,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그들을 뺄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다.

또 5장 13-14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고 있다.

결국 계시록 4-5장은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만물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성령님을 추가하면, 성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이심을 교훈하고 있다. 그밖에 것들, 곧 영계의 천사들,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만물들은 예배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란 점을 교훈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는 성삼위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만약 예배를 받고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반역자이다. 그는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감히 제우스의 신전에 오르려 했던 벨레로폰처럼 갈대 높에 추락하여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진 채로 쓸쓸이 방황의 들을 배회하다 죽게 될 존재이다. 벨레로폰과 같은 불행한 인물에 대한 경고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다.

먼저 에스겔 28장 1-19절을 보면, 두로 왕이 교만하여 자기가 신(神)이라고 말하고, 바다 한가운데 ‘신(神)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쭐되지만 그는 사람이지만 신(神)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자기가 신(神)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는 자를 구덩이에 집어던지시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는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한다.

일곱 인 두루마리()



계시록 4-5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보좌좌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묘사하였다.

이사야 14장 12-19절의 말씀도 인간의 교만과 자기우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너 아침의 아들이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요 4:23). 계시록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5절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6장에서 설명되었는데, 인류 역사의 악순환을 담고 있다. 이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정복과 번영이든, 전쟁과 죽음이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든, 순교와 평화이든,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주관자이시다. 그 점을 인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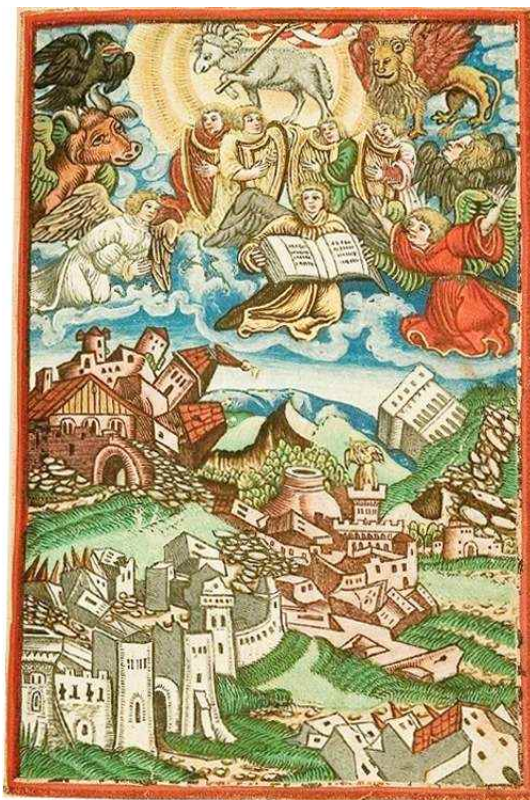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되어져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카이로스)를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눈을 떠 바로 인식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시록은 끝내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과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응보(네메시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상세히 보여준다.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책이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책의 권위와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성서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믿는다.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말은 두루마리 책을 일곱 개의 끈으로 묶고, 그 일곱 개의 매듭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각각의 진흙매듭에 인장을 찍었다는 뜻이다. 종이봉투와 풀이 없던 2천 년 전 그리스 로마시대의 사람들은 문서를 보낼 때, 끈과 진흙과 인장을 사용하였고, 통에 넣어 인편으로 보냈다. 문서를 봉인한 이유는 수신자 이외의 사람들이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수신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일곱 인 두루마리(2)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교훈은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개봉하여 밝혀낼 자격자가 누군가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역사경륜의 큰 뜻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독생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어린양이 성막 뜰 제단 앞에서 죄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였듯이,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어린양 그리스도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두루마리 책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교훈은, 성막예배와 회당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두루마리 책은 법궤 속에서 나온 것으로써 그리스도교 예배의 두 가지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말씀선포 즉 설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곧 성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세상사와 무관하지 않다. 고통당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구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 담긴 책이 성서이다. 그 책의 내용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다.



계시록 4-5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우주만물이 주께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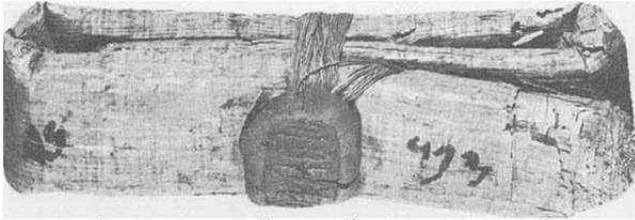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부른 찬양은 이렇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계시록 5장 6-12절은 어린양에 관한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속에서 책을 받아’ 일곱 인들을 하나씩 차례로 부수고 개봉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할 자격자는 어린양이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어린양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 예배의 두 가지 핵심 가운데 하나인 주의 만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양의 피 흘림이 빠진 예배는, 성막예배나 그리스도교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라고 볼 수 없고, 유대교 회당예배 성격의 기도회라고 볼 수 있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교훈은, 어린양이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그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신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 부분의 하나인 찬양을

승리자 그리스도28: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4)(계 5:1-14)

일곱 인 두루마리(3)



이집트 멜케판티네에서 발견된 인봉된 주전 5세기 파피루스 문서 멜케판티네는 바빌론에 유다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곳이다. 이 문서꾸러미는 1907-08년에 발견되었다.

정한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교훈은, 어린양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점이다. 성서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 부분의 하나인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을 표현된 어린양과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양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능력이요, 완전한 지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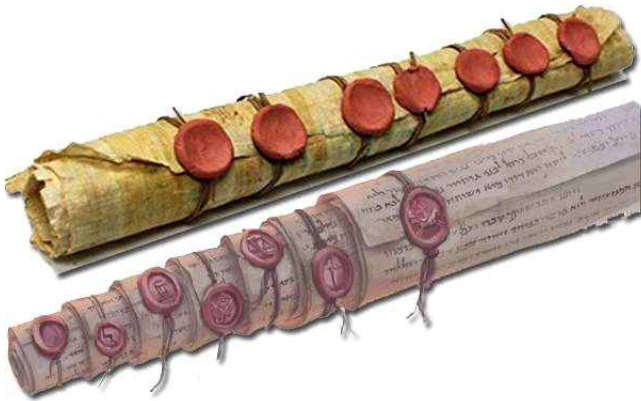
어린양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교훈은, 이 어린양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요, 자기 피로써 성도를 사신 자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 뿔은 전능을 상징하고, 일곱 눈은 전지를 상

징한다.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 입구에 분향단(출 30:1-10; 37:25-29)이 놓여 있었다. 가로, 세로가 각각 45.6센티미터, 높이가 91.2센티미터의 조각목 상자인데, 정금으로 썼다.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시 141:2, 계 8:3,4). 출애굽기 30장 7-8절을 보

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살전 5:17),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

일곱 인 두루마리(4)



일곱 인 두루마리 형태를 시연한 사진들

그들을 뺄뺄하게 둘러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까지 합세하여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다. 그리고 5장 13-14절은 종합적으로 온 우주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고 있다. ”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 그러자 네 생물은 ” 아멘! “으로 화답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예배해야 할 대상과 참여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 삼위 하나님뿐이시다. 참여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선포와 주의 만찬과 찬양과 기도란 점을 살펴보았다. 지상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기도가 마치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발하자.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모습이 마치 채스퍼와 루비와 같고,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영광이 매우 찬란하고, 높은 위엄과 존귀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 생물들은 상투스를, 24장로들은 존귀를 찬양하고 있고, 수천수만의 천사들은 어린양 예수님께 존귀를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경배하고 있다.

셋째, 계시록 5장 13-14절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상예배의 클라이맥스 장면이다.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고,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대열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한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을 볼 수 있어야겠고, 헨델처럼 믿음의 귀를 열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찬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간섭하시는 분이요, 끝을 낼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행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폭풍을 벗어나 안전한 포구에 도달할 수 있다.

일곱 인 두루마리(5)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장에서 본 인자의 환상이 5장에서는 어린양의 환상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계시록 4장 5-6절을 보면,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을 켜 금 등잔대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양 예수님은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

이에 서 계신다. 이 어린양 예수님은 승리하신 자요, 일곱 매듭으로 묶고 봉인한 책을 펴거나 읽기에 합당한 분이요, 피로써 성도를 사신 분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또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결단코 문자적인 일곱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일곱 영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말한 것이다. 뿔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힘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뿔 가진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제단에도 뿔로 장식을 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다는 말은 부활 승천한 예수님에게 전지전능한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다.

1장의 인자의 모습과 5장의 어린양의 모습은 겉보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나 결국 이 두 모습은 ‘폭풍을 잔잔케 하실 능력의 예수님’을 각기 다

르게 표현했을 다름이다.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매듭을 묶고 봉인한 책을 펼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이 일곱 봉인의 비밀을 ‘인 재앙’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네 가지 색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인에 나오는 흰말은 승리, 둘째 인에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의 파괴, 셋째 인에 나오는 검은 말은 기근의 피해, 넷째 인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다섯째 인은 신앙인의 순교,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 일곱째 인은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회화적(繪畵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대로, 계시록 4-5장은 인류의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백악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가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 따라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목적 없이 진행될 수 없고, 돌고 도는 윤회의 역사일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새 인류를 위한 역사의 막이 오르게 된다.

승리자 그리스도29: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5)(계 6:1-17)

계시록의 분리와 반복



계시록 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첫 번째 인물 패트를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내용을 교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재앙보다 8-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고, 일곱 나팔재앙보다 15-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다. 일곱 나팔재앙은 전체의 삼분의 일이 피해를 입는 재앙이다.

계시록은 희망과 절망의 내용을 교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 1장에서 인류의 희망이신 천상의 그리스도를 인자의 환상으로 보여준 후에 2-3장에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5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보

여준 후에 6장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7장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있다’(계 7:10)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환란을 이기고 나서 낙원에서 누릴 참 안식을 보여준 후에 8-9장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양을 배척하고 반역한 자들이 받게 될 천벌을 보여준다. 그리고 14장에서 또 다시 천상에서의 축복을 강도 높게 보여준 후에 15-16장에서 더욱 강도 높은 지옥에서의 천벌을 보여준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19장 이후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인 지복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희망

의 책이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배신자들에게는 저주의 책이 된다.

계시록 6장은 성도들뿐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함께 세상에서 겪는 절망에 관한 글이다. 특히 일곱 인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지, 그 끝을 말한 것은 아니다. 계시록의 끝은 인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계시록은 인류에게 절망을 보여 주려한 게 아니라, 희망으로 활짝 열린 미래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 주는 데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세우실 영원한 참 안식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네 필의 말과 기마자들()



계시록 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첫 번째 인을 펴낼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구약성서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시록 6장은 제5장에서 언급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공개되는 곳이다. 구약성서에도 이와 비슷한 두루마리 책과 공개된 네 마리 말들에 대한 글이 있다. 에스겔 2장 9-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고 하였고, 스가랴 6장 1-8절에는 백마, 홍마, 흑마 그리고 얼룩 점박이 말들이 나온다. 에스겔 2장의 두루마리 책은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 책과 어떤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스가랴 6장의 네 종류의 말들은 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들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은 백마와 그 말을 탄자의 거둬진 승리를 말하고 있다(1-2절). 백마를 탄자는 활을 가졌고 승리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의 조각가 부르델(1861-1929)이 1910년에 조각한 ‘활 쏘

는 헤라클레스,’ 주전 333년에 터키 이소스(Issus)에서 치러진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의 전투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 그림, 또 이 전투를 리얼하게 재구성한 영화 ‘알렉산더’는 영웅들의 폭발적인 힘과 정열을 최대치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백마 탄자는 그가 활을 가졌고, 승리의 관을 썼다는 점에서 헤라클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을 연상시켜준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서는 최후의 승자인 그리스도와 그 뒤를 쫓는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있다. 만약 이 백마 탄자가 그리스도시라면,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군주적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는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백마 탄자가 역사적인 영웅호걸들의 상징이라면, 크고 작은 국제분쟁들을 상징하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군주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점이고, 그 점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다르게 만드는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언급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기보다는 심판주와 재림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군주적 메시아 상을 보여주고 있다.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2)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은 홍마와 기마 자가 땅에서 평화를 걷어 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3-4절). 여기서 붉은 말은 내란과 동란과 같은 동족간의 전쟁을 말한다. 이런 전쟁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사의 악순환이다.

계시록 6장에서 셋째 인은 흑마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음을 말한다(5-6절). 여기서 검은 말과 저울은 기근을 상징한다(렘 14:2). 기근과 연관된 저울질에 관한 내용은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많다(겔 4:9-16, 레 26:26). 저울질은 배급을 위한 것으로써 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적은 양과 관련된다. 6절에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은 기근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열배 정도 곡물가격이 치솟은 것을 말한다. 노동자가 하루 벌어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한 사람이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 식구 정도의 가족이 먹기 위해서는 밀보다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보리를 사야한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은 기근이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말라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올리브유는 성령님의 임재를, 포도주는 부활을 상징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라면, 엘리야처럼 극심한 기



계시록 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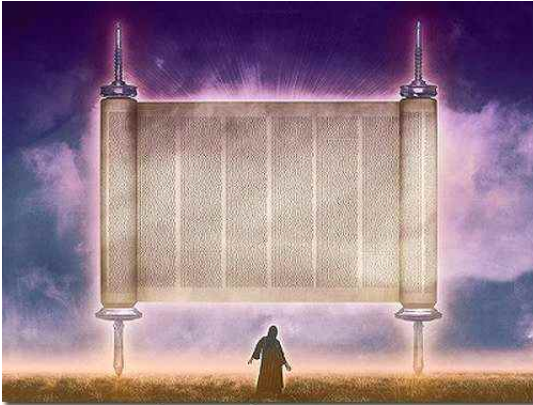
근을 당해도 타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은 청황색말과 기마 자의 이름이 ‘사망’ 이고, 음부가 뒤따르고 있음을 말한다(7-8절).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로써 전쟁과 기근을 제외한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인한 죽음을 상징한다.

이상의 네 종류의 말들과 그 기마 자들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 들로써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인류의 사분의 일이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사고와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다(8절).

승리자 그리스도30: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6)(계 6:1-17)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3)



날아가는 두루마리(숙 5:1-4)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 이십 구빗(9m), 너비 십 구빗(4.5m)
으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었다.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과 그들의 탄원을 말한다(9-11절). 그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8-9장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이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은 천체의 파멸과 최후심판을 말한다(12-17절). 일곱 인물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그린 것이고, 여섯 번째 인은 처참한 천체와 지구의 파멸을 말한다.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죽고, 하늘과 산과 섬들이 사라진다. 17절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견딜 수 있겠느냐?” 고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반시간 정도의 침묵을 말한다. 앞선 여섯 개의 인물에서 언급된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천상과 지상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일곱 번째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제7장에 언급된 대로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 낙원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말한 것일 수 있고,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을 말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인류역사의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잠시 동안의 평화로움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일곱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안식과 평화 또는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이다.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고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4)

스가랴와 계시록의 말들 비교			
순서	속1:8-17	속6:1-8	계6:1-8
1	붉은 말과 사람	병거와 붉은 말들	백마와 할 가진 자
2	붉은 말	병거와 검은 말들	붉은 말과 칼 받은 자
3	자줏빛 말	병거와 백마들	흑마와 저울 든 자
4	백마	병거와 어둡지고 건장한 말들	청황색 말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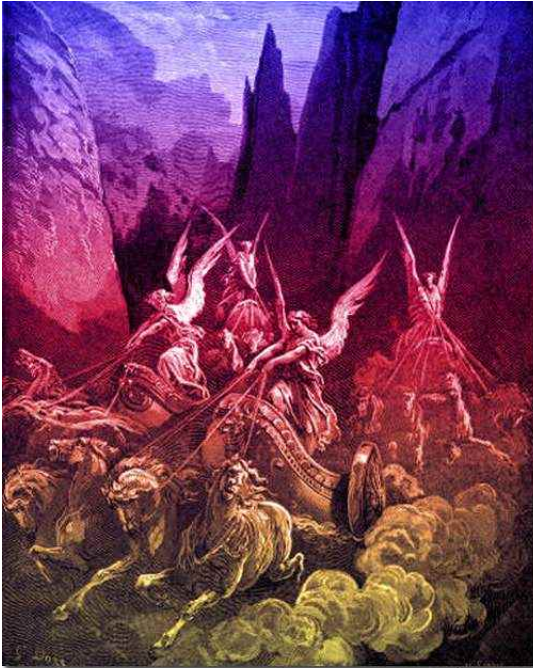
스가랴 1장 8-17의 말들과 기마 자는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스가랴 6장 1-8절의 말들과 기마 자들은 땅에 두루 다니는 하들의 네 영들(바람들)이다. 계시록 6장 1-8절의 말들과 기마 자들은 네 생물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을 보면(8:1),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8:2),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8:6)과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담는데,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질 것들이다(8:3). 그리고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8:4).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5장 8절과 8장 3절을 종합해 볼 때, 금향로에 담긴 향은 예배의 향, 곧 향기로운 예배 그자체이거나 성도의 기도들이거나, 또는 금향로 속에 예배의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담긴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광야시대 때, 성막 뜰 제단에서 피어나는 제물의 향기와 성막 지성소 앞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의 연기가 합하여 지성소 서편 끝 법궤 뚜껑 위 시온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로 피어들었던 것의 원형과 실제로서 천상성막 지성소의 보좌를 웅위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상달되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한 예로써 소개된 기도가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다(6:9). 이 탄원은 6장 10절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다.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주시며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고 하셨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다.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5)



두 뿔이 뿜는 산 사이에서 나온 네 대의 병거(계 6:1-8)
이 병거들은 하늘의 영(비angel)들로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이고,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이며(엡 1:17-18), 귀가 열린 자이며, 깨닫는 자이다. 눈을 떠서 우주의 주관자이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되어져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카이로스)를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된다. 계시록은 끝내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과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응보(네메시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상세히 보여준다.

계시록 4-6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은 온 우주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둘째, 인류역사는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이고,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이며(엡

승리자 그리스도31: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1)(계 7:1-17)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1)



계시록 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과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4,000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7장은 천상의 환상이다. 지상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을 피한 구원받은 큰 무리에게 주어진 안식에 관한 환상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 한 것처럼, 이들 천상에 운집한 셀 수 없는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환상에서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과 지상의 저주받을 백성이 구별되고,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 103:12),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나온다. 그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

이’는 동서남북 지구를 말하고,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2절) 자들이다. 그들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에 놓일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던 네 천사들과 관련된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위한 고난을 당할지언정 결코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묶은 영생의 복이지 저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3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두 백성의 철저한 분리는 구약성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모형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심판에서 볼 수 있다(창 6-8장).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는 안전한 방주에 피신하여 재앙을 면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재앙을 당했다.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사람들과 창일한 물속에서 참담하게 죽어 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대홍수는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2)



계시록 7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과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4,000을 묘사하였다.

히브리 민족과 열 가지 재앙들을 고스란히 당한 이집트인들에서 볼 수 있다.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계시록에서 말한 ‘인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양의 피를 발라 장자들과 모든 만배의 죽음을 면한 히브리인들의 안도와 시체들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장자재앙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네 번째 모형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해변에 운집하여 부르는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와 붉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이집트 마병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홍해의 물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계시록은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시편 1편의 노래처럼,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두 번째 모형은 소알로 피신한 롯과 두 딸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불행한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안전한 곳에 피신한 롯과 두 딸의 안도와 불세례를 받아 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소돔의 멸망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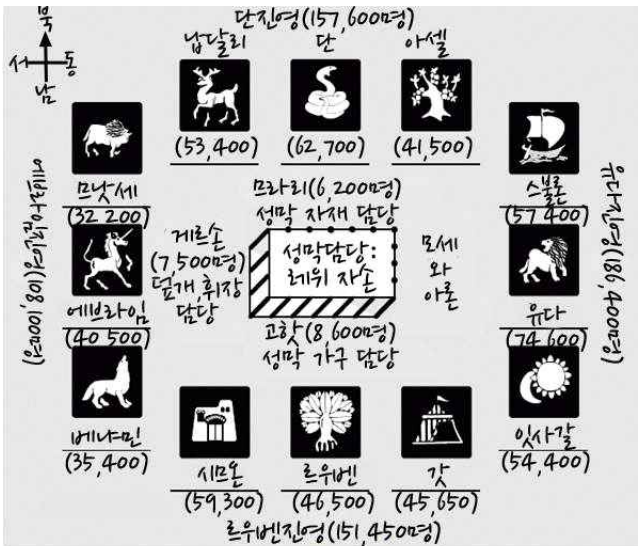
세 번째 모형은 출애굽 사건 때 열 가지 재앙을 면한 고센 땅에 분리된 히

보여준다.

신약성서에는 ‘인침’ 곧 ‘도장 찍음’이란 말이 여러 번 쓰였다. 특히 바울은 구원의 상징인 천국 ‘기업’ (땅)의 ‘약속’ (약정서)의 ‘보증’ (선수금)과 ‘인침’ (인감 찍음)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14절과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 말씀하셨다. 따라서 ‘인침’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인침’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계시록 7장 4절에 유대인 열두지파에서 인 맞은 자가 십사만 사천 명으로 나온다. 각 지파마다 일만 이 천 명씩 선별되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3)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역사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어왔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민 13:11)로 불렸고,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넣어 지파족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계시록 7장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들어간 대신에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다. 단 지파의 경우, 확실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같다. 다른 지파들은 후손

들이 생존해 있는 반면, 단 지파만큼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일 것이란 억측도 있지만,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십사만 사천’은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 집단일 수도 있고, 다른 집단일 수도 있다. 만일 다른 집단이라면, ‘십사만 사천’은 열두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힌 유대인 집단일 것이고, ‘십사만 사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집단이라면, ‘십사만 사천’이 문자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144,000은

144x1000에서 나온 숫자인데, 계시록 21장 17절을 근거로 볼 때, 144(큐빗)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이고, 1,000은 ‘영원’을 뜻한다. 또 144는 12x12에서 만들어진 숫자이다.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할 수 있다. 또 12는 3(하나님)x4(세상/땅)에서 나온 숫자일 수 있다. 3은 성 삼위 하나님을, 4는 세상과 땅을 의미한다.

중요하고 명백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문자적인 12,000명씩 144,000명만 선택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숫자는 지나치게 운명적이고 획일적이며,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신구약성서 메시지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십사만 사천’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숫자로 볼 수밖에 없고, ‘십사만 사천’이란 숫자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닌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십사만 사천’은 9절에 언급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와 동일한 숫자이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10절)고 외치며,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계 15:2-3).

승리자 그리스도32: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2)(계 7:1-17)

환란과 재앙의 차이(1)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의 한 장면
그리스도와 성모를 봉위한 인물들은 모두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다. 성모 밑에 뜨거운 석회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한 라우렌티우스를 건너편에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울로매가 칼과 인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그 인피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었다. 그리스도의 좌측에 예수님의 엄귀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병사 롱기누스, 그 아래 모세와 열쇠를 쥐는 베드로, 베드로 앞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친 헬레나, 베드로 뒤편에 바울, 베드로의 발밑에 요셉을 묘사하였다. 베드로의 얼굴은 당시 교황 바오로 3세의 동안이라고 한다.

‘십사만 사천’은 14 절의 말씀처럼, 큰 환란을 당하였지만, 춘향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빨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재앙’하고 다르다. 환란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잠시 받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재앙은 불신자들이 당할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계시록 7장은 성도들이 ‘대 환란’을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장면이다. 이들 승리자들이 받을 보상과 위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친히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고픔, 목마름, 태양열, 눈물은 큰 환란의 내용이자 상징들이다.

순교사를 보면, 박해 중에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다. 곤장, 주리틀림, 각종 고문, 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런 것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라고 한다. 그래서 일까?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 49장 10절에서 발견된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환란과 재앙의 차이(2)



미켈란젤로의 ‘초루의 심판’의 상층부의 한 장면 그리스도와 성모를 옹위한 인물들로서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다. 십자가 주변에 요한, 막달라 마리아, 니코데모가 묘사되었고, 3-4세기 성인들인 세바스티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아르메니아의 성인 블라시오 등이 요셉과 함께 묘사되었다.

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우주적인 것보다 민족적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묘사된 우주적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순수 인간 메시아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천상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넷째,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유대왕국으로써 천년왕국이 출범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있을 문자적 또는 유대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죽은 직후부터 낙원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후에는 즉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

이사야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난 메시아상은 유대교인들이 고대하는 ‘군주적 메시아상’ 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상은 모성적이고 어린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양 구세주이다. 이 메시아상은 유대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독특한 메시아상이다. 그러나 계시록에서의 메시아상은 어린양으로 설명되기는 했어도, 부정적이고 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재림주이시다. 천상 보좌방의 어린양으로 묘사된 것만 아니라면,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더라도 다른 점이 더 많다.

첫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내세적이지 않고 현세적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묘사된 천상의 메

한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7장의 장면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보상과 위로를 받는 낙원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천국생활을 맛보고, 죽어서 낙원에 이른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게 된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

환란과 재앙의 차이(3)



미케일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음부의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진다.

요한이 살았던 때에는 로마제국이 천하를 지배하던 때로써 신사참배와 같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던 때였다. 일본은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신(神)으로 섬기는 신사(神社)를 읍과 면 단위에까지 만들고 전 국민을 참배케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천황의 사진에 경축일마다 절을 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충성을 시험하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려 함이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1938년에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연회가 각각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이후 장로교와 감리교는 총회 차원에서 일본에 굴욕적으로 복종하였다. 이때에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순교하였다. 또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때에는, 마치 64년 네로 황제 때에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 때에 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된 것처럼,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이 6일 동안에 무려 6,433명이나 일본인들의 죽창과 흉기에 찔려 죽었다.

이와 같이 로마제국은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였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모시게 하였다. 요한이 죽기 직전에 로마제국을 통치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도미티아누스는 죽은 네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으로 착각했던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주(主)와 신(神)'으로 부르게 하였다. 전 로마제국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황제를 '주

와 신'으로 고백하게 하였다.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능력의 그리스도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 닥친 것처럼, 황제숭배와 박해라는 큰 폭풍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고픔과 채찍 맞음과 옥에 갇힘과 맹수에게 찢김과 십자가에 못 박힘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깃발아래 머물 것이냐, 황제의 깃발 아래로 옮겨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보다 위대하신 분, 머지않아 악의 세력을 제압하실 분, 박해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 게임을 승리로 이끄실 슈퍼스타,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 무덤에 묻혔으나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사신 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지켜보시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놓고서 하나님의 출전명령만을 기다리시는 분,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성도를 구원할 J장군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하고자 했다.

승리자 그리스도33: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3)(계 8:1-13)

저주받은 지옥백성(1)



미켈란젤로의 '소류의 심판'의 중간층의 한 장면로 대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묘사된 한 남자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마에 땀이 난 저승사자들이 그의 다리를 단단히 휘감고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의 곁과 아래에 그려진 사람들도 우측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저승사자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내려지고 있다.

요한은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 4-6장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곧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몹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며,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방의 하나님, 게임을 진두지휘하시며 1-3쿼터의 열세를 역전시킬 슈퍼스타 또는 비밀병기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요한은, 마치 승리가 역전된 게임을 보여주듯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1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벌어진 대우 제우스와 SK나이지스와의 게임에서 대우는 3쿼터까지 60-72로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우지원이 4쿼터에서 17점을 몰아넣음으로써 대우가 SK를 91-88로 이겼다. 3쿼터까지 불과 5득점에 그쳤던 우 지원은 팀이 77-81로 뒤지던 종료 3분을 남기고 터닝슛과 골밑돌파로 1분10초 만에 83-83 동점을 만들었고, 종료 1분5초 전엔 외곽포를 터트려 85-83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으며, 87-85로 쫓기던 14초 전엔 자유투 2개를 모두 골로 연결시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그곳 시간으로 같은 날 시카고 불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합을 치렀다. 시카고 불스는 홈경기장의 이점과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키며 두 달이나 결장했던 스카티 피펜이

팀에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1-2쿼터까지 워리어스에 지고 있었고, 3쿼터에서는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는 시소게임을 벌였다. 그러나 이 경기 역시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4쿼터에서 17점을 몰아넣음으로써 87대 82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요한은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독자에게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감독이신 하나님은 게임을 승리로 이끌 명장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언제 투입해야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다. 또 그리스도는 감독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게임을 승리로 역전시킬 가장 확실한 우리의 영웅이시란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깃발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이기고 포상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은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7-9장과 14-16장의 말씀이다.

저주받은 자옥백성(2)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지옥의 모습
상단의 그림들은 중간층에 묘사된 생명책과 천사의 나팔
이며, 이마에 별이 난 저승사자들에게 불로려와 뱀사공
카론에게 넘겨진 영혼들이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에 실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다.

주실 것이다(7:16-17). 그리고 그들은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14:2-3).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거짓 선지자의 호리는 말에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받게 될 재앙이 8-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이요, 16장에 나

계시록 7장과 14장은 고난당하던 성도가 구원을 받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서는 말한다(14:4-5). 이들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보좌 앞에 계신 어린양이 이들의 목자가 되사, 이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들 재앙은 피 섞인 불과 우박으로 인한 것으로 썩어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가 피해를 입거나 황충의 피해나 전갈의 쏘임과 같은 괴로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저주, 독종, 지진, 우박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 이들 재앙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 세력이 앞으로 지옥에서 또는 지옥에서처럼 당하게 될 극형을 표현한 것이다.

이들 재앙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 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뀐 것이다. 이들 재앙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과 14장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사탄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이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된다. 이는 천상과 지상 또는 천국과 지옥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천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고, 승리의 노래와 즐거움이 있고, 안도의 한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평화와 위로가 넘치지만, 지상에서는 저주와 재앙과 비극과 슬픔과 괴로움만이 있다.

저주받은 지옥백성(3)

계시록에서 천상과 지상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천상과 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천상에만 있고, 재앙이 반드시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죽은 후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는 천국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지옥에서의 저주의 슬픔이 확연히 구별되겠지만, 그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과 16장의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미켈란젤로(1475-1564)가 그린 ‘최후의 심판’ 벽화, 아드리엔 콜레르트(c. 1560-1618)가 그린 ‘최후의 심판’ 판화, 오귀스트 로댕(1840-1917)이 조각한 ‘지옥의 문’ 처럼, 한 눈에 보여준다. 그 장면의 절반에는, 마치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이 무서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받고 있고, 다른 절반에는, 마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서운 재앙들은 적대 세력인 사탄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요, 재앙이지만, 고난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지옥의 모습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의 모습이다. 미노스는 당나귀
귀를, 마귀들은 뿔을 갖고있다. 뿔이 미노스의 몸을 휘감은 채
그의 고추를 깨물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미노스의 얼굴로 교황의
의전관이었던 루기제 비아리오 체세나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난 천상의 백성의 모습과 8-9장과 16장에 나타난 지상의 백성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7장과 14장에 나오는 천상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던 자들이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8-9장과 16장에 나오는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며,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목자 되신 어린양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생명수 샘을 마시며,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7:9-17; 14:3-5; 15:2-3).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군사가 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14:9-11).

승리자 그리스도34: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4)(계 9:1-21)

일곱 나팔재앙(1)



계시록 8-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1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나팔
재앙을 묘사하였다.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극명한 분리와 대조를 통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내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도 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요즘처럼 크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인내가 더욱 요구된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의 내용은 다른 성경구절들과 견주어 볼 때,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54장 7절을 보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 고 노래하고 있고, 시편 118장 5-9절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고 노래하고 있다.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고 말한다.

계시록 8-9장은 일곱 나팔재앙에 관한 환상이다. 7장에서 일곱 나팔재앙을 피한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에 관한 천상의 환상을 보여준 후 연이어서 8-9장에서 나팔수인 일곱 천사들이 순서대로 부는 나팔소리와 함께 지상에 쏟아지는 일곱 가지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준다. 8장에 처음 네 개의 재앙들이 나오고, 9장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나온다. 그리고 한 장 건너 뛰어 11장 15-19절에 일곱 번째가 나온다.

일곱 나팔재앙(2)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일곱 번 인봉된 두루마리 책에서 일곱 개의 인을 한 개 한 개 차례로 떼시는 분은 어린양 한 분뿐이시다. 첫 번째부터 넷 번째 인까지는 역사의 악순환으로써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인해서 닥친 죽음을, 다섯 번째 인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죽음을, 여섯 번째 인은 천체와 지구의 죽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일곱 나팔재앙은 나팔수들인 일곱 천사들이 한 분씩 차례로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다른 여섯 개의 인이 소개된 6장에 함께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 뛴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재앙도 나머지 여섯 개

의 나팔재앙이 소개된 8-9장에 함께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 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15-19절).

셋째, 일곱 번째 인이 앞선 여섯 개의 인들에서 언급된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천상과 지상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

를 갖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도 이중적이다.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반시간 정도의 침묵을 말한다. 여기서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제7장에 언급된 대로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 낙원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을 말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19절에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의 침묵과는 달리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나라가 될 것과 상벌에 관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고, 이어서 천상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였다. 그러고 나서 10-13장에 소개된 중간계시들을 잠시 보여준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14-15장에서 구원받은 천상백성의 모습을, 16장에서 무서운 일곱 대접재앙들을 보여준다.

일곱 나팔재앙(3)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제단 7월에 선 금향로를 가진 천사와 천사들의 네가지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넷째, 일곱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안식’과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이다.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고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 8장 1-5절은 일곱 나팔재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을 보여준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을 보면(8:1),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8:2),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8:6)과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담는데,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러질 것들이었다(8:3). 그리고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8:4). 이 일을 하는 천사의 이름이 ‘라파엘’로 알려져 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5장 8절과 8장 3절을 종합해 볼 때, 금향로에 담긴 향은 예배의 향, 곧 향기로운 예배 그자체이거나 성도의 기도들이거나, 또는 금향로 속에 예배의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담긴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광야시대 때, 성막 뜰 제단에서 피어나는 제물의 향기와 성막 지성소 앞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의 연기가 합하여 지성소 서편 끝 법궤 뚜껑 위 시온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로 피어들었던 것의 원형과 실체로써 천상의 성막 지성소의 보좌를 웅위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상달되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한 예로써 소개된 기도가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흘린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다(6:9-10).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주시며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다.

승리자 그리스도35: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분리(5)(계 9:1-21)

일곱 나팔제앙(4)



계시록 8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고통과 제단 곁에 선 금향로를 가진 천사와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들과 네가지 나팔제앙을 묘사하였다.

요한 계시록 8장 3-5절을 보면,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렸던 천사가 이번에는 같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이 있었다는 11장 19절의 말씀과 동일하다. 금향로에 관련된 이들 구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첫째, 천사가 손에 든 금향로에 담긴 것이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향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향을 태우는 불이다. 그런데 향은 태워져 그 향기가 천상의 보좌에 상달되고, 불은 향을 태운 후에 잿더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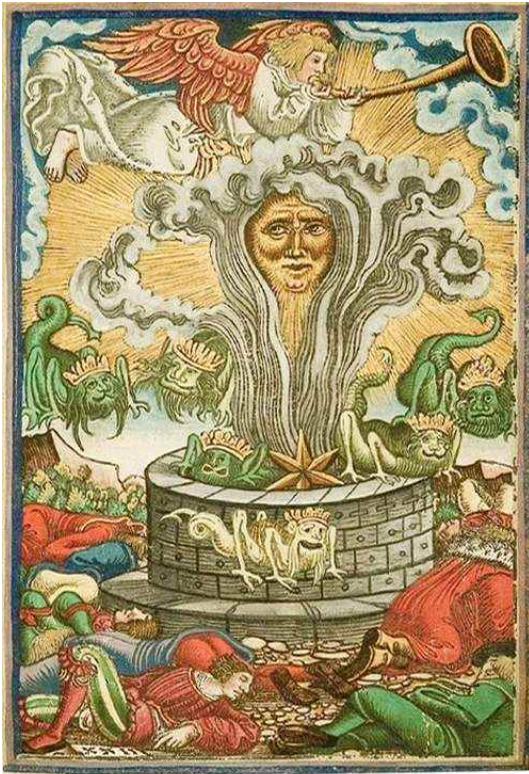
에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불은 잿더미의 쓰레기들을 태우게 된다. 예루살렘에는 힌놈골짜기란 곳이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 (Gehenna)라 불렸다(마 5:22, 막 9:47). 이곳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곳이었고, 또 동물과 죄인의 시체를 화장하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던 부정하고 음산하고, 늘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 골짜기였다. 그래서 이곳 ‘게헨나’ 는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참고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원과 천국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갖는 견해만큼이나 다양하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에덴동산(Gan Eden)에 연결되고, 지옥은 ‘게힌놈’(Gehinnom) 곧 ‘힌놈의 골짜기’에 연결되는데, ‘게힌놈’은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말하며, ‘게힌놈’의 불은 지상의 것보다 60배나 더 뜨

겹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첨가되었다. 다만 '게힌놈'은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연옥과 같아서 '다가올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며, '게힌놈'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둘째, 금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의 상징이고, 향을 태우는 불은 그들을 연단하는 박해를 상징한다. 그러나 연단의 불이 강할수록 향은 더 빠르게 타고, 그 향도 진하게 하늘로 피어오르게 된다. 그러나 향을 태운 불은 쓰레기더미에 버려지게 되고, 불과 연기를 피어오르게 한다.

일곱 나팔재앙(5)



계시록 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
이자 첫 번째 화를 묘사하였다.

셋째, 금향로에 담긴 향과 불은 천국과 지옥의 백성, 천상과 지상의 백성을 각각 상징한다. 또 향은 구원과 축복을, 불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제단 곁에서서 금향로에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담아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지만,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위해서는 제단 위에 불을 담아가 땅에 쏟고 있다. 불을 쏟는 천사의 행위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펼치기 위한 무대의 막을 여는 징소리와 같고, 그 불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지게 된다.

넷째, 이런 점들 때문에 향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분향하는 그릇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재앙의 불을 쏟아내는 그릇이다. 평상시에는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태우는 그릇으로 쓰이지만, 심판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진 불처럼 저주의 불을 쏟아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인다.

민수기 16장은 계시록의 향로와 불의 의미를 밝혀주는 모형적 사건이다. 민수기 16장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

다 놓고, 성막 문 앞에서 생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험을 펼치는 장면에 관한 기사이다. 사건의 발단은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250개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였다. 결과는 모세와 아론의 향로들 위에 피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나머지 250인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이 일을 원망하다가 염병에 걸려 추가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다. 족장들의 죽음은 향로의 불에 의한 것이고, 염병에 의한 죽음은 불티와 재 곧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향로는 염병을 멈추는 일에도 쓰이고 있어서 생사를 결정짓는 그릇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요하고 전통적인 개념들 가운데 한 가지는 축복이 지상에서 천상의 보좌에 올라가고, 저주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쏟아진다는 점이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콜레르트의 ‘최후의 심판,’ 로댕의 ‘지옥의 문’이 그렇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프레스코 벽화이고, 콜레르트의 ‘최후의 심판’은 판화이며, 로댕의 ‘지옥의 문’은 조각이다. 세 작품 다 구원받을 사람은 위(천국)를 향하게 하였고, 저주받을 사람은 아래(지옥)로 향하도록 하였다.

일곱 나팔재앙(6)

나팔은 전투에서 경고와 공격신호에 쓰인다. 나팔재앙과 관련해서 가장 특이한 구약성서의 모형적인 사건이 여리고 전투이다. 히브리 군사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았고, 제사장 일곱이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였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나서 나팔수들이 양각나팔을 일제히 길게 불었으며, 군사와 백성들이 목청껏 합성을 질렀다. 나팔과 고함소리에 그만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수 6장).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재앙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지만, 계시록의 기록 목적으로 볼 때,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메시지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불신자들과 박해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쓰였다. 따라서 나팔재앙은 그 첫 번째 경고가 된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도는 33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강도가 약해서 일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 9장 20-21절에 적고 있다. 이 말씀의 모형은 출



계시록 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애굽 당시 바로의 강박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강박한 마음은 결국 더 큰 재앙, 곧 100퍼센트 강도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뒤따라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재앙은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기도의 응답이다. 여리고 전투에서 보듯이 나팔소리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절망의 소리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소리이다. 재앙은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한 공격전 개시사격과 같은 것이며, 재앙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해도 그것은 적진에 국한된 것이다. 9장 4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재앙은 그 모형을 출애굽 사건 때의 열 가지 재앙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차례로 피가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한 삼분의 일 재앙(출 9:13), 피로 인한 바다 삼분의 일 재앙(출 7:14f.). 강의 삼분의 일이 쓴물이 되는 재앙(출 15:23/ 마라), 해, 달, 별 삼분의 일이 피해를 입는 재앙(출 10:21f/ 흑암). 황충으로 인한 괴로움(출 10:1-20), 사람 삼분의 일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는 말과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재앙(출 11-12장/ 사망)이 다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열 가지 재앙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열 가지 재앙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랜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가져다주었듯이, 계시록에서의 재앙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요, 믿음과 인내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승리자 그리스도36: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I)(계 10:1-6)

힘센 천사(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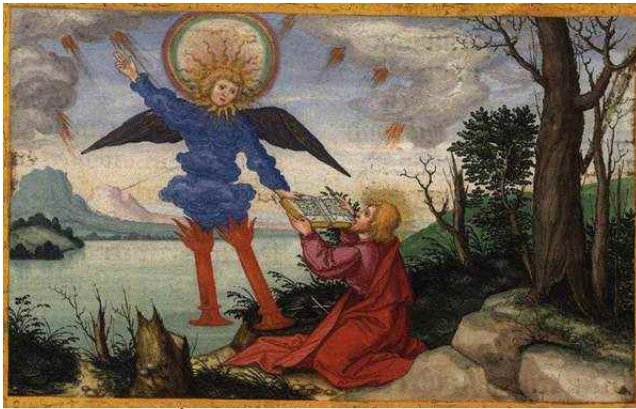
독일어 성경(Das Neue Testament,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가 묘사되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
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
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
며” 에서 ‘힘센 천사’ (another
mighty angel)는 5장 2절의 ‘힘
있는 천사’ (a mighty angel)와 동
일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힘
센’과 ‘힘 있는’은 같은 표현
으로써 영어로 ‘mighty’라 한
다. 다만 이 구절에서 묘사된 천
사의 모습은 10장 1절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구름을 입고 하늘
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고 했다. ‘힘센 천사’에 대한
이들 표현들에서, 먼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는 재림
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는 4

장에서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닮았다. 또 ‘그 얼굴은 해 같
고’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는 1장에서 본 ‘인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들 묘사들은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말한 것으로써 높은 위치의 천
사임을 말한다. 이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계시
록은 그리스도를 속죄양인 어린양으로 묘사하고 있고, 천사로 낮춰 부른 적
이 없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를 미가엘로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가
5장 3절에서 큰 음성으로 외친 질문,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
당하냐?”는 ‘미가엘’의 뜻풀이인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와 비슷하

다. 13장 4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힘센 천사’가 미가엘일 것이라는 믿음이 커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와 그 책과 연관된 ‘힘센 천사’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고 외쳤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의 뜻을 가진 미가엘 천사가 한 팀을 이뤄서 사탄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는 이름을 가진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팀, 곧 용과 짐승의 팀을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쳐 이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13장 4절의 말쑈,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그를 향해 외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는 허풍에 불과한 종이호랑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힘센 천사(2)



계시록 10장 (Matthias Gerung,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채색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다 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그리스도께서 책을 다 펼치신 후에 ‘힘센 천사’에게 넘기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힘센 천사’의 손, 아마도 왼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본다. 원래 이 책은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고, 그 책을 받아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면서 펼쳐 보인 분은 어린양 그리스도이셨다. 그 책을 ‘힘센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줘서 먹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봉되어 그 내용이 감춰져 있던 두루마리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 그 내용이 계시되었고, 그것을 ‘힘센 천사’가 받아 들고,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후에 사도 요

계시록 10장 2절 상반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에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은 아마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 인봉을 다 떼고 내용을 밝힌 그 두루마리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5-6장에서 본 두루마리가 작은 책이 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작

한에게 전달하여 먹게 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한 말씀과도 일치한다.

계시록 10장 2절 하반절,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에서 바다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음부의 상징이고, 땅은 거짓선지자가 지배하는 음란한 세상의 상징이다(13장). 이 둘을 밟고 설만큼 ‘힘 있는 천사’ 라면,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싶다.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난다. ‘미가엘’ 이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란 뜻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천사이다.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악한 영적 세계의 최고수들이라면, 그리스도와 미가엘은 선한 영적 세계의 최고수들이다.

계시록 10장 3-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에서 주목할 점은 ‘힘센 천사’ 가 사자의 우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뇌성들이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힘센 천사(3)



계시록 10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퍼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6장 1절에서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뇌성 같은 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10장에서 말하는 일곱 뇌성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뇌성들이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뇌성은 번개와 함께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음성으로 간주된다(출 19:16, 20:18). 실제로 앞에 나온 수식어 ‘일곱’ 이 뇌성을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시켜 준다.

계시록에서만 세 번이나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뇌성과 번개와 음성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계 4:5, 11:19, 16:18). 일곱 뇌성이 발한 소리들은 기록하지 말라하였으니, 그 비밀을 알 자가 없다. 기록이 없으니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에 대한 암시가 7절에 있고, 그 해답이 11장 15-19절, 곧 일곱 번째 나팔에 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에서 ‘사자’를 5장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칠 때에 24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유대지파의 사자”란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5장과 10장의 ‘힘센 천사’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계시록 10장 5-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에서 ‘힘센 천사’의 행동은 일종의 서약 혹은 맹세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천사는 오른 손을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 맹세를 전투에 임하는 군대의 대장군이 출정식에서 황제에게 하는 맹세와 같다고 보면 어떨까? 그렇다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한 것이며, 이 말이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불신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

승리자 그리스도37: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2)(계 10:7-11:2)

함선 천사(4)



계시록 그리스 우표(1995)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환상,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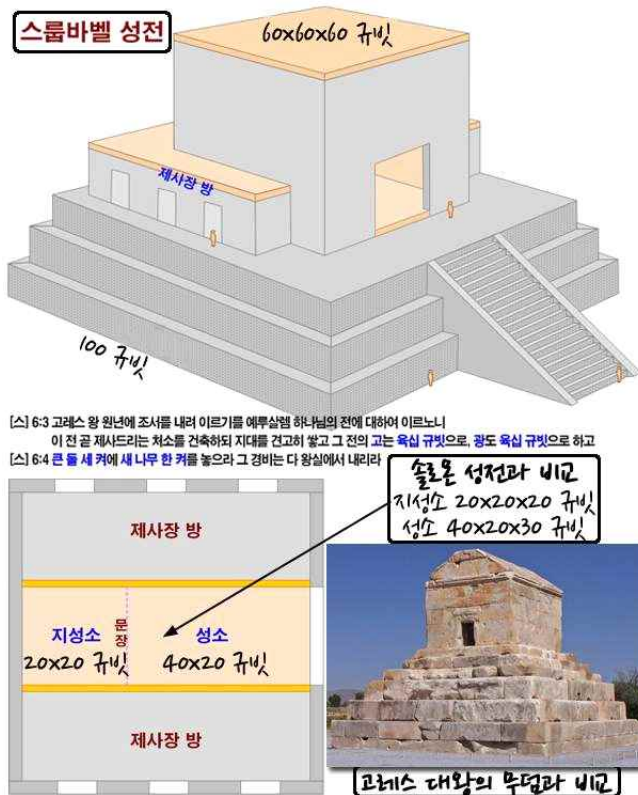
소리와 함께 하늘의 큰 음성들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는 것이다. 이때에도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는데, 언약궤 덮개 위 시온소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한 것이고, 그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4절의 일곱 뇌성이 발한 음성들의 비밀은 7절의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것이고, 그 비밀의 성취는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용사인 미가엘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10장 8-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퍼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갓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의 평행구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있다. “인자야 내가 네게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는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기록된 11장 15-19절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을 재앙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팔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힘센 천사(5)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책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에스겔서의 말씀들로 보서는 동일한 책일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책이라면,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 된다. 배에 쓴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그 내용의 일부가 이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재앙들에서 드러났다. 책의 내용이 입에 꿀처럼 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내용이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희망과 위로

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에 쓴 것은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불신자들을 심판할 저주의 메시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배에 쓴 것은 악한 자들의 멸망을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걱정하고 마음아파하기 때문이며, 그들로부터 당하는 환란과 핍박 때문이다.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는 1장 1-3절에서 밝힌 대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경륜의 뜻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밝혀졌고, 그 내용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였고, 요한이 계시록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10장 6절에서 ‘힘센 천사’ 는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 고 맹세하고 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뤄진다.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뤄진다.

계시록은 회복(回復)과 반전(反轉)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11장 1-2절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힌 예루살렘과 성전회복에 연관된 말씀으로 시작된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는 에스겔 40-43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는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회복에 관한 환상이 나온다. 이 환상은 제2차 유배(597 B.C.)후 25년, 제3차 유배(586 B.C.) 후 14년이 된 주전 572년에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으로써 재건될 성전의 뜰들과 부속 건물들과 각 방들의 길이와 폭을 ‘측량’ 하는 장면이다. 성전은 이 환상이 있고난 후 56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다.

두 중인()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에서 “성전 바깥마당” 은 성전의 여러 뜰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광장을 말한다.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각각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던 곳이다. 로마제국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허용된 뜰을 넘어 미문 안쪽 성전영내 곧 ‘여성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들 뜰을 침범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성전영내의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바깥뜰의 이방인들로 구별한데서 계시록의 천상과 지상백성의 분리의 모형을 찾을 수 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는 말씀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는 말씀은 구원 받은 백성과 심판받을 백성의 구별과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영내에 속한 자들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성전영내에 들어갈 자격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다. 계시록 5장과 7장은 이미 ‘보좌에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한 것으로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
하는” 요한과 “두 증인” 및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묘사하였다. 16세기의 성당과 사제 복식을 엿볼 수가 있다.

앉으신 이’의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을 보여줬고, 그들의 수가 ‘144,000’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바가 있다. 따라서 11장에서의 ‘측량’은 7장에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란 말씀과 동일개념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절에서 ‘이방인의 뜰과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게 두라’는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거룩한 성전에 들지 못한 자들로써 닥쳐올 세 번째 화인 일곱 대접재앙을 받아야할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42개월 곧 3년 6개월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들 하나님의 적대세력에 의해서 3년 6개월 동안 핍박받게 될 자들은 11장에서 ‘두 증인,’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13장에서는 ‘성도’들이다.

승리자 그리스도38: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3)(계 11:3-4)

두 증인(2)



계시록 1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룡이 묘사되었다.

3년 6개월은 성도들이 겪는 환란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는 역사성을 가진 기간이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와 ‘미가엘’과 ‘증인’(목회자)과 ‘성도’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팀과 ‘용’(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악한 자들’로 구성되는 사탄의 팀 사이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사탄의 팀이 짧은 3년 6개월간 승세를 잡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의 권세도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불과하여, 때가 되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력해지기 때문에 싸움은 반전(反轉)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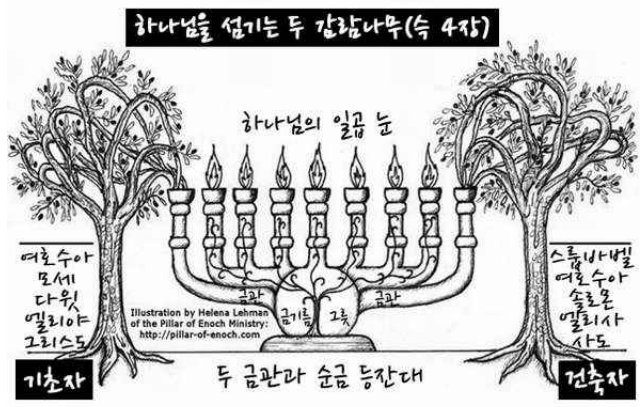
계시록 11장 3-13절은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다. 이들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한다. 이들의 예언활동 기간도 1260일 곧 3년 6개월이다. 1-2절에서 이방군대의 약탈 기간이 월단위로 표시된 반면, 3-13절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활동 기간이 날 짜단위로 표시되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영웅들이며, 두 분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들이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엘리야를 침례 요한의 모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할 자로 본 경향이 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던 시기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이 분들은 하나님께 강력하고 특별한 권능을 받아 활동했다. 이 분들이 굶은 배움을 입고 예언한다는 표현은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망선고를 받은 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각각 바로와 아합을 대항해서 싸웠다. 그들은 각각 자기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4절에서 이분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로 묘사된 것은 이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밝힌 등불이었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는 등잔대의 등잔에 넣을 기름을 짜는 올리브가 열리는 나무이고, 등잔대의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성도, 특히 주의 종들은 어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두 증인(3)



성도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채워 세상을 밝히는 등잔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채워 세상을 밝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계시록 11장 4절에 언급된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는 이어지는 말씀들로 볼 때 모세와 엘리

야가 분명하지만,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에 관한 환상의 모형은 스가랴서 4장에 있다.

스가랴 4장에서 일곱 개의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원통그릇에 금 기름을 채우는 두 감람나무는 무너진 솔로몬성전을 재건축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 성전은 20년(536-516 BC)만에 완공을 보았지만, 솔로몬성전보다 작고 불품은 없었다. 하지만, 토박이들의 극심한 방해와 극한 가난 속에서 일궈낸 값진 열매였다. 이 두 사람은 주전 537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42,360명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파괴된 솔로몬성전을 재건축한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 혹은 하나님의 편에 선 일꾼들로서 여호수아는 기초자이고, 스룹바벨은 건축자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란 마차를 끄는 쌍두 또는 그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도들과 장로 목사들이 모두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이스라엘이란

마차를 끄는 쌍두 또는 그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상징된 메노라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금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이었다. 성소의 메노라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였다.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는 등불이 커지는 상황을 막고 등불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계시록 11장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란 구절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지칭한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땅과 율법을 갖게 해주었고, 엘리야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되찾아 놓은 인물이다. 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사역의 지속성과 관련 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과 장로목사들로 이어진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

가나안땅을 희망한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희망을 성취시킨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떠돌이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요단 강변까지 인도한 첫 번째 그리스도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땅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떠돌이노예들인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쳐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떠돌이노예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준 용사였다.

두 증인(4)



모세와 여호수아가 협력하여 히브리 열두 부족에게 빵과 명예와 주권을 갖게 해준 것이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며,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의 모형이다. 생명의 양식과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과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열두 부족동맹을 통일시켜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왕이었다. 또 시온 산에 하나님을 모실 성전건축을 희망하고 준비한 최초의 왕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희망을 성취시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최초의 왕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다윗왕국과 솔로몬성전을 모두 빼앗긴 채 또다시 떠돌이노예 신세가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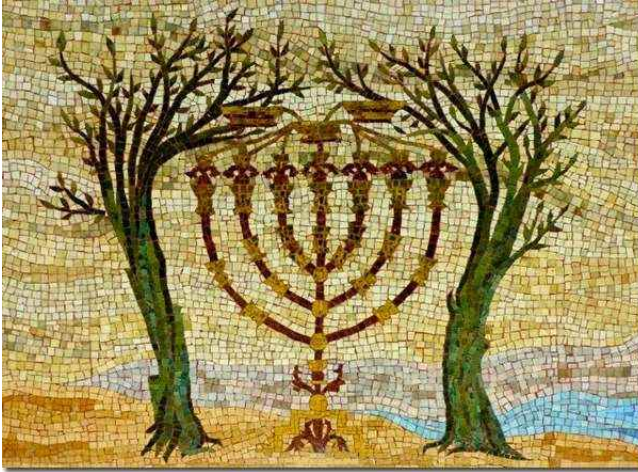
말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혹은 스룹바벨에게 메시아적 희망을 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천 6백 년째 제2모세 혹은 제2다윗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오시면 빼앗긴 주권과 추락한 명예와 성전예배를 복원시켜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 곧 다윗왕국과 성전재건과 성전예배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이스라엘나라를 회복된 나라로 보지 않는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야훼신앙이 붕괴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다. 주전 885년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 알린 강력한 왕이었지만, 아들 아합(874-853B.C.)을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동맹을 맺게 한 인물이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이방민족들과 결혼동맹을 맺은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종교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게다가 나이든 솔로몬은 젊고 예쁜지만 사특했던 이방인 부인들이 요구하는 신당행사 참여를 뿌리치지 못하였다.

오므리가 아들 아합과 결혼시킨 옛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교활한 여인이었다. 솔로몬처럼 아합은 이세벨의 사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서 야훼신앙이 폐지되고 바알 신앙이 강권되었다. 이 위기의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영웅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상황을 깔끔히 종결시킨 것은 아니다. 모세와 다윗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역할도 제한적이어서 여호수아와 솔로몬처럼 마무리작업은 엘리사가 처리하였다. 엘리사는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예후는 이세벨의 후손들과 바알 사제들을 처단하여 이스라엘에는 단 한명의 바알 사제가 남지 않게 하였다.

승리자 그리스도39: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4)(계 11:5-19)

두 증인(5)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모자이크, 속 4장, 계 11장)

예수님은 오실 자 제2 모세 혹은 제2다윗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추락한 명예와 빼앗긴 주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류를 하느님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나라의 시민과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획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과 머리 또 몸이 되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다.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 다윗, 엘리야처럼 제자들과 이취임식을 가졌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 나온다.

부활하신 날 밤에 가진 식(式)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며, 하늘 가나안땅 정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셨다.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또 모세가 지상 가나안땅 정복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해서, 엘리야가 야훼신앙복원을 위해서 후임자에게 능력을 덧입게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자요 전임자였던 바울도 건축자요 후임자인 장로들을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으로 삼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목사로 삼은 자들이라고 칭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자와 건축자 혹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세상을 밝힐 기름공급을 위해서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선 두 감람나무이다.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

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과 장로목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고 건축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며,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감람나무들이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6절).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10절). 또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땅의 주님 앞에 서있는 자들이다” (14절).

두 증인(6)



계시록 11장 11-14절(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동이 묘사되었다.

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는 출애굽기 7-12장의 열 가지 재앙들에서 그 평행구를 찾을 수 있다. 이들 구약성서의 평행구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 승천을 대표한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탄에게 죽임을 당한다. 사탄은 음부의 사자이다. 8절에서 증인들이 죽어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0-12절의 말씀에서 평행구를 찾을 수 있고, 6절 상반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는 열왕기상 17-18장의 상황에서 평행구를 찾을 수 있다. 또 6절 하반절,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화

시체로 있던 곳을 영적으로 ‘소돔’ 혹은 ‘애굽’ 이라 부른 예루살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고 했다.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싫어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고 하였다. 주의 종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배척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3년 6개월 동안 배척당하시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무덤은 주님을 가둬 두지 못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낸 것처럼, 무덤은 삼일 만에 주님을 토해냈고,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승천하였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 수레와 불 말들 사이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고 (왕하 2:11), 모세는 죽어서 시체로 승천했다는 설이 있다. 신약성서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는 기록이 있듯이, 고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체가 땅에 묻혀 썩지 않고 승천했다는 ‘몽소승천’ 을 믿었다. 11-12절의 말씀이 이들의 승천을 반영한 글이다.

두 증인(7)



계시록 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14절 이하는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다.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다.” 는 말씀이 있다. 9장에 이들 세 번의 ‘화’ 들 가운데 두 개가 나온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는 선포가 있고, 15-19절에 세 번째 ‘화’ 인 일곱 번째 나

팔이 나온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은 재앙이라기보다는 더 무서운 재앙, 나팔재앙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한 일곱 대접재앙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마치 일곱 번째 인의 침묵이 일곱 나팔재앙을 끌어드리기 위한 고요였던 것과 같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 라고 외친다.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침묵이 흘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서 16-17절에서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고, 지금이 심판과 보상의 때임을 선포하고 있다.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고, 보상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소리, 곧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요, 핵심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시련기간을 짧게 정하시고, 그 기간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잘 참고 끝까지 이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짧게 표현된 시련의 상황이 영원한 영광의 상황으로 반전(反轉)되고, 회복(回復)되며, 기도와 소망이 이뤄지고, 구원이 이뤄진다.

승리자 그리스도40: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5)(계 12:1-4)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나아이(1)



계시록 12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별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1-13장은 박해자와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 관한 계시로써 그 기간을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11장에서는 이방인 군대의 압제기간과 두 증인이 박해를 당하며 활동하는 기간을 각각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삼년 반에 관한 언급은 12-13장에서도 나온다. 삼년 반은 ‘마흔 두 달,’ ‘일천 이백 육십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단어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다. 그러나 문자적인 삼년 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징적으로 ‘시련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년 반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874-853 B.C.)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숭배를 강요하던 기간에서 유래된 것이다(왕상 18:1). 삼년 반은 다니엘서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에 헬라제국의 안티옥커스 4

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삼년 반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들로서 모두가 심각한 배교의 위협을 받았던 때였다. 예수님도 공생애 삼년 반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네로 때에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대략 삼년 반 동안 몹쓸 박해를 받았다.

계시록의 삼년 반은 성도들이 악의 세력에게 당하는 시련의 기간이지, 재앙의 기간은 아니다. 성경에는 재앙의 기간을 삼년 반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악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재앙과 환난

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계시록에서 말한 ‘큰 환란’ (7:14)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한 시련을 말한 것이고,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하는 것들은 박해세력인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작전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과 같다.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2)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즉 칠한 것으로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과 일곱 머리 열두 별에 일곱 왕관을 쓴 붉은 동이 껴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과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군사전술에 ‘공격개시 전 사격’이란 것이 있다. 이 사격은 보병의 진격명령이 있기 전에 소나기처럼 퍼붓는 포사격을 말한다. 보병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병의 진격 전에 적의 진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다른 아닌 악의 무리들에 포로로 잡힌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나기처럼 퍼붓는 공격개시 전 사격과 같다. 성도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호사다마(好事多魔), 곧 하나님이 세운 좋은 계획 속에도 사탄의 꾀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1-2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에 극심한 산통이 있음을 말해준다. 좋은 일에 어찌 시련이 없겠는가?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사내아이가 극심한 진통 후에 출생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교회’란 이름의 사내아이가 극심한 산통, 곧 ‘큰 환란’을 겪으면서 탄생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해와 달을 입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말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교회를 말하며, 이스라엘이 그 모형이다. 이 여인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 마치 출애굽 시

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극심한 진통 속에서 탄생하였듯이, 교회의 탄생도 핍박 가운데서 이뤄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해를 옷 삼아 입고 달을 신 삼아 신은 것은 의의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의 광명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한 것이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것은 그가 잉태한 민족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요, 그 모형이 구약시대의 히브리 민족임을 보여준 것이다. 유다왕국의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66장 7-9절에서 나라의 회복 또는 탄생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인가?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단겠느냐? 하시니라.”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나아이(3)

3-6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의 배후에 흉악한 사탄이 있음을 말해준다. 사탄은 구약성서에서 용으로 묘사되었다(사 27:1, 시 74:13). 그것의 붉은 빛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방한 분열과 파멸의 피를 상징한다. 용은 구약성서에서 해롭고,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서 때로는 바다에, 때로는 사막에 기거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3절,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는 말쑈는 모든 제국들과 황제들의 권세를 상징한다. 이들이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성도들을 탄압하는 박해세력들이다. 일곱 머리 열 뿔에서 ‘일곱’은 완전수이며, ‘열’ (10)도 삼(3)과 칠(7)이 합하여 만들어진 완전수이다. 그들의 권세가 완벽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권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거두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락된 것에 불과하다. 일곱 머리 열 뿔이 사람들 눈에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좌우되는 종이호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 열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네 짐승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네 짐승은 역사 속에 등장한 네 개의 제국들을 말한다. 사자는 바벨론제국, 곰은 메데 파사제국, 표범은 헬라제국,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 단 헬라제국은 알렉산더 사망이후 마케도니아왕국, 소아시아왕국, 시리아왕국, 이집트왕국으로 갈라졌으므로 머리와 날개가 네 개인 표범으로 묘사되었다. 이들을 다 합한 머리가 일곱이다.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제국이며, 열 뿔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들을 상징한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은 일곱 머리 열 뿔을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들 네 짐승들의 배후세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 12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발 아래에 달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뿔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승리자 그리스도4: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6)(계 12:5-17)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4)

순서	짐승이름	모습	짐승 그림
첫째	사자	독수리 날개가 달렸음	
둘째	곰	몸 한편을 들었고 잇 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었음	
셋째	표범	새의 날개 넷이 달리고 머리가 넷임	
넷째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철 이를 가졌음 열 뿔이 달렸음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네 짐승
요한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 열 뿔의 모형이다.

일곱 머리와 그 위에 왕관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모방 또는 위임권력일 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지만, 사탄조차도 하나님

의 손바닥에서 노는 종이호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탄의 사악한 체계는 제국들의 황제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4절에서 사탄이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생산하는 사내아이를 삼키려하는 것은 제국들과 황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상징한다.

사내아이는 그리스도이며, 모세가 그 모형이다. 따라서 사내아이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에 연결되고, 영아살해를 시도하는 사탄의 발악은 이집트의 바로와 유대의 헤롯이 저지른 역사적 사건에 연결된다. 그리고 해와 달을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는 교회와 교회가 낳아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

5절에서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 그 아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으로 올려간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호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사내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란 뜻이며, 시편 2편 9절에 예언되어져 있다.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말씀은 히브리 민

죽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후에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말한 것이다. 광야로 피신한 여인은 히브리 민족의 광야생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고, 1290일은 짧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북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안티옥커스 4세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 신앙이 극심하게 탄압을 받았던 삼년 반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아래 히브리 민족이 모든 환란을 끝내 이기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면 끝내 이기고 영원한 안식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교훈한다. 그리스도의 철장권세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철장은 왕의 홀로써 문자적으로 쇠몽둥이이며 권력의 상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이기고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나아이(5)



계시록 12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발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맛보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 사탄을 비롯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허락된 시간만큼만 노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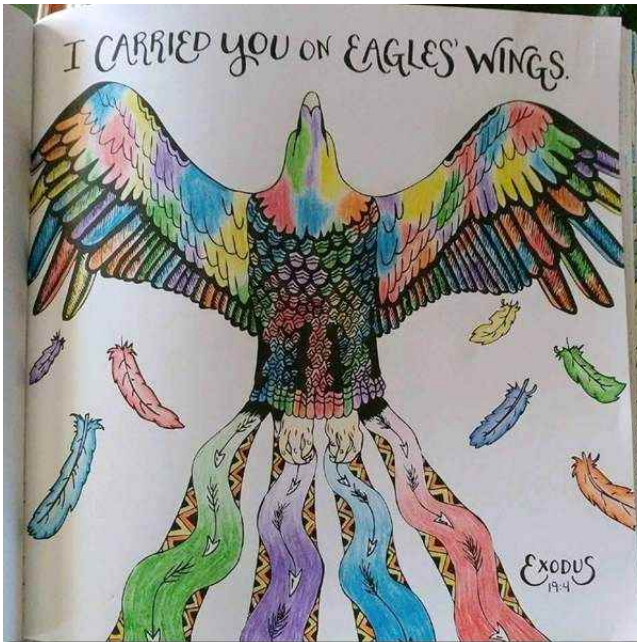
해 보일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만일 하나님이 사탄과 천사와 인간과 같은 피조물과 싸우실 일이 있다할지라도,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정된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동굴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아주 잠시 동안만 사탄이 승리감에 빠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마치 태엽 풀린 시계처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7절과 9절의 ‘싸울 새’와 ‘내어 쫓기니’와 같은 표현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적대세력은 다 내어 쫓긴 자들이다.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할 자들이란 것을 의미한다. 땅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10-11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 이겨 놓은 싸움일지라도 방심하면 역전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시험종료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2-17절이다. 12절은 하늘의 영역과 바다와 땅의 영역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역이요, 바다와 땅은 저주와 심판 받을 자들의 영역이다. 물론 상징적이다.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구원 받은 자들과 심판 받을 자들을 엄격히 구별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상징한다. 사탄과 그의 무리도 심판의 대상이므로 땅으로 내어쫓겼고,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낙원에 있지 못함으로 그들을 참소할 기회를 잃게 된다.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6)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의한 독수리 묘사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떠돌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출 19:4)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이

13-17절은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13절에서 사탄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뜻이고,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는다.”는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 받았던 것에 연결된

다. 코로나19 사태 때 경험했듯이, 해외에 특별기들을 보내 자국민을 데려온 사건들의 모형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환란기간 곧 박해기간이 짧다는 의미를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이 기간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다 이겨 놓은 싸움을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이 계시록 12장 12-17절이다.

승리자 그리스도42: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7)(계 13:1-5)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1)



계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바다는 음부 곧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또는 복음서에 실린 예수님의 표현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괴수를 상징한다. 이 괴수는 사탄의 오른팔로써 칼의 권세를 가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통수권자인 제왕(帝王)을 말한다. 계시록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란 표현은 제왕들과 제국들을 상징한다. 열 뿔에 있는 왕관들과 일곱 머리에 있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제왕들이 자칭 신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 그 영광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 머리 열 뿔의 모형은 다니엘서 7장에 있다. 일곱 머리에서 머리는 제국 또는 왕국을 상징한다. 여기서 일곱은 바벨론, 메데파사,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수리아, 이집트, 로마를 합한 숫자이다. 열 뿔은 이들 나라들의 제왕들을 말한다.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도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 열 뿔의 소유자로서 일곱 머리에 왕관들을 쓰고 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일곱 머리 열 뿔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는 악하고 음란한 나라들과 박해자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배후세력의 몸통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사탄이 몸통이면, 적그리스도는 깃털에 불과하다.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사탄은 일곱 머리에 왕관들을 쓰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열 뿔에 왕관들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 머리로 상징된

악하고 음란한 나라들의 머리에 있는 왕관들은 패권의 상징이다. 열 뿔로 상징된 악하고 음란한 제왕들의 왕관들은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권력들은 사탄이 부여한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다.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고, 세상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몰아넣는 권력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묘사하였는데,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들 제왕들의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 그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이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것들이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고 신전을 만들며 자신들을 본떠 만든 우상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고 분향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2)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빌론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혼암)과 바닷물의 여신이자 바다의 요인 티아마트(Tiamat)를 이라크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복조(대형 바벨론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시저, 로마의 초대 황제들인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가 사후에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박해시대에는 신전이나 분향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발부하기도 하였다.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되어 환상을 봤던 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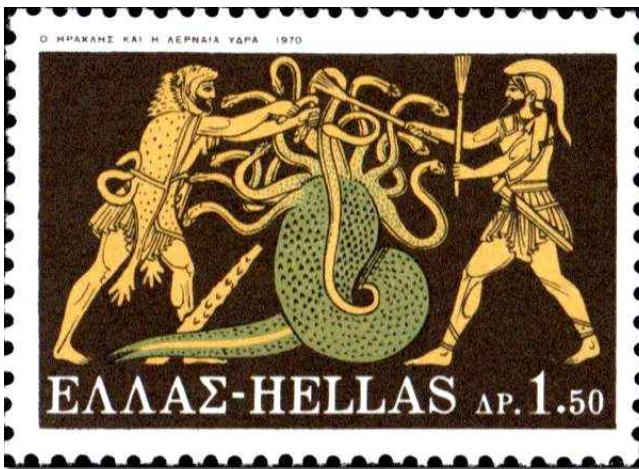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주와 하나님’ (DOMINUS ET DEUS)이란 이름을 참칭하였다.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지적하였다.

계시록 13장 2절의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에서 표범은 헬라, 곰은 메데 파사,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런데 사탄인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고 있다. 성서적으로 인간조직의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해야 옳겠지만, 계시록에서는

그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위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권위와 권세는 사탄의 위임에 의한 권세이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과 베드로의 정치 윤리적 권면은 이 점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은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끝까지 거짓 진리에 대항하여 맞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

3-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더라.” 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 은 어린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방과 표절이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함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 됨을 의미한다.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3)



헤라클레스와 레르나이아 휘드라(그리스 우표, 1970)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운명에 부라된 두 번째 과업인 레르나이아 휘드라를 퇴치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첫째 과업 때 죽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씌 헤라클레스가 휘드라의 목을 베는 모습과 투구를 씌 사촌 이올라오스가 잘려나간 목을 화살로 지져 휘드라의 목이 재생되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휘드라의 9개의 머리 가운데 한 개는 불사의 머리였는데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거대한 바위로 눌러 봉인해버렸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미가엘 천사장의 적수로 묘사되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표절하고 있다.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온 자로 기술되고 있으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과 표절이다. 설

사 짐승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복

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능력이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고,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 라는 것은 대천사인 미가엘 이름의 뜻인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와 “누가 그와 겨루어 싸우겠는가?” 를 모방하고 표절한 것이다. 이들 모방과 표절은 모두 다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자기가 마치 추종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고, 큰 권능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용과 짐승은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 와 그의 곁에 계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용과 짐승의 괴롭힘에 참고 싸워서, 승리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원의 해변에 서서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계시록 13장 5절의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에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은 자신을 ‘주와 하나님’ 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는 뽀뽀스럽고 가증스런 주둥아리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탄의 영을 뒤집어 쓴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아몬-제우스로 주장한 것을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신성을 주장하였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왕이 ‘가미사마’ 또는 ‘천황’ 이라 부르며 신성(神性)을 주장하면서 ‘황거요배’ 또는 ‘동방요배’ (東方遙拜)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예배 중이라도 일제히 일어서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해야 했다.

승리자 그리스도43: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8)(계 13:6-15)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4)



계시록 13장(Tapisseries de l'Apocalypse, Angers, France) 프랑스 앙제 성 전시실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요한계시록 벽걸이 (높이 5m, 폭 130m) 그림의 하나이다. 낱말과 색으로 짜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태피스트리(Tapestry)라 불린다. 앙제 공 루이 1세 (재위 1360-84년)의 주문으로, 화가 장 드 브뤼슈가 밑그림을 그렸고, 직물장인 니콜라이 바타유가 직조하였다. 동(사탄)이 표범 비슷하고 검은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짐승(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항제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일제 강점기 말엽 신사참배가 심하던 때에는 예배당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신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을 벽에다 걸어놓고 절을 하게 했고,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예배당 안에는 ‘천조대신’ 뿐 아니라, ‘가미사마’ 곧 신(神)으로 신격화된 천황의 사진을 강단 뒤 벽에 걸게 하였고, ‘가미나다’라 불리는 이동식 신사(神社)를 예배당 안 동편에 놓게 하였다. 예배

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을 향해서 먼저 예의를 갖춘 후에라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강요받았던 황제숭배와 유사한 강요를 일제 강점기 때 조선 그리스도인들도 받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박해기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광복 후에 찾아온 교회분열은 조선기독교회라고 해서 피해가지 못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모두를 수용한 배도자, 신사참배만 거부하고 동방요배는 수용한 고려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모두를 거부한 손양원 목사와 같은 재건파로 나뉘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쓰나미처럼 밀려온 박해에 직면하곤 했다. 이 박해를 주도한 자들을 계시록은 적그리스도로 표현하였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 신성을 주장하면서 예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훼방한 자들로서 계시록은 그들의 활동기간을 상징적인 숫자인 마흔두 달 곧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마흔두 달’ 혹은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된 삼년 반은 성도들의 시련기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6-8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는 말씀은 삼년 반으로 묘사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에 일어날 배도를 말한 것이다. 배도는 반역 행위이다. 그러므로 9-10절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고 하였다.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1)



계시록 13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발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발로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끝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속죄양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용과 짐승은 창조주와 부활의 주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으며, 그 분을 이길 수 없다. 피조물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족하고 거짓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묘사한 것도 이 부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방과 표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믿는 성도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짓되고,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

셋째,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향과 불과 연기로 타는 불 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계시록은 용과 짐승,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결코 두려움의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 고후 4:17)는 사실을 고쳐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의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거짓선지자의 상징이다. “어린양 같이 두 뿔이 있고”는 그가 일곱 뿔을 가진 어린양(계 5:6)을 모방하고 표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일곱 개나 열 개가 아닌 두 개의 뿔밖에 없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사탄인 용과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대언자이기 때문이다. 거짓선지자는 잘못된 교리나 학설을 가지고 용과 첫째짐승을 대변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2)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로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12절에 나타난 거짓선지자의 역할은 사탄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첫째짐승의 권세를 나눠받아서 그 권세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첫째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란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속죄양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표절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황제숭배를 강요한다는 뜻이다.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열왕기하 1장 10-12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권능에 대한 모방이자 표절이다. 거짓선지자가 종교인이란 점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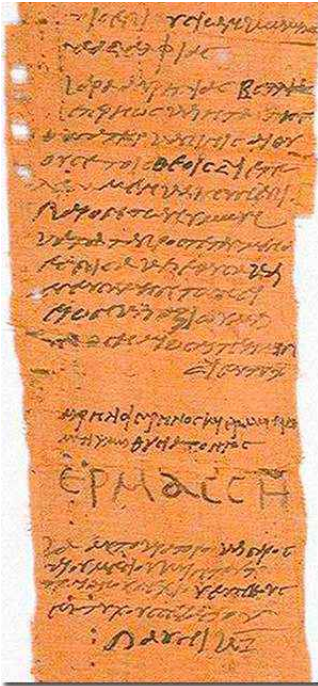
14절에서 둘째짐승인 거짓선지자가 “짐승에게 받은바 능력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고 말한 것은 그가 모세 시대에는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 엘리야시대에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원형이란 점을 암시한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음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황제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한 자들은 다 거짓선지자들이다.

15절은 둘째짐승 거짓선지자가 황제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제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은 첫째짐승 적그리스도인 제왕들에게 직접 심문받고 처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수하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따라서 성도들을 직접 몸으로 상대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짐승 거짓선지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종교박해에 관련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였다.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였다는 뜻은 ‘검은 것을 보여주면서 희다’는 답변을 하게하고,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답변을 하게 하며, ‘말 못하는 돌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말을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뜻한다.

승리자 그리스도44: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9)(계 13:16-18)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3)



데키우스(Decius)가 발행한
리벨루스(libellus, 250년)
[내용]테아덜피아 마을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
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벗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레누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는 그대들이
제사 바치는 것을 보았노라. 헤르
마스 본인에 의해서 서명하다.
황제 카이사르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피우스
펠릭스 아우구스투스 1년, 아우니 27.

둘째 짐승은 거짓 종교
가와 허탄한 철학자의 상
징이다. 그가 가진 거짓
진리는 막강한 권세를 갖
고 있다. 그 권세가 브랜
드, 돈, 무력, 권력, 메가
또는 다수일수도 있다.
이런 유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들이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런 유의 권세가
둘째 짐승 자신의 것은 아
니지만, 그에게 권한이
있어서 이것들을 마음대
로 쓸 수 있다.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10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고 했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고 권면하였다.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은 짐승의 표, 666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교 초기에 로마당국이 시민들에게 ‘짐승의 표’라 불릴만한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게 한 사례가 있다. 계시록이 기록되고 155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데키우스(Decius, 250-251)와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3-260) 황제가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명서 ‘리벨루스’ (libellus, 250)를 발급받도록 하였는데, 대상은 모든 시민권자들이었다. 주후 212년에 발효된 카라칼라의 칙령이후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에 살던 모든 자유민이 이 법에 따라야 했다.

주후 250년에 선포된 데키우스 칙령에 따라서 도시와 마을마다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 불려나간 시민들은 위원들

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신상들에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향불에 분향하였다. 그리고 그 향이 타오르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였고, 위원들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증명서 곧 ‘리벨루스’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표’는 이런 증서를 말한 것은 아니고, ‘인침’ 곧 도장을 뜻한다.

16-17절,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신약성서가 말한 ‘인침’ 곧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약정서에 찍힌 인감의 모방이자 표절이다. 성서가 말하는 ‘인침’과 ‘짐승의 표’는 소속을 증명하는 시민권 개념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에 반대개념이다.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4)



계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박해를 당한 성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굶주림’과 물질적 피해에 관한 언급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보면, 고문을 받고 투옥당하는 것은 물론,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기도 한다. 또 체포되기 전에 피신한 경우 깊은 곳에 숨어서 살아야하기 때문에 매매활동을 할 수가 없다. 물리적인 박해는 대개 통제사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순

교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18절의 ‘짐승의 수’는 666이다. 이 숫자가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666은 거짓 종교와 진리를 강요하는 권력자요 그의 하수인들이다.

666은 6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7은 777이 된다. 7은 완전수이다.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인간, 천사, 사탄과 같은 고등한 영적 피조물

의 숫자이다.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는 제6일 켜에 만들어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성의 동물이자 언어와 도구를 쓸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이다.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동물이며,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6이란 숫자는 다른 모든 숫자 위에 있으면서도 완전수 7에는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수이다. 6은 언제나 완전에는 이르지 못한다. 6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표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666은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거짓 종교와 거짓 진리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숫자 8로 인식되었다.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 ‘이에수스’ (Jesus)를 숫자로 환산하면, 888이 된다. 8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상징한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이 8번째 아들이었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으며, 유대인 남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었다. 외경 ‘시빌린 신탁’은 예수님을 8로 표기하였고, 150년경의 순교자 저스틴은 ‘주일’을 ‘제8일째 날’로 불렀으며, 중세교회회는 침례탕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5)



계시록 13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숫자 8은 기독교의 복음(7+1)의 성격을 설명하는 숫자이다. 숫자 8은 완전수 7보다 하나가 많다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숫자 8은 넉넉한 구원, 넘치는 복을 뜻하며, 살림과 구원, 즉 삶에 플러스를 주는 복음을 뜻한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

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

다.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특히 숫자 8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숫자 8로 표기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종류의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666은 모든 거짓, 모든 실수, 모든 잘못, 모든 부족, 모든 악행의 상징이다.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을 음부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모든 불행의 상징이다. 그의 운명은 패배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완전하신 777의 하나님과 넉넉하신 888의 그리스도뿐이시다.

승리자 그리스도45: 강화된 두 갈래 길(I)(계 14:1-11)

강화된 두 갈래 길(I)



계시록 14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온산에 선 144,000명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로 다스리는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선포의 글이다.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 곳은 지상이 아니고, 천상의 시온 산으로써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성이 자리 잡고 있는 옛 모리아 산의 원형이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은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그리스도에게

속한 구원받은 백성이란 점을 표현한 것이다. ‘어린양’은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십사만 사천’은 7장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그들은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며, 큰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의 이마에서 빛나는 이름은 아마 ‘크리스티아노스’(χρῑστῑανός)일 것이다. ‘크리스티아노스’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말로는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2절,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 같고, 우렛소리 같은 거문고 타는 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시온 산에 도열한 구원 받은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다. 계시록에서 거문고가 등장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이다(계 5:8, 15:2).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 새 노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이 노래’는

15장 2-3절에서 언급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이다. 가사의 내용은 7장과 15장에 소개되었다. 7장 9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15장 3-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강화된 두 갈래 길(2)



계시록 14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뜻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다”는 우상숭배를 말한다. 고대 종교들에서 특히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예배에서 있었던 실제 음행과도 연관이 있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목신숭배를 강요했던 이세벨과도 관련된다. 계시록에서 이세벨은 음녀의 상징이다. 계시록 2장 20절은 이세벨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짓선지자로 지적하였다.

고대 근동과 유럽에서 섬겼던 아프로디테,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여신 전(殿)에서는 예배행위에 성창들과의 성적 접촉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했던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비로써 상징되는 하늘의 남신과 밭으로 상징되는 땅의 여신 사이의 만남으로 풍요와 다산

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는 영적인 음행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던 음행이다. 그래서 성서는 배교를 음행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계시록은 짧은 수고, 긴 안식, 짧은 쾌락, 긴 고통에 대한 경고의 글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전도의 글이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란 뜻이다. 여기서 ‘신실’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성도가 행한 약속은 일차적으로 침례 때에 행한 신앙고백을 의미한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계시록 14장 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계시록의 기록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다. 여기서는 여러 천사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하는지, 그 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대적한 무리들이 어떤 보응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강화된 두 갈래 길(3)

6-7절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8절의 또 다른 두 번째 천사는 배교와 박해를 시행하는 제국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일차적으로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는 모든 속주국민들에게 우상숭배 곧 황제숭배를 강요한 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주선했 것이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한 자들까지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진노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징계를 말한다. 이 천사는 제국의 멸망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탄식한다.

9-11절에 등장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는 우상 곧 황제를 숭배하고 그 증표를 받으면,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한다. 여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지옥의 불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반대 개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한다.

계시록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글이다. 그것은 마치 노아가 홍수심판

을 앞두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과 같고, 천사들이 유황불 심판을 앞두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과 같다.

계시록의 특징은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고난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리스 신화에 묘사된 탈타로스처럼,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런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10절의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아니한 독주를 말한다. 고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포도주에 물을 희석해서 마셨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비율은 20대 1에서부터 1대 1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고대의 문学家들은 3대 1로 혼합한 포도주를 가장 적절하게 보았고, 1대 1로 희석한 포도주를 “독한 술”(strong wine)로 언급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은 심판의 강도나 고통의 강도가 심히 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승리자 그리스도46: 강화된 두 갈래 길(2)(계 14:12-20)

강화된 두 갈래 길(4)

12절,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는 짧은 쾌락이 길고 끝없는 고통을 준다는 점, 그러나 짧은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길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준다는 점을 알라는 말씀이다.

계시록은 두 갈래 길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동일한 물과 동일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아보여도 그 끝이 첨예하게 다르다. 그 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다.

계시록 14장 1-7절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다. 고문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해변에 서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계 15:2-3). 이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자들이다(계 7:16-17).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원한 안식과 행복한 여생이 예정된 자들이다.

또 8-11절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자기들도 우상숭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이며, 유황이 타는 불 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의 연기로 인하여 밤낮 쉼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 이런 자들처럼 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써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그리스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카론’ 이란 뱃사공이 태워주는 바닥없는 소가죽 배를 타고 비통의 강을 건너게 된다. 비통의 강을 건너게 되면 그 갈래인 시름의 강이 나오고, 이 시름의 강을 건너게 되면 불의 강이 나오고, 이 불의 강을 건너게 되면, 망각의 강이 나온다. 이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너른 별판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들판에는 낙원인 엘뤼시온(Elusion)이 있고, 왼쪽 들판에는 지옥인 탈타로스(Tartaros)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상징하는 강을 건너게 되지만, 그 강의 끝은 참예하게 다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강화된 두 갈래 길(5)



계시록 14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낙원 엘뤼시온에서는 지복을 누리지만, 지옥 탈타로스에서는 형용키 어려운 형벌을 받는다. 탄탈로스는 물속에 몸을 잠그고 있는데도 영원한 갈증에 시달린다. 탄탈로스가 물을 마시려고 입을 대면 물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익시온은 영원히 도는 불수레에 매달려 비명을 지른다. 티튀오스는 독수리의 부리에 살을 파 먹히면서 영원히 소리 지르고, 다나오스의 딸들은 밀 빠

진 독에다 영원히 물을 길어다 붓는다. 시쉬포스는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려야 하지만, 바위는 산꼭대기에 도달하기 무섭게 다시 굴러 떨어진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될 고통의 종류들을 설명해 준 것이다. 한마디로 지옥에는 쉼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13-20절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향한 대심판을 추수장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먼저 13-16절은 ‘구름 위에 앉은 이’의 알곡추수 장면이고, 17-20절은 심판천사의 포도추수 장면이다. 알곡추수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우는 것이고, 포도추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가 밤낮 쉼이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불신자들을 모우는 것이다.

계시록의 교훈은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한없이 사단의 발아래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다만 때를 기다리실 뿐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런 시간이지만,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다. 성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는 마침내 이기

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계시록의 특징은 분리와 반복에 있다. ‘분리’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철저히 분리시킴을 말한다. 예수님의 깃발아래 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으며, 언제나 천상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사탄의 깃발아래 선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의 저주를 받게 될 지상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강화된 두 갈래 길(6)

‘반복’이라 함은 앞서 설명한 ‘분리’가 반복해서 설명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구원에 관한 천상의 환상은 7장과 14장 그리고 21장에서 반복된다. 사탄의 백성이 받을 재앙에 관한 지상의 환상도 8-9장과 16장 그리고 17-20장에서 반복된다.

요한이 이렇게 ‘분리’와 ‘반복’의 형식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18장 4절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그밖에도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권면하신다.

첫째,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둘째, 주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실 교회의 머리되시며 성도의 구세주 되심을 굳게 믿고서 박해의 폭풍이든 이단의 폭풍이든 생활의 폭풍이든 그 폭풍이 무엇이든지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신다. 그리하면 생명의 월계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서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있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철혹 같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리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이기고

큰 환난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방 앞에 펼쳐진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 이라고 말씀하신다.

넷째, 시련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소중한 축복에 비하면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믿고서 또 탄압하던 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영원히 타는 불 못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고서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소중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신다. 그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성도들이 인내로써 믿음을 지켜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13:10, 14:12).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승리자 그리스도47: 강화된 두 갈래 길(3)(계 15:1-8)

일곱 대접재앙(1)



노아 때의 대 홍수(저자 미상)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거대한 물바다에 배처럼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라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여덟십구 사이를 거대한 방주로 분리시켰다.

바다는 음부 곧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따라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펼쳐지는 지옥이다.

계시록 15장 1절은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이다.”는 계시록의 재앙들에 어떤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대접재앙

은 시간차를 두고 나팔재앙에 뒤따라오기 때문이고, 재앙의 강도도 크게 차이가 나고, ‘마지막 재앙’이란 언급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시대구분론적인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분리와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回復)과 반전(反轉), 신실한 믿음과 인내의 절대적 필요성, 다가올 대심판의 긴박성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2-4절은 16장에 소개된 일곱 대접재앙에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또 2-4절과 16장의 일곱 대접재앙은 출애굽기 15장과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출 15장),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서 부른 노래와 근본적으로 내용이 같다. 3-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 반대의 장면도 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서(창 19장), 노아시대의 불경한 자들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창 6-8장), 삼손을 희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아래서 큰 재앙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마병대가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출 15장) 재앙을 당하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소개된 대접재앙들과 관련이 있다.

일곱 대접재앙(2)



주전 1446년 봄에 홍해에서 벌어진 대사건(출 15장, 저자 미상)
지옥을 상징하는 붉은 바다, 홍해 속에 갇힌 이집트 마병대와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 홍해 해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브리인들
사이로 거대한 파도로 분리시켰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은 지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5-8절은 일곱 대접재앙을 예비하는 장면이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은 지상 성막의 원형이기 때문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일곱 천사들은 일곱 제사장들, 곧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여리고 성 전투 때 일곱 나팔을 가졌던 일곱 제사장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들이 나팔 대신에 강도가 훨씬 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케루빔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금 대접에 담

따라서 일곱 대접재앙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의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에 서서 붉은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과 같이, 천상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긴 것은 재앙의 불로 볼 수 있다. 민수기 16장에 소개된 불행한 사건, 즉 불이 담긴 향로에서 불과 불티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과 계시록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던 것에서 볼 수 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붉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홍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붉게 타오르는 소돔성의 불바다와 같은 것이다.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이랄 수 있는 바로와 그를 돕는 박사들과 군사들을 이기고 벗어나 홍해 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성도들이 지옥의 불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하늘의 붉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일곱 대접재앙(3)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John Martin, 1852, 라임미술관 소장)
라임미술관(Laing Art Gallery)은 영국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 시에 있다. 유황불 비가 내리는 소돔-고모라성과 롯과 그의 두 딸이 피신한 안전한 소알성 사이를 번개로 분리시켰다. 번개가 땅에 닿는 지점 아래에 분리를 상징하는 천사가 서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붉은 바다 홍해 해변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가운데서 몇 절만 읽어보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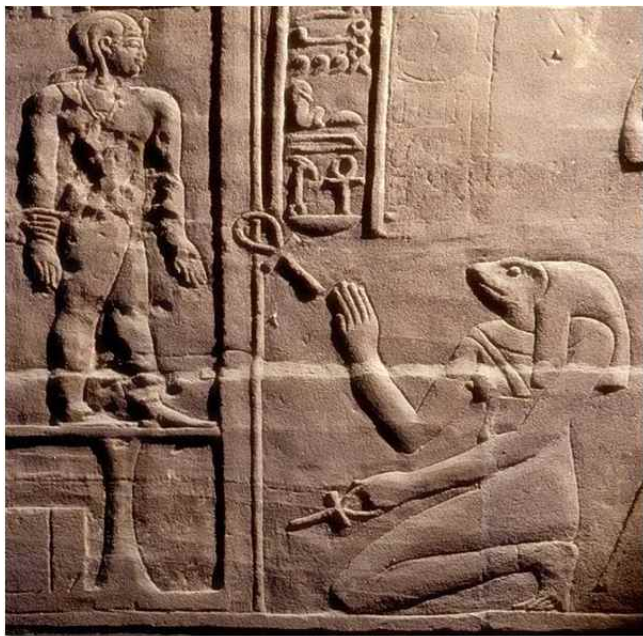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들 노래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늘나

라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인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예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분의 위엄과 권세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인자의 환상으로 나타난바가 있다.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분의 위엄과 존귀함은 이미 계시록 4-5장에서 보좌방의 환상으로 나타난바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승리자 그리스도48: 강화된 두 갈래 길(4)(계 16:1-21)

일곱 대접재앙(4)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로 묘사되는 다산의 여신 헤케트(Hehket).
중중 나일강의 수호신(반영) 크눔(Khnum)의 복인으로 묘사된다.

같은 세 더러운 영”은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그 하나를 ‘개구리’로 지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파리’와 ‘이’이다. 신약시대, 특히 계시록에서는 숫자 ‘일곱’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열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용인 사단과 짐승인 제왕과 사제인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영에 비유하였다. 요한은 복음서에서도 이 세 가지 재앙을 뺀 나머지 일곱 개의 재앙들에 상반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살림의 기적 일곱 개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대접(2절)에서는 지상에 악하고 독한 중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난다. 출애굽기 9장 8절에 나오는 ‘독 중’ 재앙에 비교된다.

두 번째 대접(3절)에서는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 출애굽기 11-12장에 나오는 ‘죽음’ 재앙에 비교된다.

세 번째 대접(4절)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나오는 ‘피’ 재앙에 비교된다.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재앙에 관한 말씀이다. 여기서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쉽사리 회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계시록에서의 나팔과 대접재앙들은 출애굽사건 당시 모세가 이집트에 내리게 했던 열 가지 재앙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들 열 가지 재앙들 중에 빠진 세 가지에 대한 암시는 13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에 있다. 이 “개구리

이 세 대접들을 땅에 쏟고 난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와 제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다.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대접(8-9절)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나오는 ‘불’ 재앙에 비교된다.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오히려 마음을 더욱 강박케 하였던 바로처럼 불경한 자들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는커녕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일곱 대접재앙(5)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재앙을 묘사하였다.

다섯째 대접(10-11절)에서는 짐승의 왕좌에 어둠과 종기의 고통이 온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오는 ‘흑암’ 재앙에 비교된다. 짐승으로 상징된 제왕 역시도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았다. 불경한 자들은 끝장을 볼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 못만이 그들을 기다린다.

여섯째 대접(12-16절)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린다. 세 더러운 영(개구리, 이, 파리)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전쟁을 예비한다. 출애굽기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비교된다.

사탄의 영을 가진 바로는 거짓선지자들인 박수들과 함께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압박하는 정책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후에는 마병대로 하여금 추격케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예비했던 것이다.

계시록 16장 12-16절에 ‘아마겟돈,’ ‘유프라테스 강’과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아마겟돈’은 우리말로

‘므깃도 산(하르)’ 혹은 ‘므깃도 언덕(텔)’ 이란 뜻이다.

일곱째 대접(17-21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 (It is done!)고 하셨고, 또 큰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은 물론이고, 큰 성 바벨론, 곧 로마제국도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졌으며, 34킬로그램 무게의 우박이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이 내렸지만, 불경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 출애굽기 9장 13-21절에 나오는 ‘우박’ 재앙에 비교된다.

일곱 대접재앙(6)



므깃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새이자 길목이다.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갈멜산 북쪽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한 사람이 곡창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 므깃도는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지중해 해변로인 ‘비아 마리스’ (Via Maris)를 차단할 수 있는 길목이어서 크고 작은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다. 드보라가 시스라를

격멸한 곳이고(삿 5:19-21),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한 곳이며(왕하 9:27), 요시아가 이집트의 느고 2세를 가로막다가 전사한 곳이다(왕하 23:29-30, 609 BC). 팔레스타인 땅을 넘보던 이집트, 아시리아 등의 대국들이 이곳에서의 혈투를 피해가지 못했다. 솔로몬은 이곳에 450여 마리의 말과 150여대의 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Stables)을 갖추놓고 전차부대를 주둔시켰다.

따라서 므깃도는 영적인 전쟁터의 상징이다. 아마겟돈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과 짐승으로 상징된 칼의 권세자인 박해자(666)와 그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뭉친 악한 영들이 집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터로써 사탄이 최후까지 발악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각심을 고취시키

고 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승리자 그리스도49: 강화된 두 갈래 길(5)(계 16:12-16)

일곱 대접재앙(7)



1981년에 착공된 아타투르크 댐

터키가 유프라테스강을 막아 만든 댐이다. 터키가 자국의 강들에 댐으로 건설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가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계연한 것이 계시록 16장 12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프라테스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통로가 열리고, 세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왕들을 므깃도에 집결시킨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열린다는 뜻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시리아 쪽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므깃도는 시리아 남쪽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제국의 동쪽 시리아 국경지대의 강으로써 동서양을 구분하는 지리적 분기점이다. 그 강 동편, 곧 유프라테스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전역에 활쏘기의 명수인 파르티아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뜻은 로마제국의 방위선이 붕괴된다는 뜻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파르티아 왕들을 두려워했고, 그들과 싸운 62년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았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인가? 해석자들의 대부분은 이들을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 곧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아마겟돈에 집결시킨 왕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드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 곧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처럼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자 사람 삼분의 일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는 말과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 동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악한 영들을 정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봐야 한다.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로마인들이 두려워한 파르티아의 왕들이라면,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붕괴될 ‘큰 성 바벨론’ 곧 박해세력 로마제국을 정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봐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다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전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대미로 장식하게 될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일곱 대접재앙(8)



7계시록 1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 재앙의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 표적들 가운데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뺀 일곱 개의 표적들에 모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들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일으켰던 10가지 표적들에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뺀 일곱 개의 표적들에 모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은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회개가 주제이다.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과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복음에서 모세와 율법은 흑암과 죽음을, 예수님과 복음은 빛과 생명을 뜻한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의 변화와 회개가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이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숫자 7로 전하였다. 숫자 7은 빛과 생명을, 숫자 6은 모세와 율법, 곧 마이너스 1(-1)을 상징하며, 숫자 8은 예수님과 복음, 곧 플러스 1(+1)을 상징한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빛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변화를 강조하는 것들이면서 모세의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다. 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의 거짓 표적 혹은 모방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요 2:1-11), 이 표적의 의미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변화, 분위기 쇄신, 넘친다(+1)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물을 피로 변화 시켰는데(출 7:14- 24), 그의 표적의 의미는 해를 끼치는 파괴적 변화, 분위기 침체, 또는 부족하다(-1)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다(요 4:46-54). 유대인 니고데모, 사마리아인 여성, 이방인 왕의 신하한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중생의 체험이 나타난다. 믿음과 중생이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세는 가축을 죽게 하는 표적을 행한다(출 9:1-9). 이 두 표적의 특징은 주인이 직접 축복이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물이 받는다는데 있다.

일곱 대접재앙(9)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일곱 번째 대접재앙(17-21절)을 묘사하였다.

셋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요 5:1-18). 이 표적은 개인의 고통을 고친 첫 번째 표적에 해당된다. 이 표적에서 나타난 특징은 복음적 사고(思考), 유신론적 창조사고, 살림과 열림의 사고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살림의 일을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온몸에 독종이 나게 한 표적을 행하였다(출 9:8-12). 이 역시 몸에 고통을 준 첫 번째 표적에 해당된다. 이 표적의 특징은 율법적 사고(思

考), 무신론적 파괴적 사고, 죽음과 단합의 사고와 죽음의 일에 있다.

넷째,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빈들에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셨다(요 6:1-15).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과 기름병의 가루

와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않게 한 표적들의 원형이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인들에게 메뚜기 재앙(출 10:1-20)을 내림으로써 기근을 촉발시켰다.

다섯째,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요 6:16-21). 이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데 있다. 반면에 모세는 이집트에 뇌성과 우박 재앙 곧 자연재해(출 9:13-15)를 내리게 했다.

여섯째, 예수님은 타고난 맹인을 고치셨다(요 9:1-7).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흑암재앙(출 10:22-23)을 내리게 하였다.

일곱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다(요 11:17-44).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죽음에 생명을, 슬픔에 기쁨을 주신다. 반면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출 11-12장). 생명에 죽음을, 기쁨에 통곡을 주었다.

이같이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율법을 복음으로,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밝혔는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무리의 박해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승리자 그리스도50: 새아침이 밝아오다(1)(계 17:1-18)

큰 음녀의 받을 심판(1)



계시록 17장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한 것으로서 Anthuenis claeissins (Flemish, 1536-1613)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열곱 머리 열 팔 짐승을 탄 모습이다. 그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황제숭배를 피해갈 수 없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음행을 마시고 취했던 자들이다. 이것은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 제국의 광범위한 통치지역 전체가 황제숭배 및 우상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보충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2-13절이다. 열 팔로 상징된 땅의 임금들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황제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아 한 뜻을 품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악용하여 짐승으로 상징된 황제를 섬기며 그리스도교를 대적한다. 그러나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과 어린양과 성도들의 승리로 끝날 것을 명확히 밝힌 말씀이다. 어린양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한 것은

계시록 17장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1절에서 ‘많은 물’은 음부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상징이다. 15절에서 천사가 설명하기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고 하였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세계의 패권을 쥔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18절에서 천사가 설명하기를,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시켜 황제숭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극형에 처했다.

2절의 ‘땅의 임금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아래 있는 왕들로써 황제숭배를 앞장서서 권장했던 자

‘땅의 임금들,’ 곧 지중해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로마황제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절의 ‘여자’는 1절의 ‘큰 음녀’와 동일인물로서 로마제국을 말한 것이며, 그 여자가 탄 ‘붉은 빛 짐승’은 로마와 땅의 임금들을 말한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로마황제를 신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로마와 땅의 임금들을 상징한다. ‘일곱 머리’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시를, ‘열 뿔’은 ‘땅의 임금들’을 상징한다.

큰 음녀의 반을 심판(2)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1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의 머리에 삼중관을 씌움으로써 음녀가 가톨릭 교황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4절에서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와 ‘가중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로마의 사치와 음란과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5절의 ‘이마에 적힌 이름,’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라는 표현들은 ‘여자’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마에 적힌 이름’은 로마의 창녀들이 이마의 머리띠 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풍속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큰 바벨론’은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로마를 말한다.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는 당시 로마가 세계의 모도(母都) 즉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였기 때문이다.

6절에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뜻한다.

계시록 17장 7-18절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

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13장 3-4절의 반복이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은 네로가 죽어서 도미티아누스로 환생했다는 전설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어린양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모방한 것인데도 멸망당할 자들은 이 거짓 능력을 두려워하여 추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를 따르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네로가 죽기 직전 동방 파르티아(Partheia)에 숨었다가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는 말이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11절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과 13장 3절에 나오는 ‘상처를 입었다 나온 짐승’에 대한 언급이 이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도미티아누스는 가장 강력하게 신성(神性)을 주장한 황제이고, 기독교 박해자였기 때문에 네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큰 음녀의 받을 심판(3)

9절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앓은 일곱 산이요”는 일곱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시를 말한다.

10절의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는 초기 로마의 황제들을 말한다. 망한 다섯째는 네로이고, 지금 있는 여섯째는 베스파시아누스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여섯째가 네로를 암시한 것처럼 보인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앞서 설명한대로 죽은 네로가 여덟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로 환생할 것이라는 암시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계시록을 도미티아누스를 알고 있던 사람이 그의 사후인 주후 96년에 썼을 것이라고 본다.

12-18절 전체를 살펴보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황제와 열 뿔로 상징된 땅의 임금들이 연합해서 황제숭배를 강요하고, 14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이시므로 그들이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16-17절의 말씀대로, 로마제국을 말아먹게 된다. 16절은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하였다. 나라를 살리고, 발전시켜야 할 황제와 제왕들이 오히려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를 묘사하였다.

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제국을 망하게 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10여 차례 이상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말살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국은 몰락의 길을 달리게 되었고, 박해자들은 단명하였으며, 사치와 쾌락의 노예들이 되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주후 400년이 넘기 전에 전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승리자 그리스도51: 새아침이 밝아오다(2)(계 18:1-24)

큰 음녀의 받을 심판(4)



계시록 17장 1-18절(Otth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모습이다. 사가 설명하였다. 첫째는

로마에 악령이 들끓었다는 점; 둘째는 영적 음행인 황제숭배강요가 있었다는 점; 셋째는 육적 음행인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다는 점; 넷째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로마’란 제목의 HBO제작 DVD시리즈를 보면,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제국 몰락의 큰 몫이 사치와 쾌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를 다룬 역사물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시대정황이 칠후 같은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멸망당할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의 외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이 바로 계시록의 외침이다.

5-8절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의 교만과 패망에 대한 말씀이다. 죄와 사치와 교만함이 하늘에 미쳤고, 자기를 높여 영광을 받으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갑절로 갚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로 상징된 로마제국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로마제국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숭배와 기독교 탄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절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의 멸망과

원인을 큰 권세를 가진 천

사가 설명하였다. 첫째는

로마에 악령이 들끓었다는 점; 둘째는 영적 음행인 황제숭배강요가 있었다는 점; 셋째는 육적 음행인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다는 점; 넷째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로마’란 제목의 HBO제작 DVD시리즈를 보면,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제국 몰락의 큰 몫이 사치와 쾌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를 다룬 역사물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시대정황이 칠후 같은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멸망당할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의 외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이 바로 계시록의 외침이다.

5-8절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의 교만과 패망에 대한 말씀이다. 죄와 사치와 교만함이 하늘에 미쳤고, 자기를 높여 영광을 받으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갑절로 갚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로 상징된 로마제국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로마제국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숭배와 기독교 탄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절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의 멸망과

원인을 큰 권세를 가진 천

사가 설명하였다. 첫째는

로마에 악령이 들끓었다는 점; 둘째는 영적 음행인 황제숭배강요가 있었다는 점; 셋째는 육적 음행인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다는 점; 넷째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로마’란 제목의 HBO제작 DVD시리즈를 보면,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제국 몰락의 큰 몫이 사치와 쾌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를 다룬 역사물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시대정황이 칠후 같은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멸망당할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의 외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이 바로 계시록의 외침이다.

5-8절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의 교만과 패망에 대한 말씀이다. 죄와 사치와 교만함이 하늘에 미쳤고, 자기를 높여 영광을 받으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갑절로 갚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로 상징된 로마제국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로마제국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숭배와 기독교 탄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절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의 멸망과

원인을 큰 권세를 가진 천

사가 설명하였다. 첫째는

로마에 악령이 들끓었다는 점; 둘째는 영적 음행인 황제숭배강요가 있었다는 점; 셋째는 육적 음행인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다는 점; 넷째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로마’란 제목의 HBO제작 DVD시리즈를 보면,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제국 몰락의 큰 몫이 사치와 쾌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를 다룬 역사물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시대정황이 칠후 같은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멸망당할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의 외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이 바로 계시록의 외침이다.

5-8절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의 교만과 패망에 대한 말씀이다. 죄와 사치와 교만함이 하늘에 미쳤고, 자기를 높여 영광을 받으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갑절로 갚

으실 것이며,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참고로 성경 66권 전체는 회개와 회복에 관한 글이다. 지은 죄와 허물이 무엇이든지간에 회개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상실한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미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큰 음녀의 받을 심판(5)



계시록 17장 1-18절(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불 짐승을 탄 모습이다.

9-10절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로마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탄식한다고 표현하였다.

나머지 구절들은 경제가 파탄 나고 무역이 끊기고, 상공이 폐쇄되고, 심지어 혼사도 없어 대가 끊김으로써 땅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로마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절은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21-24절은 ‘큰 성 바벨론’이 크게 망할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였다. 22절은 음악이 끊기고, 상업 공업 농업이 사라진 것을 보여준다. 23절은 등불이 꺼지고, 혼사가 끊긴 것을 보여준다. 이유는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 되어 사치와 패륜을 일삼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24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17-18장이 주는 교훈은 세상의 것은 매혹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일시적이고 패망할 것이고, 하늘의 것은 약하게 보이고, 별 불일이 없어

보여도 참 안식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1)



계시록 18-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계시록에는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부르는 ‘새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5장 9절, 14장 3절, 15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노래들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들이다. 그리고 이들 노래들의 백미는 19장에 나오는 네 번의 할렐루야이다. 헨델은 이 부분을 ‘메시아’에서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다.

계시록 19장 1절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계시록 4-5장에 나오는 네 생물, 24장로들, 천군천사들, 7장과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부르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이다. 이들이 세 차례 ‘할렐루야’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다.

1절은 첫 번 ‘할렐루야’의 1절로써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와 12장 10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찬양과 더불어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찬양에 나타난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 가사가 이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신앙고백이란 점이다. 이 고백은 큰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는 이 신앙고백이 신구약성서 66권 전체의 핵심고백이란 점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이 두 가지 신앙을 고백한 글이

성경책이다. 1500여년에 걸쳐 40여명이 기록하였지만, 한결같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은 이 고백이 체험에 의한 신뢰할만한 것임을 입증한다.

셋째는 그러므로 옳은 팀, 이길 팀, 비록 지금은 밀리고 있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승리를 거머쥐게 될 팀, 우승반지를 끼게 될 팀, 우승컵에 입 맞추게 될 팀에 소속하라는 강한 메시지이다.

승리자 그리스도52: 새아침이 밝아오다(3)(계 19:1-21)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2)



계시록 18-1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2절은 첫 번째 ‘할렐루야’의 2절로써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고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구세주가 되시지만,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교 탄압세력을 무너뜨린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당연하고 참된 것이다.

첫째는 ‘큰 음녀’로 상징된 제국과 짐승으로 상징된 제왕들이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를 강요했고, 사치와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국과 제왕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처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면, 천국과 지옥과 심

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없다면, 하나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로지 불의와 악행만이 통하는 참혹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계시록 19장 3절은 첫 번 할렐루야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일종의 ‘천상의 앙코르’(A. T. Robertson)이다. ‘큰 음녀’의 파멸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파멸을 묘사한 것이 “그 연기가 세세

토록 올라가더라.” 이다.

4절은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송이다. 그들도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였다. ‘할렐루야’는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뜻이다. 계시록에서 표현한 ‘보좌의 음성’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 보좌를 상징한 법궤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던 곳이므로, 보좌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한 보좌에서 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송인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는 첫 번째 할렐루야에 대한 ‘앙코르’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3)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6-8절은 네 번째 할렐루야이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 곧 천상의 연합성가대가 큰 음성으로 부른 노래이다. 가사는 이렇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이다. 거기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다. 거기에는 승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찬송만 있고, 사랑만 있다. 고통과 근심과 욕심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다. 판소리 춘향전에서 이도령을 사랑한 성춘향이 한양으로 떠나보낸 낭군이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던 중에 변 사또의 수청요구를 받고 단호히 물리치지만, 온갖 회유와 고문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칼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도령이 나타나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고, 악행을 저지른 변 사또 일행을 처벌한 후에 최후까지 정절을 지킨 성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에서 보듯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

르렀다”는 말씀은 어린양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끝까지 정절을 지킨 신실한 신자 ‘성춘향들’을 구출하여 백년가약을 맺기 위해서 지상세계로 출두할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 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지킨 신앙의 정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9절은 믿음의 정절을 최후까지 지킨 성도들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대받는 것처럼 이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다.

10절은 우리 성도들이 최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섬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계시록 19장 11절의 백마를 탄자는 어린양 그리스도이시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백전백승의 장군을 상징한다. 하늘이 열리자 그가 보인 것은 연극무대에서 휘장이 열린 다음에야 비로소 관객이 무대 배후에 있던 슈퍼스타의 위용을 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것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인데, 그가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신실하고 참되다’고 한 것이다.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4)



계시록 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1장 가운데 하나이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두 짐승이 불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묘사하였다.

12절에서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월계관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요, 백전백승하는 불패신화를 가진 장군이란 뜻이다.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를 소유한 자란 것을 암시한 것이다.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만 인류의 구세주이자 심판주이심을 말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마치 암행어사가 임금의 명령에 따라 고을에 이르러 그곳의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록 19장(Hortus Deliciarum, c. 1180)
12세기의 수도사 Herrad von Landsberg가 독일어와 라틴어로
필사한 중세기 최초의 백과사전(Hortus deliciarum,
즐거움의 정원)에 담긴 그림이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두 짐승이 불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묘사하였다.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벌을 내리실 자임을 말한 것이다.

14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 것이고, 그들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최후의 승자들임을 말한 것이다.

15절에서 ‘이한 검’은 날카로운 양날 검을 말하고, ‘철장’은 권세를 상징하는 철봉 곧 홀을 말한다. 양날 검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듯 악한 자들을 추수하겠다는 뜻이고, 철봉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악한 자들을 부수겠다는 뜻이며, 추수한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 즙을 짜듯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16절에서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났다. 이것은 ‘땅의 임금

들,’ 곧 지중해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로마황제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17-18절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조적인 심판과 저주의 잔치로써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다 와서 땅에 속하여 멸망당할 자들의 시신을 먹으라는 말씀이다.

19절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사단의 무리를 말한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21절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던 악한 무리들이 산 채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던짐을 받게 되고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지고 있고, 밀리고 있고, 얻어맞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최후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승리자 그리스도53: 최후의 승리(I)(계 20:1-6)

천년왕국(I)



계시록 20-21장(Albrecht Durer, 1496)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Albrecht Durer의 작품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 무저갱에 가두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장은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곳이다. 신학자들 사이의 의견도 크게 넷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이유는 2-3절의 말씀에 언급된 대로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무저갱에서 풀린 후에는 7-9절에 언급된 대로 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끌어 모아 연합군을 결성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사탄이 무저갱이 아닌 ‘불 못’에 던져짐으로써 모든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이 끝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무저갱과 불 못은 어떻게 다른 가라는 점도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머무는 곳을 성서에서는 ‘음부’ 또는 ‘중간상태’라고 말한다. ‘음부’는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세계’ 혹은 ‘영혼의 세계’이다. 이 음부가 ‘낙원’과 ‘무저갱’ 또는 ‘탈타로스’로 나뉜다. 무저갱(無底坑)은 ‘깊은 곳, 밑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다. 그리스신화에 나오기도 하고 신약성서에서도 쓰인 ‘탈타로스’(벧후 2:4)와 ‘무저갱’은 거의 동일 개념이다. 다만 성서에서는 낙원에 반대되는 개념인 탈타로스나 무저갱을 음부로 지칭할 때가 있어서 음부란 말은 종종 좁은 의미에서 무저갱이나 탈타로스를 지칭하기도 한다. 무저갱과 탈타로스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재림 후 부활하여 불 못에 들어갈 때까지 별을 받는 고통과 흑암의 장소이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는 부활세계이다.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의 세계인 것이다. 낙원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고, 무저갱이나 탈타로스의 저주받은 영혼들은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여 ‘불 못’에 들어가 밤낮 씬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계시록 9장 1-2절을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나팔제앙인 황충과 2억의 마병대를 예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무저갱의 사자요, ‘아바돈’이란 이름의 ‘과괴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황충의 임금이다.

천년왕국(2)



계시록 20-2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외사들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여 싸울 자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언급하고 있다. 13장 1절에서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17장 8절에서는 박해자인 짐승, 곧 황제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무저갱은 죽음의 세계이다. 이곳 죽음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것들, 곧 황충이든, 짐승이든, 사탄이든, 타락한 천사이든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은 사탄일 가능성이 크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지만, 그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무서워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해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자신의 군병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탄

에 매인 자들의 삶이 처참한 것이다.

아무튼 3절은 사탄이 일정기간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봐서는 사탄의 주거지가 무저갱이요, 그곳의 왕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절에서는 일천년 동안 꼼짝없이 갇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시록 20장 4-6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천년왕국의 기간과 방법에 관한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천년왕국의 ‘천년’이란 말이 문자적인지 영적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6절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왕국설로 나뉘지게 되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명쾌한 해답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인지도 모른다.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4절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들 성도들이 언제 또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이다.

천년왕국(3)

이 문제에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먼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문자적인 천년 동안 이방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왕 노릇한다고 본다. 이것을 ‘역사적 전 천년설’이라 한다.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는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유대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왕 노릇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 계급에 머물게 된다. 이들의 주장을 ‘시대구분설’이라 한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구분론자들이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가운데 한 부류는 현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믿는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곧바로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고 믿는다. 이것을 ‘후 천년설’이라 한다. 또 다른 부류는 현 세상이 천년왕국은 아니고, 천상의 ‘낙원’과 지상의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계시록 20-2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해진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라고 믿는다. 여기서 ‘첫째 부활’과 연관된 중요한 어휘가 4절에 나온 ‘살아서’란 표현이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뜻인지, 육체로 부활하였다는 뜻인지는 천년설의 입장에 따라 갈린다. ‘살아서’의 뜻이 영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이다. 반대로 ‘살아서’가 육적이라고 믿는 입장은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이다. ‘천년’이란 말도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둘째 죽음’을 육체 죽음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첫째 죽음’은 ‘영혼죽음’이 된다. ‘영혼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 또는 떨어진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첫째 죽음’을 성도들의 ‘육체죽음,’ ‘둘째 죽음’을 불신자들이 불 못에 들어가 겪는 고통을 뜻한다.

믿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낙원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천년왕국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죄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무 천년설’이라 한다.

5-6절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천년설에 준한다. 영적으로 이해하는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첫째 부활’이 ‘영혼부활’ 곧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육체부활’이

승리자 그리스도54: 최후의 승리(2)(계 20:7-15)

최후의 승리(1)



계시록 20-21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장 7-8절에서 사탄이 천년 후에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은 에스겔서 38-39장에 연결된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구소련) 왕인 곡을 쳐서 예언하도록 말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바사

(페르시아)와 구스(에티오피아)와 붓(리비아)와 고멜과 북방의 도갈마 족속을 연합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다(겔 38:1-6).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의 북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망라된 연합군을 말한다.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연합군이다. 이때는 유다민족이 유배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태평세월을 누리는 때이다. 마곡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산으로 이들을 이끌어 내어서 그곳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여 심판하시되 온역과 피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 모든 곡의 군대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겔 38:18-23).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자기 시대보다 6-700년 앞서 예언되었고, 여전히 이뤄지지 아니한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린 이후 악한 자들을 연합시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대항할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결박되어 불 못에 들어가고 싸움이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탄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창조

주이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피조물이 그 수가 아무리 많다한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계시록 20장 9-10절은 에스겔 38장 18-23절에 예언된 곡의 멸망에 연결해서 사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붕괴되고 마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려들던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가득한 지옥의 불 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도록 운명 지어졌다.

최후의 승리(2)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단부 중앙의 한 장면
중앙에 심판주 그리스도와 성모를, 성모의 밑에 뜨거운 석회
위에서 고통을 받고 순교한 라우렌티우스를, 건너편에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돌로매가 칼과
인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그 인피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넣었다. 그리스도를 용위한 자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고, 한수염의 얼굴을 쥔 사람이 베드로이며,
그의 얼굴은 당시의 교황 바오로 3세의 동안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11-15절은 ‘흰 보좌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되어 흰 보좌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음부와 함께 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 못이 둘째 사망이다.

유대인들은 티쉬리월 1일 새해부터 대 속죄일인 10일까지 지난 해의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 함으로써 한 해의 축복을 보장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봉인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년 소망이다. 생명책은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다 불 못에 던져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참 안식을 얻는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승리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비친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이다(롬 8:37).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짧게 잡아 250년, 길게 잡아 430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감행했던 영광의 이집트탈출 사건과 유대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후,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고국귀환이 70년 만에,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 고국귀환이 148년 만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고국귀환이 173년 만에 이루어졌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부활사건이다.

최후의 승리(3)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필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 (고후 15:20,23)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긴 후에 승리의 열매들이 된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골 2:15)고 말한 것

처럼, 노예가 해방이 되고, 포로가 자유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된다.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고난에서의 구원, 시련의 극복,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은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다. 요한은 1-3장에서 왜 그리스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인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묵회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은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위협하는 박해의 폭풍을 향해서 언제라도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의 검을 들어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또 4-6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보석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방의 주인이시며,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는 그분의 큰 뜻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그분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시며,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3쿼터까지 잠시잠깐동안 악한 일을 하게 내버려둘지라도,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편에선 교회와 성도를 꺾을 수 없다. 그의 최후는 불 못 신세이다.

승리자 그리스도55: 최후의 승리(3)(계 21:1-8)

새 하늘과 새 땅(1)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묘사
 하였다. 양쪽 문설주에 새긴 위(천국)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 조각된 인물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성도들이고, 양쪽 문짝에 새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좌측(독자의 우측)에 조각된 마귀와 해골과
 뼈와 함께 한 인물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카론의 바닥없는 소가죽 배에
 실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보내지게 되고, 미노스는 그들을 죄값에
 따라 분류하여 9개의 등급으로 나눈 지옥의 계곡들로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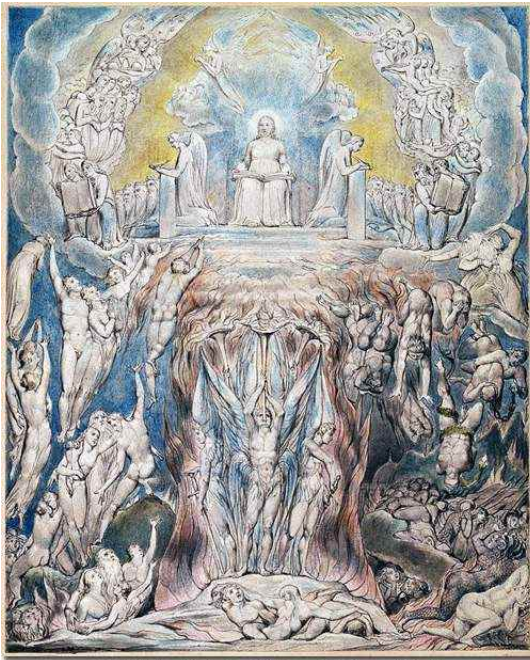
우리가 계시록에서 꼭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나 사
 탄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
 조물이라는 점이다. 피조
 물은 운명적으로 마이너
 스 1의 존재이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보
 았자 벼룩에 지나지 않는
 다.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
 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
 이 살아 갈 수도 없다. 피
 조물이 사는 길은 오직
 플러스 1의 존재되신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
 리를 만드신 완전하신 하
 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

과의 전투는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사탄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도 없다. 계시록이 비록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없다. 하나님의 어린양, J장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갑옷이나 군복 대신 혼인예복을 입고 있다. 어린양 예수의 대적자들은 총칼에 의해서 멸절 되는 것이 아니라, J장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엄 있는 말씀으로 멸절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다. 처음부터 사탄은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사탄은 단 한 명의 천사에 의해서 단 하나의 쇠사슬에 묶이고 마는 힘없는 존재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표절하고 가장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들어가야 할 마이너스 1의 존재에 불과하다.

요한은 또 7-19장에서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나팔 재앙, 대접재앙, 성도들의 삼년 반 기간의 시련,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 멸망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한 때 시련을 겪었으나 하늘의 영광을 차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 때 돈과 세상 권력을 쥐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과 영원히 타는 유황불 못에 던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계시록 20-22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인류가 가진 마지막 소망을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으로 보여주었다.

새 하늘과 새 땅(2)



백백보와 심판(William Blake, 1808)
로버트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첫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모든 인간은 거룩한 몸으로 변형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의 집과 함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된다(계 21:3-4).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계

22:5).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계 22:1),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다(계 22:2). 새 하늘과 새 땅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다(계 7:16). 정

리해고나 부도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넷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계 21:4).

다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계 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계 21:4).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이다(사 65:25).

여섯째, 새 하늘과 새 땅은 깨끗하고 건전한 생각만 하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일곱째,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다(계 22:5). 새 하늘과 새 땅은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머리 좋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잘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곳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물 잘난 사람도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3)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련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이긴 사람들만이 이곳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2:5). “죽도록 충성하라” (2:10). “회개하라” (2:16). “굳게 잡으라” (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3:11). “네가 열심을 내라” (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2:17). “새벽 별을 주리라” (2:28).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21).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1:7)고 했다.



최후의 심판(Viktor Mikhay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와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르는 모습이고, 독자와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고 했다.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20:15)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21:8)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20:10)이라고 했다. 이들은 잠시 세상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한 자들 같으나 실패자들도이다.

둘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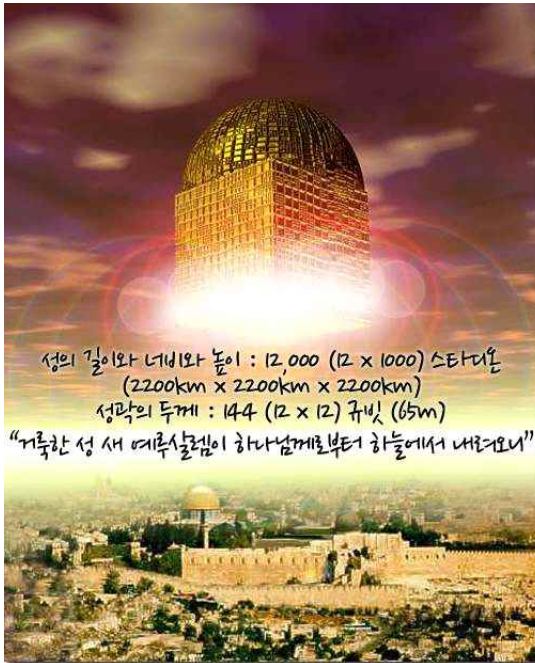
셋째,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계 7:14). 계시

록 22장 14절의 말씀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승리자 그리스도56: 최후의 승리(4)(계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1)



새 예루살렘의 상상도

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고 했는데, 이것은 광야 성막시대에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12부족을 상징하는 12보석으로 장식한 흉패와 이스라엘 12부족의 동서남북 진영배치도에 잇대어져있다.

또 15-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에서 그 성이 네모반듯한 이유는 광야시대에 이스라엘 12부족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3개 부족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펼쳤기 때문이다. 동서남북의 성곽에 각각 성문이 세 개씩인 이유도 부족별로 한 개씩 문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이 적

9절에서 대접재앙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는 10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다. 신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한다.

1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고 했고, 12-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

혀있었다고 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또 성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된 이유도 12가지 보석들은 각각 12부족을 상징한 보석이므로 12부족의 진영배치에 따라 그 기초석을 그 부족의 보석으로 놓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 보석들은 각각 12사도를 상징한 것으로써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었다.” 고 했다.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 이천 스다디온” 이라고 하였는데, 2,200 킬로미터에 해당된다. 또 성곽의 두께가 “백사십사 규빗” 이라고 하였는데, 65미터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길이와 두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천사의 측량이라” 고 하였다. 1,2000은 12x1000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부족 또는 12사도에다 ‘무한’ 또는 ‘영원’을 상징하는 1000이 곱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성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44규빗도 12x12 곧 12부족과 12사도를 곱한 숫자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2)



또 18-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고 하였는데, 이 12가지 보석들은 이스라엘 12부족을 각각 상징하는 보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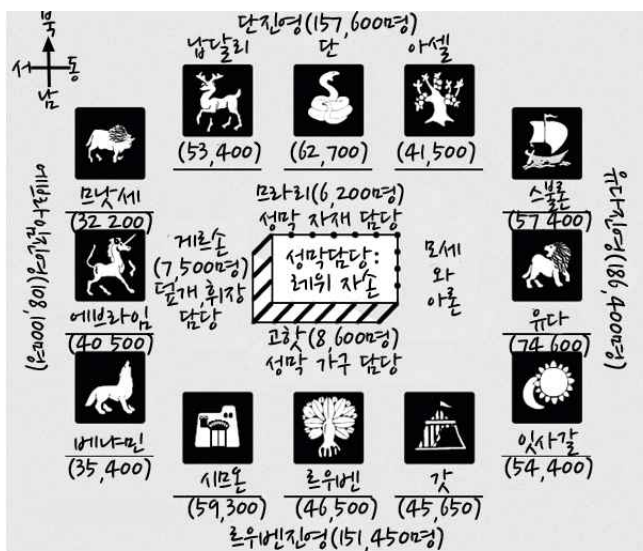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고 했는데, 정금의 순도가 매우 높아서 마치 맑은 유리처럼 빛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2개의 문은 각각 커다란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22-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

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고 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기 때문에 그 안에는 광야 성막시대에서 보았던,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한 이스라엘 12부족 중앙에 설치되었던,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를 밝혔던 메노라가 필요 없게 될 것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빛이기 때문이다.

24-27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고 하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3)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 배치도(민 2-3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22:1). 강 좌우에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데 쓰인다(22:2).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7:16).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22:3).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21:4).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22:5).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저주가 없고(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21:4). 이

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쥔을 먹는 곳이다(사 65:25).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다(22:5).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극히 아름답고, 튼튼하고,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며,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보호받으며 안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갈 특권, 곧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22:14)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야 한다(22:7).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어야 한다(22:14).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 별” 이신 예수님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22:17)고 초청하신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 마라나타!” 또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22:20)로 화답할 수 있어야겠다.